

국립국어원 2017-01-26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661-01

남북 국어 분야 전문용어 구축

연구 책임자
신중진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남북 국어 분야 전문용어 구축’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연구 책임자: 신중진(한양대학교)

연구 기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책임자: 신중진

공동 연구원: 김유진, 이은실, 이현주, 전은진, 박선

연구원: 김진만, 엄태경, 이성우

연구 보조원: 유재형

보조원: 김령령, 범기기

<직책>	<연구진>
책임 연구원	신중진(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공동 연구원	김유진(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은실(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현주(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전은진(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박선(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연구원	김진만(한양대학교 국제교육원)
	엄태경(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이성우(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연구 보조원	유재형(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과정)
보조원	김령령(한양대학교 석사)
	범기기(한양대학교 석사)

<국문초록>

남북 국어 분야 전문용어 구축

본 연구는 남북 국어 분야 전문용어를 구축하고 그 통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는 통일 시대 남북의 언어 이질성을 극복하여 용어를 표준화하고 남북 통합 교육 과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에 수행한 <남북 전문용어 구축>의 연장선에 있다.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반영한 연구 목표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 (1) 가. 남북 교류 과정에서 용어 차이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해소함으로써 통일 준비기 및 전환기 남북 통합 과정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 나. 통일 시기에 청소년 및 학습자의 중·고등교육에 필수적인 국어 교과 전문용어를 정비하여 일관된 교재 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 다. 이전 연구에서 마련한 절차와 방법론을 국어 교과에 적용하여, 연구 방법론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다.
- 라. 전문가 워크숍, 자문회의, 국제 학술회의에 참여하여, 이 연구의 성과를 공유한다.
- 마. 남북 전문용어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조망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이 연구의 용어 추출은 국어 교과의 특성에 따라 문법 분야, 문학 분야, 기능교육 분야의 세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먼저, 교과서를 중심으로 남측의 국어 교과 전문용어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용어를 북측의 국어 교과서 및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문법 분야 전문용어는 1,162개, 문학 분야 전문용어는 726개, 기능교육 분야 전문용어는 312개로 모두 2,200개의 전문용어를 추출하였다. 또한, AA형(형태가 같은 것)은 1,279개, Aa형(형태가 같으나, 표기법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120개, AB형(형태가 다른 것)은 801개가 나타났다. 남북에서 동일한 형태로 사용하는 전문용어가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추출된 남북 국어 분야 전문용어를 유형, 어종, 조어 등을 중심으로 언어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유형 분석 결과, 구 유형보다 단어 유형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남북 모두 간결한 형태의 전문용어를 선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종 분석 결과 문법 분야, 문학 분야, 기능교육 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 한자어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어 분석 결과, 문법 분야와 문학 분야는 2개의 조어 단위로 구성된 전문용어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동일하였다. 기능교육 분야는 1개의 조어단위로 구성된 전문용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모든 분야에서 보통명사와 보통명사로 구성된 조어 단위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국어 교과 분야별 전문용어의 핵심 조어 단위는 표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의 통합 기준과 세부 지침을 제시하였다. 선행 연구인 <2015년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과 <2016년 남북 전문용어 구축>의 기준을 바탕으로 통합 기준을 선정하고, 그 중요도에 따라 위계를 세웠다.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 통합의 세부 지침은 필터 기준인 문법성, 윤리 미학성과 위계 기준인 투명성, 일관성, 친숙성, 일의성, 경제성, 고유성에 따라 마련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를 통해 거둔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진에서 제시하는 앞으로의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2) 가.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 전수 조사 및 통합

나. 인문 분야 전문용어 통합

다. 실생활 분야 전문용어 통합(농수산/의학/지리/기술 등)

라. 남북 전문용어 검색 애플리케이션 개발

핵심어: 국어 교과, 전문용어, 언어학적 분석, 어종, 조어 단위, 필터 기준, 위계 기준, 전문용어 통합, 문법, 문학, 기능교육

차 례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목표	1
2. 연구의 내용	2
3. 선행 용역과의 연계성	3
4. 추진 일정	5

II.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 추출 과정

1. 국어 교과의 분야와 범위	8
2. 전문용어 추출 과정	11
2.1 자료 수집	12
2.2 남측 전문용어 선정	14
2.3 북측 대응어 확인	16

III. 남북 전문용어의 언어학적 분석

1.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의 유형 분석	20
1.1 AA형	20
1.1.1 문법 분야	20
1.1.2 문학 분야	21
1.1.3 기능교육 분야	22
1.2 Aa형	23
1.2.1 문법 분야	23
1.2.2 문학 분야	24
1.2.3 기능교육 분야	24
1.3 AB형	25

1.3.1 문법 분야	25
1.3.2 문학 분야	27
1.3.3 기능교육 분야	29
2.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의 어종 분석	32
2.1 문법 분야	32
2.1.1 형태가 같은 것(AA형)	33
2.1.2 형태가 같은 것(Aa형)	34
2.1.3 형태가 다른 것(AB형)	35
2.2 문학 분야	41
2.2.1 형태가 같은 것(AA형)	41
2.2.2 형태가 같은 것(Aa형)	43
2.2.3 형태가 다른 것(AB형)	44
2.3 기능교육 분야	49
2.3.1 형태가 같은 것(AA형)	49
2.3.2 형태가 같은 것(Aa형)	50
2.3.3 형태가 다른 것(AB형)	51
3.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의 조어 분석	55
3.1 조어 분석과 조어 단위	55
3.1.1 조어 분석의 목적과 필요성	55
3.1.2 조어 분석의 단위	57
3.2 국어 교과 조어 분석의 실제	61
3.2.1 문법 분야	64
3.2.2 문학 분야	70
3.2.3 기능교육 분야	77
3.3 핵심 조어 단위의 확인과 그 빈도	81
3.3.1 국어 교과의 분야별 전문용어의 특징	82
3.3.2 분야별 핵심 조어 단위	84

IV.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과 방향

1.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 기준과 그 적용	89
1.1 통합 기준의 유형 및 개념	90
1.1.1 필터 기준	91
1.1.2 위계 기준	92
1.2 통합 기준의 적용	95
1.2.1 문법성의 적용	97
1.2.2 윤리·미학성의 적용	97
1.2.3 투명성의 적용	98
1.2.4 일의성의 적용	99
1.2.5 친숙성의 적용	100
1.2.6 경제성의 적용	101
1.2.7 고유성의 적용	102
1.2.8 일관성의 적용	103
2.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 통합의 세부 지침	104
2.1 국어 교과 전문용어 관정을 위한 위계 설정	104
2.2 국어 교과 전문용어 관정의 적용과 실제	105
2.2.1 필터 기준의 적용	106
2.2.2 투명성의 적용	106
2.2.3 일관성의 적용	109
2.2.4 친숙성의 적용	110
2.2.5 일의성의 적용	111
2.2.6 경제성의 적용	112
2.2.7 고유성의 적용	113
2.3 통합 기준의 계량적 특징	114
3. 국어 교과 전문용어 통합 과정에서의 쟁점	120
3.1 교과 외부	120
3.1.1 국가 명칭	120
3.1.2 사회주의 사상	123

3.2 교과 내부	126
3.2.1 문법 분야	126
3.2.2 문학 분야	129
3.2.3 기능교육 분야	130

V. 연구의 성과 및 향후 계획

1. 연구의 성과 및 제한점	133
1.1 연구의 성과	133
1.2 연구의 제한점	135
2. 향후 계획	136

※ 참고 문헌	140
---------------	-----

<영문초록>

【부록】 남북 국어 분야 전문용어 판정 목록(단어)

<표 차례>

<표 1> 월별 주요 연구 진행 과정	5
<표 2> 발주처의 제안 요청 내용	8
<표 3> 북측의 학교급별 국어과의 하위 영역(강보선 외 2016:11)	9
<표 4> 남북 전문용어의 형태 유형별 개수	18
<표 5> 남북 전문용어의 동의어 수에 따른 유형	19
<표 6>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의 유형별 빈도	31
<표 7> AA형 어종 유형별 빈도	33
<표 8> Aa형 어종 유형별 빈도	34
<표 9> Aa형 어문 규정 차이에 따른 빈도	35
<표 10> 남측 AB형 어종 유형별 빈도	36
<표 11> 북측 AB형 어종 유형별 빈도	37
<표 12> AB형 남측 기준 북측 대응 유형	39
<표 13> AA형 어종 유형별 빈도	42
<표 14> Aa형 어종 유형별 빈도	43
<표 15> Aa형 어문 규정 차이에 따른 빈도	44
<표 16> 남측 AB형 어종 유형별 빈도	45
<표 17> 북측 AB형 어종 유형별 빈도	46
<표 18> AB형 남측 기준 북측 대응 유형	48
<표 19> AA형 어종 유형별 빈도	49
<표 20> Aa형 어종 유형별 빈도	51
<표 21> Aa형 어문 규정 차이에 따른 빈도	51
<표 22> 남측 AB형 어종 유형별 빈도	52
<표 23> 북측 AB형 어종 유형별 빈도	53
<표 24> AB형 남측 기준 북측 대응 유형	54
<표 25> 조은경(2001:22-28)에서의 조어 분석 방법	58
<표 26>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의 품사 표지	60
<표 27> ‘러시아’십이월’당원’문학’의 분석 예시	60
<표 28> 국어 교과 전문용어 유형	61
<표 29> 문법 분야 전문용어 유형	64
<표 30> 문법 분야 조어 단위 길이	65
<표 31> 문법 분야 AA(Aa)형 형태 및 원어	66
<표 32> 문법 분야 AA(Aa)형의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	67

<표 33> 문법 분야 AB형 형태 및 원어	68
<표 34> 문법 분야 남측 AB형의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	69
<표 35> 문법 분야 북측 AB형의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	70
<표 36> 문학 분야 전문용어의 유형	71
<표 37> 문학 분야 조어 단위 길이	72
<표 38> 문학 분야 AA(Aa)형 형태 및 원어	73
<표 39> 문학 분야 AA(Aa)형의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	73
<표 40> 문학 분야 AB형 형태 및 원어	75
<표 41> 문학 분야 남측 AB형의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	75
<표 42> 문학 분야 북측 AB형의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	76
<표 43> 기능교육 분야 전문용어 유형	77
<표 44> 기능교육 분야 조어 단위 길이	78
<표 45> 기능교육 분야 AA(Aa)형 형태 및 원어	78
<표 46> 기능교육 분야 AA(Aa)형의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	79
<표 47> 기능교육 분야 AB형 형태 및 원어	80
<표 48> 기능교육 분야 남측 AB형의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	80
<표 49> 기능교육 분야 북측 AB형의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	81
<표 50> 국어 교과 분야별 전문용어의 핵심 조어 단위 빈도(남측)	84
<표 51> 국어 교과 분야별 전문용어의 핵심 조어 단위 빈도(북측)	86
<표 52> 국어 교과 전문용어의 핵심 조어 단위 빈도(남북측 통합)	87
<표 53> 용어 판정 기준표	95
<표 54> 용어 판정문 예시	96
<표 55> 국어 교과 용어 판정의 순서	105
<표 56> 남북 전문용어 통합 기준에 따른 판정 현황	117
<표 57> 기준 순서에 따른 판정 변화 양상	118
<표 58> 2017 남북 국어 분야 전문용어 구축 연구 성과	134
<표 59>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 전수 조사 및 통합의 장점과 문제점	136
<표 60> 인문 분야 전문용어 통합의 장점과 문제점	137
<표 61> 실생활 분야 전문용어 통합의 장점과 문제점	138
<표 62> 남북 전문용어 검색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장점과 문제점	138

[그림 차례]

[그림 1] 국어 교과 전문용어 추출의 6단계	11
[그림 2] 남측 자료 목록	12
[그림 3] 북측 자료 목록	13
[그림 4] 2012년 이후의 북측 국어 교과서	14
[그림 5] 남측 전문용어 목록화 과정	15
[그림 6] 북측의 주요 자료	17
[그림 7]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의 분야별 빈도	32
[그림 8] AA형 어종 유형별 비율(%)	34
[그림 9] 남측 AB형 어종 유형별 비율(%)	37
[그림 10] 북측 AB형 어종 유형별 비율(%)	38
[그림 11] AA형 어종 유형별 비율(%)	42
[그림 12] 남측 AB형 어종 유형별 비율(%)	46
[그림 13] 북측 AB형 어종 유형별 비율(%)	47
[그림 14] AA형 어종 유형별 비율(%)	50
[그림 15] 남측 AB형 어종 유형별 비율(%)	52
[그림 16] 북측 AB형 어종 유형별 비율(%)	54
[그림 17] 국어 교과 전문용어 분야별 백분율	62
[그림 18] 국어 교과 전문용어 유형별 백분율	62
[그림 19] 교과별 남북 전문용어의 유형	63
[그림 20] 기존 전문용어의 통합 기준	90
[그림 21] 남측 용어 ‘어미’에 대한 개념체계	107
[그림 22] 북측 용어 ‘토’에 대한 개념체계	108
[그림 23] 2015년 1차년도 남북 전문용어 통합 알고리즘	114
[그림 24] 2016년 2차년도 남북 전문용어 통합 알고리즘	115
[그림 25] 2017년 3차년도 남북 전문용어 통합 알고리즘	116
[그림 26] 국어 교과 전문용어 기준별 판정 현황	117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목표

통일은 민족의 숙명이다. 현재 남북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통일은 어느 순간 다가올지 모른다. 남북통일은 오랜 시일이 걸릴 수도 있고, 갑자기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에 대한 대비 작업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 남북 관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정치와 경제적인 문제이다. 그리고 근저에는 언어적인 문제가 자리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전문용어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와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이 연구는 2015년에 수행한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과 2016년에 수행한 《남북 전문용어 구축》과 동일한 선상에 위치한다.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연구 목표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 (1) 가. 남북 교류 과정에서 용어 차이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해소함으로써 통일 준비기 및 전환기 남북 통합 과정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 나. 통일 시기에 청소년 및 학습자의 중·고등교육에 필수적인 국어 교과 전문용어를 정비하여 일관된 교재 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 다. 이전 연구에서 마련한 절차와 방법론을 국어 교과에 적용하여, 연구 방법론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다.
- 르. 전문가 워크숍, 자문회의, 국제 학술회의에 참여하여, 이 연구의 성과를 공유한다.
- 미. 남북 전문용어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조망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이 연구의 핵심 목표는 남북에서 사용하는 국어 교과 전문용어의 통합에 있다. 이는 남북 교류 및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비용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1가). 다만 전문용어의 통합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도구 교과를 대상으로 전문용어 통합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전 연구에서 수학 교과에 대한 통합 작업이 이루어진 바 있으므로, 현행 연구에서는 국어 교과의 전문용어를 통합하고자 한다(1나).

2016년에 수행된 《남북 전문용어 구축》에서 전문용어 통합을 위한 방법론과

절차가 마련된 바 있다. 이 연구는 《남북 전문용어 구축》의 방법론과 절차를 국어 교과에도 적용해보고자 한다(1다). 이와 함께 전문가 워크숍, 자문회의, 국제 학술회의 등을 통해 학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하도록 한다(1라).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 전문용어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조망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검토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1마).

2. 연구의 내용

이 연구의 주된 목표는 2015년에 수행한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과 2016년에 수행한 《남북 전문용어 구축》과 동일하다. 그것은 바로 남북 전문용어 차이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항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는 해당 용어의 추출이고, 둘째는 용어의 통합 기준 마련이다. 세부 절차 및 방법론은 《남북 전문용어 구축》에서 구축된 바 있다. 이 연구는 《남북 전문용어 구축》에서 마련된 방법론과 절차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이 연구의 용어 추출은 국어 교과의 특성에 따라 세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첫째는 문법 분야이고, 둘째는 문학 분야이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기능교육 분야이다. 먼저, 미래엔 교과서를 중심으로 남측의 국어 교과 전문용어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용어를 북측의 국어 교과서 및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하였다. 교과서 및 사전의 맥락을 바탕으로 남측과 북측의 대응 용어를 면밀히 검토하였다.¹⁾

다음은 전문용어를 통합하는 단계이다. 전문용어의 통합 기준은 2015년에 수행한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과 2016년에 수행한 《남북 전문용어 구축》에 바탕을 둔다. 다만 통합 기준의 순서를 조정한다. 이는 국어 교과의 특성에 적합한 통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각 기준의 위계 및 기준과 국어 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4장에서 상세히 논의될 것이다.

이전 연구에서 수행된 수학 및 자연과학, 그리고 체육 교과와 달리 국어 교과는 인문학을 대표하는 교과 영역이다. 따라서 이전 연구와는 다소 다른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 연구는 이에 대해서도 언급하도록 한다. 이들은 다른 인문 교과 및 사회과학 교과에서도 문제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도 역시 4장에서 상세히 논의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연구는 ‘남북 전문용어 통합을 위한 향후 과제’를 수립하는 것에도 초점을 두었다. 이전 사업인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과 《남북

1) 남측 자료 및 북측 자료에 대해서는 2장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전문용어 구축》을 바탕으로 앞으로 남북 전문용어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연구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다. 이는 5장에서 기술되었다.

3. 선행 용역과의 연계성

국내 전문용어 연구는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곳은 국립국어원이다. 전문용어의 정비는 국어 정책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어 기본법의 관련 조항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간의 전문용어 연구 현황은 2015년의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과 2016년의 《남북 전문용어 구축》을 통해 총망라된 바 있다.

그간의 전문용어 연구와 국립국어원의 전문용어 연구 용역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 정리한 것으로 대신하도록 한다. 대신 이 절에서는 두 선행 연구인 2015년의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과 2016년의 《남북 전문용어 구축》과 현행 연구인 《남북 국어 분야 전문용어 구축》의 연계성을 짚어보는 것에 중점을 둔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연구는 2015년의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과 2016년의 《남북 전문용어 구축》의 후속 연구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두 선행 연구의 방법론을 이어받고 있다. 두 선행 연구를 따르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로 언급할 수 있다. 물론 구분되는 지점도 공존한다. 구분되는 지점 역시 세 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이 연구가 두 선행 연구를 따르는 지점으로 가장 먼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연구 방법론이다. 이 연구에서는 2016년의 《남북 전문용어 구축》에서 제시한 전문용어 통합과 관련된 일반적인 연구 방법론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물론 이러한 방법론은 2015년의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에서 이미 시행된 바 있는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 방법론은 수학 및 자연과학 등 이념적 색채가 얽은 교과를 대상으로 시도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이러한 연구 방법과 절차가 인문 과학의 전문용어 통합에도 시도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였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2016년의 《남북 전문용어 구축》에서 제시된 연구 방법론과 통합 절차가 국어 교과와 같은 인문과학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다른 교과 및 사회과학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015년의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과 2016년의 《남북 전문용어 구축》의 연구를 통해 얻은 수확 중 하나는 바로 전문용어 통합 기준의 구축이다. 국제적

인 논의와 남북의 특수한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전문용어 통합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적지 않았다. 이 연구 또한 기본적으로 선행 연구에서 마련한 통합 기준을 따르고 있다.

아울러 이는 선행 연구인 2015년의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과 2016년의 《남북 전문용어 구축》과 본 연구가 구분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마련한 통합 기준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국어 교과에 적합하도록 수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마련하고 있는 통합 기준의 위계와 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논의될 것이다.²⁾

선행 연구인 2015년의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과 2016년의 《남북 전문용어 구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는 기초 전문용어와 심화 전문용어의 개념과 정의에 관한 것이었다.³⁾ 언중들은 전문용어라는 어휘를 그 어휘의 전문성이 담보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전문용어를 기초와 심화로 나누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기초’와 ‘심화’라는 용어와 전문용어라는 용어가 상호 모순되기 때문이다.⁴⁾

2017년에 수행된 《남북 국어 분야 전문용어 구축》은 이러한 한계로부터 벗어나 있다. 즉, ‘기초’와 ‘심화’라는 구분에서 탈피하여 국어 교과서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론서까지 시야를 넓혀, 국어 교과 용어를 폭넓게 수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남북 전문용어 통합 작업뿐만 아니라, 국어교육의 전문용어 교육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선행 연구와 구분되는 지점은 인문과학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 통합의 시작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국어 교과 전문용어의 통합 작업과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미리 짚어봤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자연과학의 전문용어와 달리, 인문과학의 전문용어는 사상 및 정치 체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사항이 이전 연구에서는 많이 다루어지지 못했다. 즉,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될지에 대한 언급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남북이 사용하는 국어 교과의 전문용어를 대상으로 어떠한 지점에서 문제가 될지 예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 구분된다. 이 연구에서 논의된 사항은

2) 선행 연구에서 마련한 통합 기준은 교과 전문용어 외에 행정 용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논의된 바 있다. 물론 위계 순서에 대해서는 행정 용어에 적합하도록 수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서는 조태린(2017:311-312)을 참고할 수 있다.

3) 이에 대한 비판은 조태린(2017:313-321)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4) 2015년의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과 2016년의 《남북 전문용어 구축》에서는 기초와 심화에 대한 구분을 위해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의지한 바 있다. 즉 기초 전문용어는 중등 교육과정 이하에서 도입되는 용어이고, 심화 전문용어는 고등 교육과정 이상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향후 이루어질 인문과학 전문용어의 통합 과정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이처럼 이 연구는 선행 용역의 성과를 이어받았다. 이와 함께 국어 교과에 적합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용어에 대한 정의 및 통합 기준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물론 아직 과제가 산적하다. 사상 및 정치 체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교과 영역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 성과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것이다.

4. 추진 일정

본 연구진은 선행 연구인 2015년의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과 2016년의 《남북 전문용어 구축》을 수행한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립국어원에서 요구하는 과업의 내용과 방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착수보고회를 마친 이후 본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월별로 진행된 주요 과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월별 주요 연구 진행 과정

월	주요 진행 과업	비 고
3	연구 자료 수집 (교과서, 전공 서적, 광명백과사전 등)	착수 보고회
4	남측의 국어 교과 전문용어 추출 (문법, 문학, 기능교육)	-
5	북측의 국어 교과 전문용어 추출 및 남측 전문용어와의 비교	-
6	전문용어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	자문회의
7	남북 전문용어 통합 지침 마련	-
8	1차 남북 전문용어 통합안 작성	중간평가회 전문가 워크숍
9	2차 남북 전문용어 통합안 작성	-
10	남북 전문용어 통합안 점검	국제학술회의 참석
11	남북 전문용어 통합을 위한 향후 실행 계획 수립	최종 평가회

<표 1>은 본 연구의 월별 연구 진행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가장 먼저 수행한 작업은 자료 수집이었다. 본 연구진은 남북 전문용어를 추출하기 위해 남측과 북측의 교과서 자료 및 대학교 교재, 그리고 북측의 대백과 사전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북측의 교과서 및 대학 교재, 대백과사전의 확보였다.

발주 기관인 국립국어원과 협조 기관인 국립 중앙도서관 북한자료센터의 도움을 바탕으로 북측 자료를 확보하였다. 이전 연구와 마찬가지로 북측의 국정 백과사전인 《광명백과사전》을 확보하였다. 이와 함께 2013-2015년도에 발간된 북측의 최신 교과서를 국립국어원을 통해 지원받았다. 자료 현황에 대해서는 2장에서 자세히 언급된다.

4월부터는 전문용어 추출이 이루어졌다. 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국어 교과서/교사용 지도서 및 주요 대학 개론서를 대상으로 남측 전문용어를 수집하였다. 국어 교과 전문가들이 교과서 및 대학 교재에서 수작업으로 전문용어를 추출한 후, 전문가 협의를 통해 해당 전문용어를 선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북측 교과서 및 북측의 대학 교재를 대상으로도 같은 작업을 시도하였다.

5월에는 수집된 북측 전문용어를 남측의 전문용어와 대응시키는 작업이 주로 이루어졌다. 연구진에 속한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전문지식을 토대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각 영역의 전문가들은 추출한 남측 전문용어에 대응하는 전문용어를 북측 자료에서 직접 찾았다. 북측의 국어 교과서, 그리고 《광명백과사전》과 《조선말대사전》을 주요 자료로 활용하였다.

6월에는 확보한 전문용어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 지침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선행 과업인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에서 수행한 분석 방법을 토대로 하였다. 국어 교과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얻은 결과는 각 영역에 적합한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 지침을 마련하는 데에 활용하였다.

7월부터 본격적으로 남북 기초 전문용어 통합 지침을 마련하였다. 6월에 수행한 전문용어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 결과가 기반이 되었다. 아울러 이전 연구인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과 《남북 전문용어 구축》의 연구 결과도 적극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국어 교과에 적합한 통합 지침과 기준을 새로이 설정할 수 있었다.

8월에는 전문용어 통합안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책임연구원의 주도 하에 각각의 용어에 대해 세부적인 판정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세부적으로는 연구진 간의 이견 역시 존재하였다. 이러한 사항은 모두 책임연구원의 주관 하에 토론을 거쳐 해결하였다. 이와 함께 중간평가회와 전문가 워크숍이 이루어졌다. 통합안에 대한 각계각층 및 국립국어원의 정밀한 검토가 병행되었다.

9월에는 중간평가회와 전문가 워크숍의 논의 사항을 바탕으로 2차 남북 전문용어 통합안을 마련하였다. 연구진들 간에 교차 검토를 여러 차례 진행하여 완성도를 높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10월 국제 학술회의에 참여하였다. 국제 학술회의에서 본 연구 결과의 성과를 집약하여 소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북 전문용어 연구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조망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전문용어 통합안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 작업도 진행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11월에는 남북 전문용어 통합을 위한 향후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남북 전문용어 통합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는 11월 22일 국립국어원 최종 평가회에서 발표되었다. 최종 평가회에서는 여러 유의한 지적과 조언이 있었다. 이들을 바탕으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II.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 추출 과정

II장에서는 남북 국어 교과를 살펴보고, 전문용어를 추출할 분야를 조정한다. 주지하듯이 국어 교과는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각 분야를 합리적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남측과 북측의 국어 교과를 함께 살펴보고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추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양측의 교육 과정 및 국어 교과의 편제를 참조하여 양측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분야로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전문용어의 추출 과정을 살펴본다. 국어 교과의 모든 참고 서적 등을 망라하여 최대한 많은 용어를 추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자료를 참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정제되지 않은 자료는 오히려 용어들 간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또한 북측의 자료는 특수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초중등 교과서를 비롯한 정당성과 대표성을 지닌 교재들을 바탕으로 전문용어를 추출한다. 전문용어의 추출 과정은 자료의 수집, 남측 전문용어의 선정 그리고 북측 대응어의 확인으로 진행된다.

1. 국어 교과의 분야와 범위

국어 교과의 분야를 조정하기 전에, 본 연구 발주처의 제안 요청 사항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의 내용은 제안 요청서에 담긴 제안 요청 내용이다.

<표 2> 발주처의 제안 요청 내용

-
- 남북 초중등 교과서, 신문 및 대중잡지 등에 나오는 국어 교과 전문용어 추출, 대조 분석 및 통합 방안 제시(2,000항목 이상)
 - 남북의 국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초중등 국어 교과 영역 중심의 용어 추출(‘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글짓기), 문법(기초원리지식), 문학, 글씨쓰기’ 등)
 - * 남한은 국어과의 영역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등 5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북한은 글자교육, 읽기 및 쓰기교육, 듣기교육, 말하기교육, 글짓기교육, 글씨쓰기교육, 기초원리지식교육 등 7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음.
-

위 표의 첫 번째 항목에는, ‘교과서, 신문, 잡지’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국어 교과 전문용어 2,000개를 추출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사실 한 영역의 전문용어는 많게는 수만 개에 달하며, 적어도 수천 개가 있다. 실제로 《우리말샘》에는 ‘문학’ 분야의 용어가 8,492개 등재되어 있으며, ‘언어’ 분야의 용어는 7,138개, ‘교육’ 분야의 용어는 3,701개가 등재되어 있다. 즉 국어 교과의 전문용어 중 2,000여 개라는 숫자는 그리 큰 수가 아니다. 그러므로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와 분야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 중에는 “통일 시기, 남북의 청소년 및 언어학습자의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마련”과 같은 항목이 있다.⁵⁾ 즉 통일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통일 교과서 개발의 목적을 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중등 교과서를 중심으로 전문용어를 추출하여 통일 시기를 대비하고자 한다. 초중등 교과서에서 추출된 남측과 북측의 전문용어는 형태적으로 동일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 또한 형태적으로 다르더라도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용어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전문용어의 비교 및 분석은 통일을 대비해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위 표의 두 번째 항목에는 국어 교과 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남측의 국어 교과서 5개의 영역이 있고, 북측의 국어 교과서에는 7개의 영역이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각각 다른 영역이 존재하고 각 영역이 담당하고 있는 영역의 경계 또한 다르다. 따라서 이 영역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양측의 영역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영역 조정의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본다.

강보선 외(2016)에서는 2013년에 개정된 북측 교육과정의 특징을 국어과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밝힌 북측의 학교급별 국어과의 하위 영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 북측의 학교급별 국어과의 하위 영역(강보선 외 2016:11)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1학년	2-3학년	4-5학년		
· 글자교육	· 읽기 및 쓰기	· 읽기 및 쓰기	· 듣기교육	· 듣기교육

5) 본 연구의 제안 요청서에는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남북 언어 이질화는 일상용어보다는 전문용어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바, 용어 차이 때문에 향후 남북 통합 과정에서 과도한 소통 비용 발생 가능성 증대.
- 용어 표준화를 통해 남북 통일 준비기 및 전환기 사회 통합의 효율성 도모.
- 통일 시기, 남북의 청소년 및 언어학습자의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마련.

· 읽기 및 쓰기 교육 · 글씨쓰기교육 · 듣기교육 · 말하기교육 · 기초원리지식 교육	교육 · 듣기교육 · 말하기교육 · 글짓기교육 · 글씨쓰기교육 · 기초원리지식 교육	교육 · 듣기교육 · 말하기교육 · 글짓기교육 · 기초원리지식 교육	· 읽기교육 · 말하기교육 · 글짓기교육 · 기초원리지식 교육	· 읽기교육 · 말하기교육 · 글짓기교육 · 기초원리지식 교육
--	---	---	---	---

남측의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는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등 다섯 개의 영역을 학년(학년) 구분 없이 설정하고 있다. 즉 남측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책은 이 5가지 영역의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북측에서는 학년별로 포함하고 있는 영역이 조금씩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학교 1학년 과정에는 ‘글자교육’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글씨쓰기 교육’ 영역도 소학교 3학년 과정까지 국어 교과 영역으로 포함된다.

남측과 북측의 국어 교과 영역 구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북측에 ‘문법’과 ‘문학’ 영역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북측에서 ‘문법, 문학’ 영역의 내용을 학습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소학교의 ‘글짓기교육’이나 ‘읽기교육’에서는 문학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한 고급중학교의 ‘기초원리지식교육’에서는 ‘문학’ 분야의 자세한 내용을 다룬다. 그리고 소학교의 ‘쓰기교육’에서는 맞춤법과 관련한 문법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초급중학교의 ‘기초원리지식교육’에서도 ‘문법’ 내용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⁶⁾

남과 북의 국어 교과 영역을 통합하여 동일한 분야로 나누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양측의 교과 과정을 중심으로, 큰 틀에서 다시 나누어 보면 ‘문법’, ‘문학’, ‘기능교육’ 분야로 나누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러한 구분은 2015년에 개정된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아래의 목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어 교과에서는 ①이해·표현 활동(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②문법, ③문학 분야의 본질의 이해를 목표로 삼고 있다.

(1) 국어로 이루어지는 이해·표현 활동 및 문법과 문학의 본질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맥락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품위 있고 개성 있는 국어를 사용하며, 국어문화를 향유하면서 국어의 발전과 국어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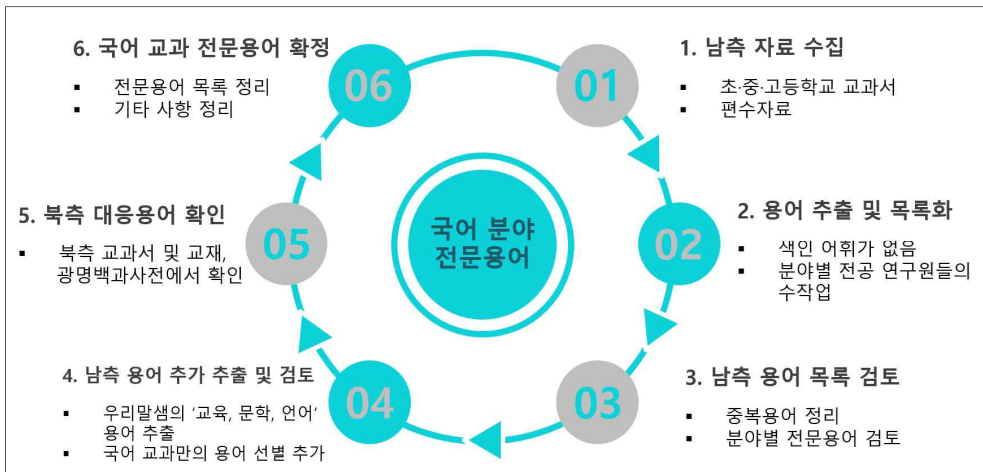
6) 남측의 ‘쓰기’ 영역과 북측의 ‘쓰기교육’ 영역의 내용은 서로 같지 않다. 남측 ‘쓰기’ 영역의 경우 ‘글짓기’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북측에서는 ‘글짓기교육’에서 해당 내용을 다루고 있다.

력과 태도를 기른다.

다음으로, 북측의 자료 구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북 국어 교과와 전문용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기초 자료가 필요하다. 현재 남측에서 북측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곳은 통일부 산하의 <북한자료센터>가 유일하다. 이곳에서는 북측의 교과서 및 참고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데, 초중등 국어 교과서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명이 <국어>인 국어책 이외에도 고등학교 과정(고급중학교)에서는 <문법>과 <문학> 책을 따로 두어 교육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국어 교과를 ‘문법’, ‘문학’, ‘기능교육’으로 나누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타당한 일임을 알 수 있다.

2. 전문용어 추출 과정

전문용어의 추출은 기본적으로 남측의 전문용어를 바탕으로, 북측의 전문용어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총 6단계를 거치는데 아래의 그림은 이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1] 국어 교과 전문용어 추출의 6단계

용어 추출의 첫 번째 단계는 남측의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남측의 용어를 추출하고 목록화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목록화한 용어를 검토하여 중복되거나 잘못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다. 네 번째 단계는 부족한 용어를 추가하는 단계이며, 다섯 번째 단계는 확정된 남측 전문용어에 대응하는 북측 용어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남북의 국어 교과 전문용어를 정리하고 추출 과정에서 생긴 기타 사항을 특기한다. 이러한 여러 단계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다음의 각 절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2.1 자료 수집

전문용어 추출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일관된 자료에서 균질한 전문용어를 확보하는 일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확보된 전문용어들은 실제 통일 현장에서 사용될 것임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양질의 자료 확보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먼저 수집한 자료는 남측과 북측의 국어 교과서이다. 남측의 교과서는 ‘미래엔, 지학사’ 등의 출판사에서 나온 최근의 자료를 확보하였다. 더불어 교육부에서 발간한 편수자료도 같이 확보하였다. 편수자료는 교과서에서 추출한 용어들이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 통일된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확보하였다. 다음의 그림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남측 자료의 목록이다.

	도서명	출판사
교과서	- 중학교 국어 ①-⑥	미래엔 등
	- 고등학교 국어 I, II - 화법과 작문 - 문학 - 독서와 문법	미래엔 등
사전류	- 표준국어대사전 - 우리말샘	국립국어원
	- 한국어 교육학 사전	도서출판 하우
	- 남북한 학술용어 비교사전 (인문, 사회)	한국학중앙연구원
기타 자료	- 남북 교과서 학술용어 비교 연구 2	국립국어원
	- 편수자료Ⅱ(2015)	교육부

[그림 2] 남측 자료 목록

교과서의 경우 ‘미래엔, 지학사’ 등 두 곳의 출판사에서 자료를 확보하였다. 중학교 과정의 ‘국어’와 고등학교 과정의 ‘국어, 화법과 작문, 문학, 독서와 문법’ 등

의 교과서 자료도 국어 교과서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사전류로는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을 확보하여 활용하였다. 두 자료 모두 국가 기관에서 편찬한 것으로 ‘표준성’과 ‘대표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어 교육학 사전》과 《남북한 학술용어 비교사전》은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심화 전문용어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이 두 사전을 참조하였다. 기타 자료로는 ‘남북 교과서 학술용어 비교 연구2’가 있다. 이 자료는 2008년에 국립국어원에서 펴낸 것으로 남북의 교과서에서 사용된 학술용어를 비교하여 보이고 있다. 이 자료 역시 참조하여 남측 전문용어를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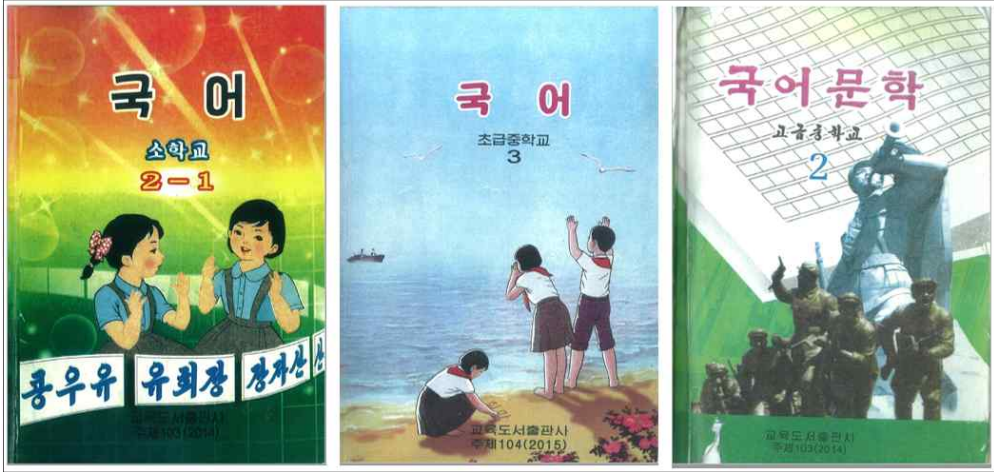
다음의 그림은 북측의 자료 목록이다.

	도서명	교육 과정	출판사
교과서	- 국어 - 국어 - 국어	초급중학교 1 초급중학교 2 초급중학교 3	교육도서출판사
	- 국어문학 - 국어문학 - 국어문학 - 국어문법 - 국어문법 - 논리학초보교수참고서	고급중학교 1 고급중학교 2 고급중학교 3 고등중학교 1 고등중학교 3 고등중학교 6	교육도서출판사
사전류	- 조선말대사전 - 광명백과사전 6, 7		사회과학원 백과사전출판사
기타 자료	- 남북 교과서 학술용어 비교 연구 2 - 남북한 학술용어 비교사전 (인문, 사회)		국립국어원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림 3] 북측 자료 목록

북측의 자료 역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교과서이다.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를 주로 확보하였다.⁷⁾ 다만 〈북한자료센터〉에서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최신의 교과서 자료들이 2000년에서 2006년 사이의 자료들이었다. 현 시점에서 10년 이상된 자료들이어서 최근의 자료 확보가 중요했다. 다행히 발주처인 국립국어원에서 학제 개편 이후의 교과서 자료들을 확보하여 본 연구진에 제공해 주었다. 덕분에 가장 최신의 북측 교과서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7) 북측은 2012년 학제 개편을 단행했으며,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였다. 북측의 학제는 ‘12년제 의무교육’으로 ‘유치원 높은반(1년)-소학교(5)-초급중학교(3)-고급중학교(3)’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 2012년 이후의 북측 국어 교과서

북측의 사전들은 《조선말대사전》과 《광명백과사전》을 확보하여 사용하였다. 《조선말대사전》의 경우 남측의 《표준국어대사전》과 마찬가지로 국가 기관의 주도로 만들어진 규범사전이다. 그러므로 대표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광명백과사전》은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백과사전이다. 이 사전은 ‘북한역사, 정치, 법, 어학, 수학’ 등 인문·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분야를 전체 20권으로 나누어 2010년에 완간되었다. 해당 분야의 전반적인 지식 체계를 담고 있는 총체로서 표준화된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데에 큰 가치가 있다.

2.2 남측 전문용어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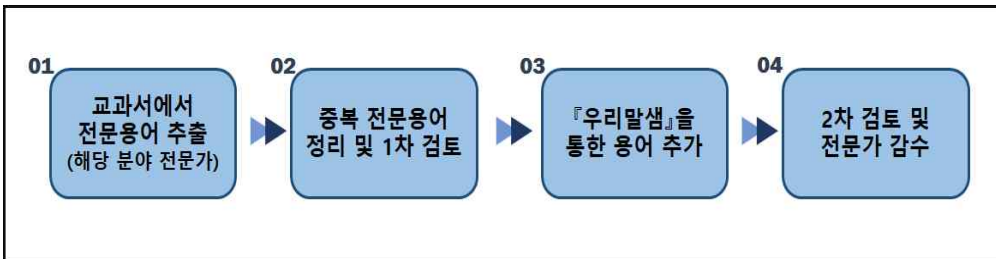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남북 전문용어의 추출은 남측 전문용어의 추출에서부터 시작한다. 남측의 교과서와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용어를 직접 확인하고 목록화하는 것이다. 이전의 연구에서는(신중진 외 2015, 2016) 각 교과서(교재)에 들어 있는 색인(index) 어휘들을 중심으로 1차적인 용어 수집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국어 교과서의 경우 색인 어휘가 없거나 있더라도 작가명이나 작품명 등이 가장 많이 올라가 있어 전문용어의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웠다.⁸⁾ 따라서 ‘문법, 문학, 기능교육’ 분야의 전공자들이 교과서를 직접 읽으면서 수작업으로 전문용어

8) 작가명이나 작품명이 전문용어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북측의 대응어를 고려했을 때, 고유명사는 되도록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는 연구진 대다수의 의견이 있었다.

를 선별하였다.

본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은 (대응하는) 2,000여 개의 남북 전문용어를 추출하여 분석하고 통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남측의 전문용어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남측 용어는 2,000여 개의 2배수가 된다. 즉 4,000여 개의 남측 전문용어가 추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북측 용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응어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다.

북측 대응어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 대응어가 없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북측 용어에는 ‘정확한 수량이나 순서가 아니라 개략적인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의 한 갈래(한들, 두서너 스무나문 등)’를 나타내는 ‘개략수사’라는 용어가 있다. 그러나 남측어에는 이에 해당하는 용어가 따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 둘째, 대응어가 존재하지만 찾지 못한 경우가 있다. 전문용어의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수작업으로 전문용어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경우도 있으며, 자료의 부재로 확인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시적허용’이라는 남측 문학 분야의 용어가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북측의 용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물론 대응어가 없을 가능성도 있다. 여하튼 이러한 문제들로 남측 전문용어는 3,500개에서 4,000개 사이가 되어야 한다. 다음의 그림은 남측 전문용어의 목록화 과정을 도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5] 남측 전문용어 목록화 과정

첫 번째 단계는 교과서에서 전문용어를 추출하는 단계이다. 주지하듯이, 대표성을 가지면서 균질한 전문용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본 연구에서는 2종의 교과서를 각 분야(문법, 문학, 기능교육)의 전문가가 직접 읽어가며, 수작업으로 전문용어를 추출하였다. 다른 종의 교과서라고 해도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또한 활용되는 전문용어는 큰 차이가 없었다. 교과서 모두 교육부 편수자료의 용어들을 기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 확보된 전문용어의 수는 총 3,151개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확보된 전문용어를 정리하고 검토한다. 초중등 교육 과정에 따라 학습하는 내용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그 안에 사용되는 전문용어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1단계에서 확보한 전문용어 중에서는 중복되는 용어가 상당수 있다. 따라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단계에서 3,151개 용어 중 907개가 중복되어 제외하고 2,244개의 전문용어를 남겼다. 그리고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을 바탕으로 남은 전문용어를 확인하고 검토하였다. 물론 이 두 사전에서 확인되지는 않지만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널리 인정되는 용어라고 판단하면 전문용어로 판단하였다. 예를 들어 ‘문법’의 ‘기본문형, 고빈도 어휘’, ‘문학’의 ‘각운법, 파리코뮌문학’ 등이 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말샘》을 활용하여 국어 교과 전문용어를 추가하였다. 2단계까지 확보한 남측 전문용어가 2,200여 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용어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우리말샘》에 등재되어 있는 《어학》, 《문학》, 《교육》 분야의 용어를 모두 추출해 보았다. 각기 등재되어 있는 전문용어의 개수는 문법 분야가 7,100여 개, 문학 분야가 8,500여 개, 교육 분야가 3,700여 개쯤 되었다. 이 분야의 용어들 중에서 국어 교과와 관계가 있는 전문용어만을 선별하였다. 결과적으로 ‘문법’ 분야 용어 1,524개, ‘문학’ 분야 용어 846개, ‘기능교육’ 분야 용어 91개 등 총 2,400여 개의 국어 교과 전문용어를 추가하였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앞서 세 단계에 걸쳐 확보된 남측 전문용어를 검토하고 전문가 감수를 통해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4,600여 개에 달하는 남측 전문용어를 일일이 살펴보며 검토하였다. 중복되는 용어를 정리하고, 전문용어가 아닌 용어를 정리하여 총 4,536개에 달하는 남측 전문용어를 확보하였다.

2.3 북측 대응어 확인

이 절에서는 남측 전문용어에 대응하는 북측 전문용어를 찾는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2.1절에서 밝힌 바대로 북측의 자료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선말대사전》과 《광명백과사전》이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우선 각각의 자료들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더불어 대응어를 찾는 과정을 확인한다.



[그림 6] 북측의 주요 자료

북측의 교과서는 학제 개편이 단행된 이후의 교과서를 주로 사용하였다. 남측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북측의 경우에도 교과서 전문용어는 엄선된 용어만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어떤 자료보다도 우선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급중학교 과정의 ‘국어 1, 2, 3’, 고급중학교 과정의 ‘국어문학 1, 2, 3’과 ‘국어문법 1, 2, 3’이 주로 활용되었다. 고급중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문학’, ‘문법’ 등과 같이 분야가 나뉘어 있지만, 초급중학교의 ‘국어’와 같은 경우에는 ‘문법, 문학, 기능교육’ 등의 분야가 혼재되어 있어 각 분야의 전문가가 교차 검토하여 대응어를 확인하였다.

《광명백과사전》은 《조선대백과사전》에 이은 가장 최근의 백과사전으로 여러 과학 분야를 20개 분야로 나누어 2012년에 완간되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야는 6권의 ‘문학예술(2008)’과 7권의 ‘교육, 어학, 출판보도(2011)’ 분야이다. 광명백과사전은 해당 분야의 지식을 망라하고 있는데, 고등 교육과정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⁹⁾ 이 자료는 교과서와 더불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판단하여 대응어를 찾는 데 활용하였다.

《조선말대사전》은 북측의 대표 기관에서 발간한 규범 사전이다. 따라서 표준성을 가지며 북측의 대표적인 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전에는 많은 전문용어가 등재되어 있는데 특히 미시구조에서 ‘다듬은 말’이라는 표지로 다수의 전문어를 순화하여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2006년도에 수정·증보한 《증보판 조선말대사전》이 발간되었는데, 1992년도의 것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제작되어 있

9) 수학, 물리 등 자연과학 분야의 경우에는 남측의 대학교 1-2학년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어 활용하기 쉬운 반면, 이 자료는 종이사전으로만 확보하고 있어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국립국어원에서 2008년에 발표한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2> 또한 대응어를 확인하는 데 활용되었다. 이 연구는 ‘국어 문법, 문학, 한문, 음악’ 등 9개 분야의 교과서에 나타나는 학술 용어를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남북의 전문용어를 대비하여 표로 제시하고 있어 대응어를 확인하기에 용이하다. 다만 바탕 자료로 활용된 자료들이 2000년대 초반의 자료로 현 시점에서 십여 년 이상 차이가 난다. 따라서 이 자료를 핵심자료로 활용하기보다 참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북측 대응어의 확인은 남측 전문용어 추출 때와 마찬가지로 수작업으로 진행하였다. 교과서와 《광명백과사전》을 해당 분야 전문가가 직접 읽어가며 남측 전문용어에 대응하는 전문용어를 가려냈다. 그리고 《우리말샘》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세히 찾기’ 검색 서비스도 활용하여 북측 대응어를 확인하기도 했다. 여러 자료로 대응어를 확인하면 동일한 개념에 대해 여러 가지 전문용어가 발견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남측의 ‘구개음화’라는 용어에 대해 북측에서는 ‘《지,치》로되기(북)’ 또는 ‘입천장소리되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경우 두 용어 모두 각각 수록했다. 즉 ‘구개음화(남)-《지,치》로되기(북)’, ‘구개음화(남)-입천장소리되기(북)’과 같이 처리한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거쳐 총 2,200개의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를 확정하였다. 다음은 확정된 남북 전문용어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4> 남북 전문용어의 형태 유형별 개수

분야	수량	AA형	Aa형	AB형
문법	1,162	530	31	601
문학	726	496	65	165
기능교육	312	253	24	35
합계	2,200	1,279	120	801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총 2,200개의 전문용어 목록을 확보하였다. 이 중에서 문법 분야 전문용어는 1,162개이고, 문학 분야 전문용어는 726개이다. 그리고 기능교육 분야 전문용어는 312개가 확정되었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용어들 중 남측과 북측의 형태가 같은 전문용어는 1,279개로 가장 많았다. 맞춤법 등의 문제로 형태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다고 보는 Aa형은 120개였고, 형태가 완전히 다른 AB형은 801개이다.

<표 5> 남북 전문용어의 동의어 수에 따른 유형

분야	수량	1:1	다:1	1:다	다:다
문법	1,162	786	314	43	19
문학	726	604	88	22	12
기능교육	312	283	21	6	2
합계	2,200	1,673	423	71	33

위의 표는 동일한 개념을 나타내는 동의어의 수를 확인하여 정리한 것이다. 예를 들어, ‘말이나 글의 끝을 맺는 부분’이라는 개념에 대해 남측은 ‘결론’, ‘맺음말’이라는 전문용어를 갖는다. 그리고 북측은 이에 대해 ‘결론’, ‘맺는글’이라는 전문용어를 갖는다. 따라서 이 경우는 ‘다:다’의 유형을 보이는 것이다. 즉 양측 모두 2개 이상의 전문용어를 갖고 있는 것이다.¹⁰⁾ 위의 표를 보면, 남측과 북측이 하나씩 전문용어를 갖는 ‘1:1’ 유형이 일반적이다. 다음으로는 남측이 2개 이상의 전문용어를 가지며, 북측이 1개를 갖는 ‘다:1’ 유형이다. 그리고 남측이 1개의 전문용어를 갖고 북측이 2개 이상의 전문용어를 가지는 ‘1:다’ 유형이 있다. 마지막으로 양측 모두 2개 이상의 전문용어를 가지는 ‘다:다’ 유형이 있다. 전문용어의 목록과 유형에 대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10) <다:1> 유형의 예: “가극, 리브레토(남)-가극(북)”, “가정법, 가설법(남)-가설법(북)” 등
 <1:다> 유형의 예: “감상문(남)-감상문, 느낌글(북)”, “장단(남)-길이마루, 장단(북)” 등
 <다:다> 유형의 예: “결론, 맺음말(남)-결론, 맺는말(북)”, “머리운, 두운(남)-머리운, 두운(북)”, “접속부사, 접속사(남)-접속부사, 이음부사(북) 등

Ⅲ. 남북 전문용어의 언어학적 분석

1.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의 유형 분석

이 장에서는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를 AA형, Aa형, AB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에서 나타나는 문법, 문학, 기능교육 전문용어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는 모두 2,200개가 나타난다. 그중 문법 분야는 1,162개, 문학 분야는 726개, 기능교육 분야는 312개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AA형은 1,279개, Aa형은 120개, AB형은 801개이다.

1.1 AA형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의 AA유형은 남북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는 유형을 말한다. 특히, 국어 교과에서는 1,279개로 AA유형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1.1.1 문법 분야

남북 문법 분야의 전문용어는 모두 1,162개이고, 그중 AA형은 530개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구 유형은 142개, 단어 유형은 388개로 나타난다. 이 절에서는 남북 문법 분야 전문용어 AA형의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겠다.

1) 구 유형

구 유형은 남북 문법 분야에서 나타나는 전문용어 중 구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AA형 530개 중 142개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 유형은 남북에서 동일하게 구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 | |
|-------------|---------|
| (1) ㄱ. 각자병서 | ㄴ. 동어반복 |
| ㄷ. 보조용언 | ㄹ. 표의문자 |

2) 단어 유형

1.2 Aa형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의 Aa형은 남북의 어문규정의 차이로 나타나는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Aa형은 남북의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언제든지 AA형으로 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에서 나타나는 Aa형은 120개이다.

1.2.1 문법 분야

남북 문법 분야 전문용어의 Aa형은 모두 31개이다. 남북 문법 분야 전문용어 Aa형의 구 유형과 단어 유형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구 유형

남북 문법 분야 전문용어 Aa형에 나타나는 구 유형은 11개이다. 구 유형으로 나타나는 전문용어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 | |
|-------------------|------------------|
| (7) ㄱ. 반의관계↔반의의관계 | ㄴ. 아라비아숫자↔아라비아수자 |
| ㄷ. 언어연대학↔언어년대학 | ㄹ. 연결부호↔런결부호 |

2) 단어 유형

남북 문법 분야 전문용어 Aa형에 나타나는 단어 유형은 20개이다. 압도적인 차이는 아니지만 단어 유형의 빈도가 구 유형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어 유형으로 나타나는 전문용어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 | |
|--------------------|----------|
| (8) ㄱ. 가운뎃소리↔가운데소리 | ㄴ. 노어↔로어 |
| ㄷ. 예문↔례문 | ㄹ. 이두↔리두 |

남북 문법 분야 전문용어 Aa형에 나타나는 남북의 표기 차이는 ‘두음법칙의 적용 유무’, ‘한글맞춤법의 차이’, ‘사잇소리 적용 유무’ 등에 의해 나타난다. 이러한 Aa형에서는 남북 대응어 간에 의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어느 쪽이든 남북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모두 AA형으로 귀속될 수 있는 예라고 할 수 있다.

1.2.2 문학 분야

남북 문학 분야의 전문용어 Aa형은 모두 65개이다. 구 유형은 11개, 단어 유형은 54개이다. 남북 문학 분야 전문용어 Aa형에 나타나는 유형별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구 유형

남북 문학 분야 전문용어 Aa형에 나타나는 구 유형은 11개이다.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9) ㄱ. 러시아문학↔로씨야문학 | ㄴ. 언어예술↔언어의예술 |
| ㄷ. 역사적배경↔력사적배경 | ㄹ. 연작소설↔련작소설 |

2) 단어 유형

남북 문학 분야 전문용어 Aa형의 단어 유형은 54개로 나타난다. 구 유형에 비해 단어 유형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 역시 남북 모두 간결한 전문용어를 선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 | |
|-----------------|----------------|
| (10) ㄱ. 가새염↔가새렴 | ㄴ. 되풀잇법↔되풀이법 |
| ㄷ. 운율↔운률 | ㄹ. 클라이맥스↔클라이막스 |

남북 문학 분야 전문용어 Aa형 단어 유형 역시 문법 분야 전문용어와 마찬가지로 ‘두음법칙의 적용 유무’, ‘한글맞춤법의 차이’ 등에 의해 표기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클라이맥스↔클라이막스’의 예를 통해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차이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1.2.3 기능교육 분야

남북 기능교육 분야 전문용어의 Aa형은 모두 24개이다. 구 유형 3개, 단어 유형 21개이다. 앞서 다루었던 문법 분야, 문학 분야와 동일하게 단어 유형의 빈도

남북 문법 분야 전문용어의 AB형은 모두 601개이다. 이것을 남측 판정, 북측 판정, 무승부 판정으로 나누고 각 판정별로 나타나는 구 유형과 단어 유형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남북 문법 분야 전문용어 AB형의 남측 판정 용어는 235개, 북측 판정 용어는 227개, 무승부 판정 용어는 139개이다.

1) 남측 판정

남북 문법 분야 전문용어 AB형의 남측 판정 용어는 모두 235개이다. 근소한 차이지만 남측 판정 용어의 수가 북측 판정 용어보다 많이 나타났다. 그중 구 유형은 102개, 단어 유형은 133개이다. 이들 예시는 다음과 같다.

- | | |
|---------------|----------|
| (13) ㄱ. 객체높임말 | ㄴ. 리변칙활용 |
| ㄷ. 목적격조사 | ㄹ. 절대시제 |
| (14) ㄱ. 개구도 | ㄴ. 기표 |
| ㄷ. 어간 | ㄹ. 청유문 |

(13)은 남북 문법 분야 전문용어 AB형의 남측 판정 용어 중 구 유형으로 나타나는 예이고, (14)는 단어 유형으로 나타나는 예들이다. 남측 판정 용어에서는 구 유형보다 단어 유형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북측 판정

남북 문법 분야 전문용어 AB형의 북측 판정 용어는 모두 227개이다. 그중 구 유형은 56개, 단어 유형은 171개이다.

- | | |
|----------------|-----------|
| (15) ㄱ. 열린소리마디 | ㄴ. 국제음성기호 |
| ㄷ. 순환막힘소리 | ㄹ. 모음교체 |
| (16) ㄱ. 세기마루 | ㄴ. 국한문체 |
| ㄷ. 거센소리 | ㄹ. 뜻반대말 |

(15)는 남북 문법 분야 전문용어 AB형의 북측 판정 용어의 구 유형 예시이고, (16)은 단어 유형의 예들이다. 남측 판정 용어와 같이 구 유형보다 단어 유형의

수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남측 판정 용어에 비해 북측 판정 용어에서 나타나는 단어 유형의 수가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남측보다 북측에서 간결한 형태의 전문용어의 수가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무승부 판정

남북 문법 분야 전문용어 AB형의 무승부 판정 용어는 모두 139개이다. 무승부 판정은 남북의 용어를 모두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무승부 판정의 전문용어를 살펴보면, 남북의 유형이 동일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예도 있다. 이 절에서는 무승부 판정의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겠다.

- | | |
|-------------------------------------|------------------------------------|
| (17) ㄱ. 가설법↔가정법
ㄷ. 사동형↔사역형 | ㄴ. 묶음표↔괄호
ㄹ. 홑자음↔단자음 |
| (18) ㄱ. 간접담화↔간접전달
ㄷ. 독립성분↔외판성분 | ㄴ. 국어순화운동↔언어문화운동
ㄹ. 실질형용사↔성질형용사 |
| (19) ㄱ. 겹받침↔둘받침
ㄷ. 입술소리↔입술자음 | ㄴ. 능동사↔제힘동사
ㄹ. 하계체↔《하계》형 |
| (20) ㄱ. 갑골문자↔갑골글자
ㄷ. 모음사각형↔모음사각도 | ㄴ. 과거진행형↔과거지속형
ㄹ. 호남방언↔서남방언 |

(17)은 남북 모두 단어 유형으로 나타나는 예들로, 모두 76개가 나타난다. (18)은 남측의 전문용어가 구 유형으로 나타나는 예로, 31개 나타난다. (19)는 북측의 전문용어가 구 유형으로 나타나는 예로, 12개 나타난다. (20)은 남북 모두 구 유형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20개 나타난다.

남북 문법 분야 전문용어 AB형의 무승부 판정에서도 단어 유형이 구 유형보다 많이 나타난다. 남북 모두 간결한 전문용어를 선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남측의 전문용어가 구 유형으로 나타나는 수가 그다음으로 높게 나타난다. 북측의 전문용어보다 남측의 전문용어가 보다 자세하게 개념을 설명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1.3.2 문학 분야

남북 문학 분야 전문용어의 AB형은 모두 165개이다. 남북 문학 분야 전문용어 AB형의 남측 판정 용어는 60개, 북측 판정 용어는 66개, 무승부 판정 용어는 39개이다. 이들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남측 판정

남북 문학 분야 전문용어 AB형의 남측 판정 용어는 모두 60개이다. 그중 구 유형은 37개, 단어 유형은 23개이다. 이들 예시는 다음과 같다.

- | | |
|----------------|----------|
| (21) 가. 김수로왕신화 | 나. 관능적문학 |
| 다. 부차적줄거리 | 르. 서정적자아 |
| (22) 가. 대하소설 | 나. 반복법 |
| 다. 서간체 | 르. 플롯 |

2) 북측 판정

남북 문학 분야 전문용어 AB형의 북측 판정 용어는 모두 66개이다. 근소한 차이지만 남측 판정 용어보다 북측 판정 용어의 수가 더 많다. 구 유형은 20개, 단어 유형은 46개 나타난다.

- | | |
|-----------------|-------------|
| (23) 가. 의인전기체소설 | 나. 경기체가요 |
| 다. 구비문학 | 르. 사회주의문학예술 |
| (24) 가. 부녀가사 | 나. 동인지 |
| 다. 독백 | 르. 긍정인물 |

3) 무승부 판정

남북 문학 분야 전문용어 AB형의 무승부 판정 용어는 모두 39개이다. 남측과 북측의 전문용어 판정 빈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25) 가. 금체시↔근체시 | 나. 다리운↔꼬리운 |
| 다. 대조법↔대비법 | 르. 층시↔계단시 |

- | | |
|-------------------|--------------|
| (26) ㄱ. 감정형성↔감정조직 | ㄴ. 문단권력↔문단주의 |
| ㄷ. 서간체소설↔편지체소설 | ㄹ. 영화각본↔영화문학 |
| (27) ㄱ. 나열↔벌립법 | ㄴ. 대화체↔대화글 |
| ㄷ. 설명문↔설명글 | ㄹ. 자연시↔풍경시 |
| (28) ㄱ. 건국신화↔건국설화 | ㄴ. 농민문예↔농민문학 |
| ㄷ. 민중의정서↔민족적정서 | ㄹ. 표현기법↔표현수법 |

(25)는 남북 문학 분야 전문용어 AB형의 무승부 판정에서 남북 모두 단어 유형이 나타난 예들로 10개 나타난다. (26)은 남측 용어에서 구 유형으로 나타나는 예로 15개 나타난다.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다. (27)은 북측 용어에서 구 유형이 나타나는 예로 5개 나타난다. (28)은 남북 모두 구 유형으로 나타나는 예시로 9개 나타난다.

남북 문학 분야 전문용어 AB형의 무승부 판정에서 남측 전문용어에서 구 유형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측 판정에서도 단어 유형보다 구 유형이 많이 나타났고, 무승부 판정에서도 남측에서 구 유형으로 나타나는 수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1.3.3 기능교육 분야

남북 기능교육 분야 전문용어의 AB형은 모두 35개이다. 그중 남측 판정 용어는 12개, 북측 판정 용어는 14개, 무승부 판정 용어는 9개이다. 이들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남측 판정

남북 기능교육 분야 전문용어 AB형의 남측 판정 용어는 모두 12개이다. 그중 구 유형은 3개, 단어 유형은 9개이다. 이들 예시는 다음과 같다.

- | | |
|--------------|---------|
| (29) ㄱ. 삼단추리 | ㄴ. 직접수집 |
| ㄷ. 핵심내용 | |
| (30) ㄱ. 귀납 | ㄴ. 글쓰기 |
| ㄷ. 쉽표 | ㄹ. 아랫주 |

2) 북측 판정

남북 기능교육 분야 전문용어 AB형의 북측 판정 용어는 모두 14개이다. 구 유형이 4개, 단어 유형이 10개 나타난다. 이들 예시는 다음과 같다.

- | | |
|--------------|---------|
| (31) ㄱ. 서술순서 | ㄴ. 추려읽기 |
| ㄷ. 연역추리 | ㄹ. 류비추리 |
| (32) ㄱ. 도식 | ㄴ. 머리글 |
| ㄷ. 근거 | ㄹ. 반점 |

3) 무승부 판정

남북 기능교육 분야 전문용어 AB형의 무승부 판정 용어는 모두 9개이다. 남측과 북측의 전문용어의 판정 빈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33) ㄱ. 본론↔기본글 | ㄴ. 연결어↔이음말 |
| (34) ㄱ. 감상문↔느낌글 | ㄴ. 구성단위↔구성부분 |
| ㄷ. 구성단위↔구성요소 | ㄹ. 맺음말↔맺는글 |
| (35) ㄱ. 내용조직↔내용체계 | ㄴ. 말하기목적↔이야기목적 |
| ㄷ. 중심내용↔기본내용 | |

(33)은 남북 모두 단어 유형의 형태로 나타나는 판정 용어로, 2개 나타난다. (34)는 북측의 판정 용어가 구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4개 나타난다. (35)는 남측과 북측 모두에서 구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3개 나타난다. 남북 기능교육 분야 전문용어 AB형의 무승부 판정에서 남측에서는 구 유형이 나타나지 않았다.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의 유형 통계는 다음과 같다.

<표 6>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의 유형별 빈도

	AA유형 개수 (백분율)	Aa유형 개수 (백분율)	AB유형 개수 (백분율)	계
문법	530 (45.6%)	31 (2.7%)	601 (51.7%)	1,162 (100%)
문학	496 (68.3%)	65 (9.0%)	165 (22.7%)	726 (100%)
기능교육 (일반)	253 (81.1%)	24 (7.7%)	35 (11.2%)	312 (100%)
총합	1,279	120	801	2,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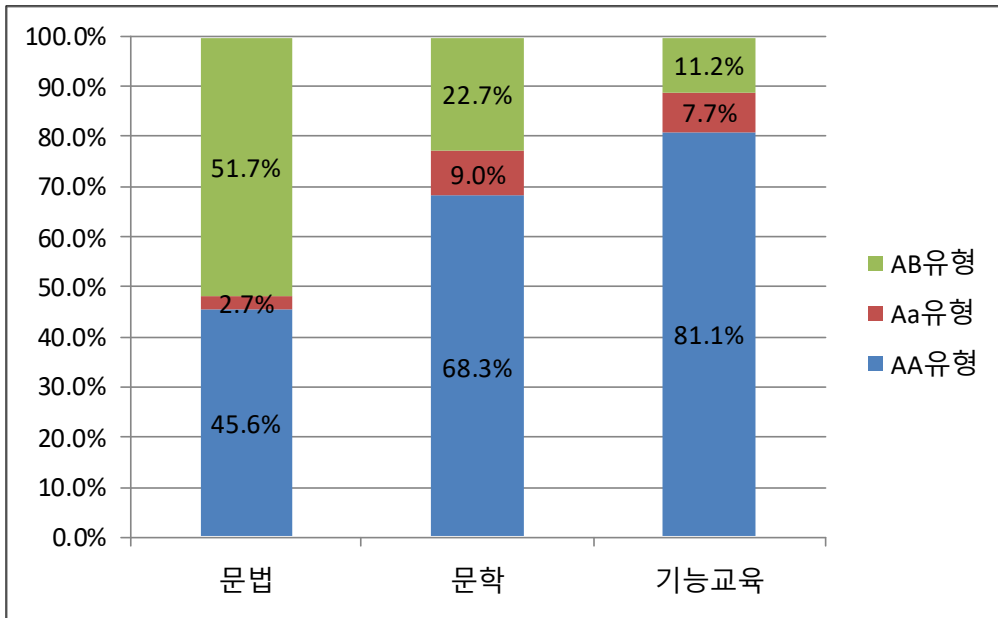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에서 AA형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그다음으로 AB형, Aa형 순이다. 즉, 남북이 동일하게 사용하는 국어 교과 전문용어가 그렇지 않은 것보다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어 교과가 외래에서 유입된 학문이 아닌 자생학이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문법 분야는 AB형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그다음으로 AA형과 Aa형 순이다. 문법 분야는 대응어 확인 과정에서 남과 북의 개념 차이와 범주 차이를 보인 바 있다. 향후 통합안 마련 과정에서 남북의 합의를 도출하여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학 분야는 AA형이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그다음으로 AB형, Aa형 순이다. 남과 북이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남북 문학 용어에는 남북의 이데올로기가 개입된 전문용어가 상당수 존재하였다. 이들에 대해 어떤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능교육 분야 역시 AA형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AB형, Aa형 순이었다. 기능교육 분야 역시 남북의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의 분야별 유형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7]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의 분야별 빈도

2.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의 어종 분석

이 장에서는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를 문법, 문학, 기능교육 분야로 나누어 그 어종을 분석하고자 한다. 문법 전문용어는 1,162개, 문학은 726개, 기능교육은 312개이다. 이 용어들을 다시 형태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AA형, Aa형 그리고 AB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하겠다. AA형은 남북의 전문용어가 형태적으로 일치하는 것, Aa형은 남북 간 서로 다른 어문 규정으로 인해 표기의 차이만 가지는 것, AB형은 남측과 북측의 전문용어가 형태적으로 다른 것이다.

2.1 문법 분야

문법 전문용어 1,162개 중 형태가 같은 AA형과 Aa형은 각각 530개와 31개이고 형태가 다른 AB형은 601개이다. Aa형은 남북 문법 용어에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남북의 서로 다른 어문 규정으로 인해 표기의 차이를 갖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형태가 같은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Aa형을 포함한 형태가 같은 것은 561개로 전체의 48.3%를 차지하고 형태가 다른 것은 601개로 전체

의 51.7%이다. 이처럼 문법 전문용어에서는 형태가 같은 것과 다른 것의 비율이 서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2.1.1 형태가 같은 것(AA형)

문법 전문용어 1,162개 중에 남측과 북측에서 모두 같은 형태로 쓰이는 AA형은 530개이다.¹²⁾ 이는 전체의 약 45.6%에 해당한다. AA형에는 모두 8개의 유형이 있다. 먼저 ‘거센소리’, ‘음운’, ‘코퍼스’와 같이 같은 어종으로만 구성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세 가지이다.¹³⁾ 또한 ‘메타언어’, ‘입천장소리’와 같이 둘 이상의 어종이 결합된 혼종어가 있다. AA형에서는 ‘고유어+한자어’, ‘한자어+고유어’, ‘외래어+한자어’, ‘고유어+한자어+고유어’, ‘한자어+고유어+한자어’의 다섯 가지 유형의 혼종어가 발견된다.¹⁴⁾

<표 7> AA형 어종 유형별 빈도

	어종 유형	빈도(개)	예시
AA형	고유어	77	거센소리, 받침, 이음말
	한자어	413	음운, 자연언어, 토착어
	외래어	5	코퍼스, 하이픈, 텍스트
	고유어+한자어	21	꺾쇠괄호, 입말체
	한자어+고유어	6	기본뜻, 반대말
	외래어+한자어	6	메타언어, 알타이어족
	고유어+한자어+고유어	1	입천장소리
	한자어+고유어+한자어	1	언어의본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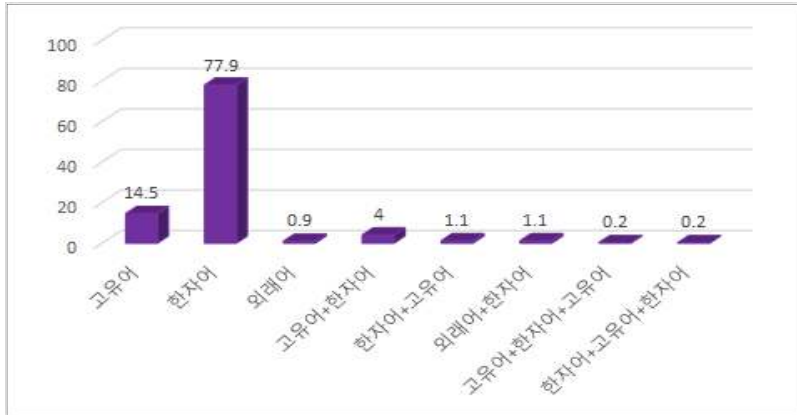
<표 7>은 AA형의 어종 유형별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AA형에서 가장 많이 쓰인 어종은 ‘한자어’이다. 한자어로만 구성된 전문용어는 모두 413개이다. 그다

12) 1162개의 목록 중 중복되는 용어가 몇몇 있다. 예를 들어 남측의 ‘감동사’는 북측의 ‘감동사’, ‘간투사’ 두 용어와 대응을 이루어 각각 AA형과 AB형으로 분류되었다. 북측의 ‘흐름소리’ 역시 남측의 ‘유음’, ‘흐름소리’와 대응을 이루어 각각 AB형, AA형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동의관계에 있는 전문용어들이 목록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어종별 빈도에는 이러한 중복된 용어를 포함되었음을 미리 밝힌다.

13) 본고에서는 형태소 단위를 기본으로 하여 어종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라고 할 때 ‘거센소리’처럼 같은 어종의 형태소가 결합된 것을 가리킬 수 있음을 밝힌다.

14) AA형과 AB형에서 ‘3인칭대명사’나 ‘<<X-러>>삽입’과 같이 숫자, 기호, 로마자를 사용한 북측 용어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남측의 발음을 기준으로 하여 ‘3인칭대명사’는 ‘한자어’로, ‘<<X-러>>삽입’은 ‘외래어+고유어+한자어’로 분류하였다.

음으로 ‘고유어’가 77개로 ‘한자어’의 뒤를 이었다. ‘고유어+한자어’가 21개, ‘한자어+고유어’가 6개, ‘외래어+한자어’가 6개, ‘외래어’가 5개이며 ‘고유어+한자어+고유어’와 ‘한자어+고유어+한자어’는 각각 1개이다.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8] AA형 어종 유형별 비율(%)

[그림 8]에서와 같이 ‘한자어’가 77.9%로 제일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고유어’가 14.5%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두 어종은 전체의 92.4%에 이른다. 특히 한자어는 모든 혼종어에 쓰일 만큼 AA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자어가 쓰인 혼종어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형태가 같은 전문용어에서 한자어가 쓰인 비율은 84.6%에 달한다. 훗날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 통합의 과정에서도 한자어가 이처럼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1.2 형태가 같은 것(Aa형)

Aa형은 남북 간 서로 다른 어문 규정으로 인해 표기 차이를 보이는 것들이다. Aa형은 31개로, 전체 문법 전문용어 중 2.7%에 해당된다. 어종에 따라 Aa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Aa형 어종 유형별 빈도

어종 유형	빈도(개)		예시	
	남	북	남	북

Aa형	고유어	5	5	잇몸소리	이몸소리
	한자어	22	21	이두	리두
	고유어+한자어	1	1	가운뎃점	가운데점
	한자어+고유어	1	1	반잇소리	반이소리
	외래어+한자어	2	2	러시아어	로씨아어
	한자어+고유어+한자어	0	1	.	반의의관계

Aa형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것은 ‘한자어’이다. 다음으로 ‘고유어’가 5개로 그 뒤를 이었으며 ‘외래어’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사항으로 북측 용어에는 ‘한자어+고유어+한자어’ 유형이 있으나 남측에는 이 유형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조사 ‘-의’의 유무로 인한 것이다. 남측에서는 ‘반의관계’와 같이 조사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북측은 ‘-의’를 사용하여 어종 유형에 차이가 나타났다. 남북의 서로 다른 어문 규범으로 차이를 보이는 것들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9> Aa형 어문 규정 차이에 따른 빈도

	어문 규정	빈도(개)	예시	
			남	북
Aa형	두음법칙	21	여성명사	녀성명사
	사이시옷	7	잇소리	이소리
	조사 ‘-의’의 유무	1	반의관계	반의의관계
	외래어표기법	1	러시아어	로씨아어
	한글맞춤법	1	띄어쓰기	띄어쓰기

<표 9>는 남과 북의 어문 규정 차이로 인해 다른 형태를 보이는 Aa형 빈도와 예시이다. 먼저 ‘여성명사 ↔ 녀성명사’와 같이 두음법칙의 적용 유무로 형태 차이가 나는 것이 21개로 가장 많다. 남측에서는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한자음에 두음법칙이 적용되지만 북측에서는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두음법칙으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모두 ‘한자어’이다. 사이시옷의 적용 유무로 차이가 나는 것은 7개이다. ‘잇몸소리 ↔ 이몸소리’ 등 ‘고유어’ 5개, ‘가운뎃점 ↔ 가운데점’의 ‘고유어+한자어’ 1개, ‘아라비아숫자 ↔ 아라비아수자’의 ‘외래어+한자어’ 1개가 사이시옷으로 인해 형태적 차이를 보인다. 다음으로 조사 ‘-의’의 유무, 외래어표기법의 차이, 맞춤법의 차이로 인한 것이 각각 1개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Aa형은 남북의 어문 규범이 통합된다면 AA형으로 흡수될 것이다.

2.1.3 형태가 다른 것(AB형)

남북에서 같은 개념을 설명하지만 서로 다른 형태를 지닌 AB형의 어종을 분석하고자 한다. AB형은 모두 601개이며 전체 전문용어의 51.7%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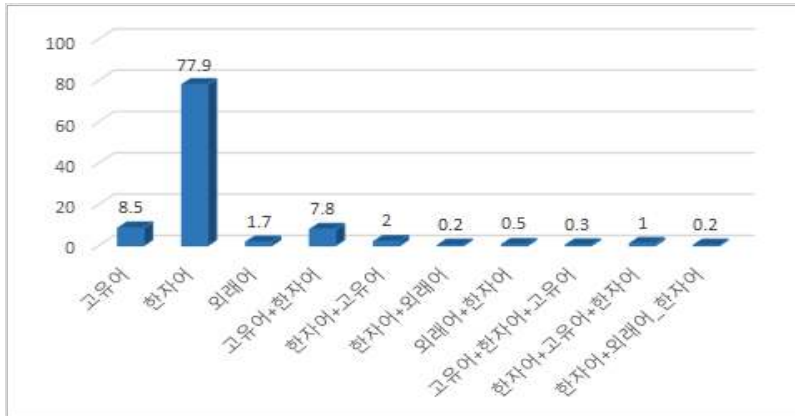
1) 남측 AB형

남측 AB형의 어종 유형별 빈도와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0> 남측 AB형 어종 유형별 빈도

	어종 유형	빈도(개)	예시
AB형	고유어	51	말토막, 어찌찌, 겁받침
	한자어	468	비속어, 의태어, 양모음
	외래어	10	스트레스, 보디랭귀지
	고유어+한자어	47	홀자음, ᄃ탈락
	한자어+고유어	12	예사소리, 반달은홀소리
	한자어+외래어	1	문장악센트
	외래어+한자어	3	로마자표기법, 로마자
	고유어+한자어+고유어	2	입천장소리되기
	한자어+고유어+한자어	6	음절끝소리규칙
	한자어+외래어+한자어	1	속라틴어

남측에서는 모두 10가지의 어종 유형이 나타난다. <표 11>에서와 같이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고유어+한자어’, ‘한자어+고유어’, ‘한자어+외래어’, ‘외래어+한자어’, ‘고유어+한자어+고유어’, ‘한자어+고유어+한자어’, ‘한자어+외래어+한자어’ 유형이 있다. 남측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것은 ‘비속어, 의태어’ 등의 ‘한자어’이다. ‘한자어’는 모두 468개로, 두 번째로 많은 어종인 ‘고유어’ 51개보다 약 9배 이상 많다. 국어 교과의 특성상 ‘외래어’는 10개밖에 되지 않았다. 혼종어에서는 ‘고유어+한자어’가 47개로 가장 많고 ‘한자어+외래어’와 ‘한자어+외래어+한자어’는 1개로 그 수가 가장 적다.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9] 남측 AB형 어종 유형별 비율(%)

[그림 9]에서 볼 수 있듯 ‘한자어’가 전체의 77.9%의 비율을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고유어’와 ‘고유어+한자어’가 각각 8.5%와 7.8%의 비율로 ‘한자어’의 뒤를 잇는다. 이 세 어종 유형은 전체의 약 94%에 해당된다. 나머지 7개의 어종은 모두 2% 이하로 그 비중이 낮다. 이를 통해 북측과 다른 형태를 가진 남측 전문용어에서는 다른 어종 유형보다 ‘한자어’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북측 AB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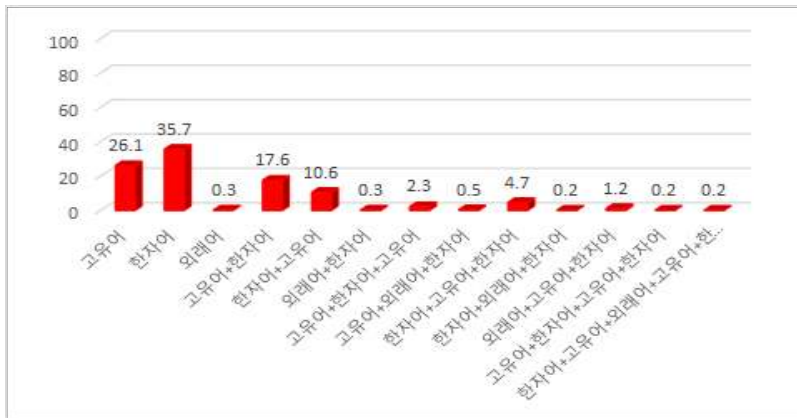
북측 AB형의 어종 유형별 빈도와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 북측 AB형 어종 유형별 빈도

	어종 유형	빈도(개)	예시
AB형	고유어	157	뿌리말, 이음토, 앞붙이
	한자어	215	공통기초어, 규정어
	외래어	2	하이픈, 코퍼스
	고유어+한자어	106	추김식, 시킴형, 셈수사
	한자어+고유어	64	기본뜻, 약한소리
	외래어+한자어	2	코퍼스어어학, 프랑스어
	고유어+한자어+고유어	14	뜻반대말, 뒤천장소리
	고유어+외래어+한자어	3	《人(仁)-X》탈락
	한자어+고유어+한자어	28	반두점, 순한자음
	한자어+외래어+한자어	1	통속라틴어
	외래어+고유어+한자어	7	《X-르》탈락, 라틴글자

고유어+한자어+고유어+한자어	1	《입음》의상토가붙은동사
한자어+고유어+외래어+고유어+한자어	1	조선어의라틴글자표기법

북측의 전문용어에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고유어+한자어’, ‘한자어+고유어’, ‘외래어+한자어’, ‘고유어+한자어+고유어’, ‘고유어+외래어+한자어’, ‘한자어+고유어+한자어’, ‘한자어+외래어+한자어’, ‘외래어+고유어+한자어’, ‘고유어+한자어+고유어+한자어’, ‘한자어+고유어+외래어+고유어+한자어’의 13가지 유형이 있다. 이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은 ‘한자어’이다. ‘한자어’에 이어 ‘고유어’가 157개, ‘고유어+한자어’가 106개의 빈도를 보인다.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인 것은 ‘통속라틴어’의 ‘한자어+외래어+한자어’ 유형, ‘《입음》의상토가붙은동사’의 ‘고유어+한자어+고유어+한자어’ 유형, ‘조선어의라틴글자표기법’의 ‘한자어+고유어+외래어+고유어+한자어’ 유형이다. 북측 전문용어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0] 북측 AB형 어종 유형별 비율(%)

[그림 10]에서와 같이 ‘한자어’가 3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고유어’가 26.1%, ‘고유어+한자어’가 17.6%, ‘한자어+고유어’가 10.6%, ‘한자어+고유어+한자어’가 4.7%, ‘고유어+한자어+고유어’가 2.3%의 비율을 나타낸다. 나머지 어종들은 모두 2% 이하로 그 비율이 낮다. 북측 AB형 전문용어에서도 ‘한자어’의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나 ‘고유어’와의 차이가 크지 않다. 또한 ‘고유어+한자어’와 ‘한자어+고유어’의 혼종 유형도 1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를 통해 북측에서는 한자어뿐 아니라 고유어도 전문용어 형성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3) 남북 AB형 대응 유형

남측 AB형을 기준으로 북측 AB형의 대응 유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2> AB형 남측 기준 북측 대응 유형

남 어종	북		예시(남/북)
	대응 유형	빈도(개)	
고유어	고유어	19	말토막 ↔ 소리토막
	한자어	20	이어적기 ↔ 하철
	외래어	1	말뭉치 ↔ 코퍼스
	고유어+한자어	7	입술소리 ↔ 입술자음
	한자어+고유어	3	이어적기하다 ↔ 하철하다
	고유어+한자어+고유어	1	소리를흉내내는말 ↔ 소리본딤말
한자어	고유어	118	순치음 ↔ 입술이소리
	한자어	176	집합어 ↔ 포함어
	고유어+한자어	80	명령형 ↔ 시킴형
	한자어+고유어	57	활음첨가 ↔ 반모음끼우기
	외래어+한자어	1	불어 ↔ 프랑스어
	고유어+한자어+고유어	11	반의어 ↔ 뜻반대말
	한자어+고유어+한자어	24	합성법 ↔ 합침법
	고유어+한자어+고유어+한자어	1	피동사 ↔ 《입음》의상도가붙은동사
외래어	고유어	2	악센트 ↔ 소리마루
	한자어	4	시니피양 ↔ 형식
	고유어+한자어	3	콜론 ↔ 두점
	고유어+한자어+고유어	1	움라우트 ↔ 앞모음되기
고유어+한자어	고유어	11	ㅎ탈락 ↔ 《ㅎ》빠지기
	한자어	9	홀자음 ↔ 단자음
	외래어	1	불임표 ↔ 하이픈
	고유어+한자어	15	줄표 ↔ 줄임표
	한자어+고유어	1	사잇소리현상 ↔ 자음끼우기
	외래어+한자어	1	말뭉치언어학 ↔ 코퍼스언어학

	고유어+한자어+고유어	1	이모음역행동화 ↔ 앞모음되기
	고유어+외래어+한자어	3	시옷불규칙활용 ↔ 《ㄱ(ㄷ)-X》탈락
	외래어+고유어+한자어	5	리변칙활용 ↔ 《X-리》삽입
한자어+고유어	고유어	5	쌍지읒 ↔ 된지읒
	한자어	3	반홀소리 ↔ 반모음
	한자어+고유어	2	연철하다 ↔ 하철하다
	한자어+고유어+한자어	2	반높은홀소리 ↔ 반높은모음
한자어+외래어	한자어+고유어	1	문장악센트 ↔ 문장소리마루
외래어+한자어	외래어+고유어+한자어	2	로마자 ↔ 라틴글자
	한자어+고유어+외래어+고유어+한자어	1	로마자표기법 ↔ 조선어의라틴글자표기법
고유어+한자어+고유어	고유어	1	입천장소리되기 ↔ 《지,치》로되기
	한자어	1	센입천장소리 ↔ 경구개음
한자어+고유어+한자어	고유어	1	장애음의비음동화 ↔ 교안소리되기
	한자어	2	대등적으로이어진문장 ↔ 병렬복합문
	고유어+한자어	1	음절의끝소리규칙 ↔ 끝소리법칙
	한자어+고유어+한자어	2	반말체 ↔ 반말형
한자어+외래어+한자어	한자어+외래어+한자어	1	속라틴어 ↔ 통속라틴어

<표 12>를 보면 남측의 10가지 어종 유형에 북측 13가지 유형이 대응하여 모두 41개의 대응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측 ‘고유어’에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고유어+한자어’, ‘한자어+고유어’, ‘고유어+한자어+고유어’의 6가지의 대응 유형이, ‘한자어’에는 ‘고유어’, ‘한자어’, ‘고유어+한자어’, ‘한자어+고유어’, ‘외래어+한자어’, ‘고유어+한자어+고유어’, ‘한자어+고유어+한자어’, ‘고유어+한자어+고유어+한자어’의 8가지 대응 유형이, ‘외래어’에는 ‘고유어’, ‘한자어’, ‘고유어+한자어’, ‘고유어+한자어+고유어’의 4가지 대응 유형이 있다. 또한 ‘고유어+한자어’에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고유어+한자어’, ‘한자어+고유어’, ‘외래어+한자어’, ‘고유어+한자어+고유어’, ‘고유어+외래어+한자어’, ‘외래어+고유어+한자어’의 9가지 유형이, ‘한자어+고유어’에는 ‘고유어’, ‘한자어’, ‘한자어+고유어’, ‘한자어+고유어+

한자어'의 4가지 유형이, '한자어+외래어'에는 '한자어+고유어'의 유형이, '외래어+한자어'에는 '외래어+고유어+한자어', '한자어+고유어+외래어+고유어+한자어'의 2가지 유형이, '고유어+한자어+고유어'에는 '고유어', '한자어'의 2가지 유형이, '한자어+고유어+한자어'에는 '고유어', '한자어', '고유어+한자어', '한자어+고유어+한자어'의 4가지 유형이 있으며 '한자어+외래어+한자어'에는 '한자어+외래어+한자어'가 대응을 이룬다.

이 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은 남측 '한자어'에 대응하는 북측 '한자어'로 그 수는 176개이다. 이는 AB형 601개 중에 28.5%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남측 '한자어'에 대응하는 북측의 '고유어' 118개, 남측 '한자어'에 대응하는 북측 '고유어+한자어' 80개, 남측 '한자어'에 대응하는 북측 '한자어+고유어' 57개 순이다. 남측에서 '한자어'의 사용 빈도가 높은 만큼 남측의 '한자어'에 대응하는 것들이 높은 빈도를 나타낸다.

남측의 '한자어' 468개만을 대상으로 보면 이에 대응하는 북측의 어종 유형은 '한자어'가 37.6%, '고유어'가 25.2%, '고유어+한자어'가 17.1%, '한자어+고유어'가 12.2%이다. 북측에서는 남측에서 '한자어'로 사용하는 것들을 '집합어/포합어'와 같이 다른 '한자어'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순치음 ↔ 입술이소리'와 같이 고유어로 순화하거나 '명령형 ↔ 시킴형'과 '활음첨가 ↔ 반모음끼우기'와 같이 한자어와 고유어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2 문학 분야

남북 문학 전문용어는 모두 726개이다. 이 중 형태가 같은 AA형은 496개, 어문 규정의 차이에 따른 Aa형은 65개, 형태가 다른 AB형은 165개이다. Aa형을 포함한 형태가 같은 것은 561개로 전체의 77.3%에 이른다. 반면 형태가 다른 것은 22.7%에 불과하다. 남북 간 언어 이질성 증대가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문학 분야에서 이처럼 동일한 형태의 전문용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결과라 할 수 있다.

2.2.1 형태가 같은 것(AA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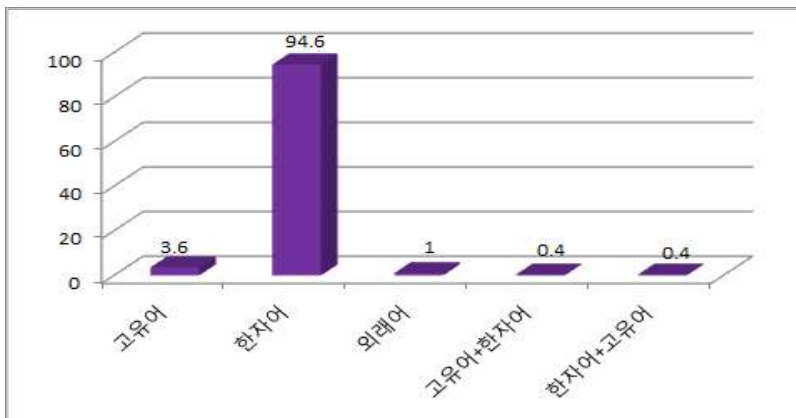
AA형은 문학 전문용어에서 남북 모두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는 유형을 말한다. AA형은 총 496개로 전체 문학 전문용어의 68.3%에 이른다. AA형에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고유어+한자어', '한자어+고유어'의 5가지 어종 유형이 있

다. AA형의 어종 유형별 빈도는 아래와 같다.

<표 13> AA형 어종 유형별 빈도

	어종 유형	빈도(개)	예시
AA형	고유어	18	글감, 줄거리
	한자어	469	극적갈등, 만연체
	외래어	5	모더니즘, 카프
	고유어+한자어	2	머리운, 진양조
	한자어+고유어	2	대화글, 의식의흐름

<표 13>에서 볼 수 있듯이 남북 문학 전문용어 AA형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은 ‘한자어’이다. 한자어로만 구성된 전문용어는 모두 469개이다. 그다음으로는 ‘글감, 줄거리’ 등의 ‘고유어’가 18개, ‘모더니즘, 카프’ 등의 ‘외래어’가 5개로 ‘한자어’의 뒤를 이었다. ‘고유어+한자어’와 ‘한자어+고유어’는 각각 2개로 그 수가 가장 적다.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1] AA형 어종 유형별 비율(%)

[그림 11]에서와 같이 남북 문학 전문용어 AA형에서는 ‘한자어’가 94.6%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고유어’ 3.6%, ‘외래어’ 1%, ‘고유어+한자어’ 0.4%, ‘한자어+고유어’ 0.4%이었다. 분야는 다르지만 이러한 결과는 앞선 남북 전문용어 연구에서 나타난 것과 동일하다. 남북은 분단의 시간만큼 언어의 이질화라는 숙명적인 과제를 안고 있으나, 남북 모두 ‘한자어’의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이러한 이질성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즉,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AB형 통합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한자어’는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어종임을 확인할 수 있다.

2.2.2 형태가 같은 것(Aa형)

Aa형은 65개로 남북 문학 전문용어의 9%를 차지한다. Aa형에 나타나는 어종 유형은 ‘한자어’, ‘외래어’, ‘고유어+한자어’, ‘외래어+한자어’, ‘한자어+고유어+한자어’ 등 총 5가지이다. Aa형은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등 어문 규정의 차이로 인해 남북에서 표기상의 차이를 보이는 유형을 말한다. 남북 문학 전문용어 Aa형의 유형과 빈도는 다음과 같다.

<표 14> Aa형 어종 유형별 빈도

	어종 유형	빈도(개)		예시	
		남	북	남	북
Aa형	한자어	52	51	산문을	산문을
	외래어	6	6	몽타주	몽따쥬
	고유어+한자어	3	3	되풀이법	되풀이법
	외래어+한자어	4	4	이습우화	이소프우화
	한자어+고유어+한자어	-	1	-	언어의예술

남북 문학 전문용어 Aa형의 어종 유형과 빈도를 살펴보면, 남북 모두 ‘한자어’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형태가 동일한 AA형과 같은 결과이다. 다음으로 ‘외래어’가 6개, ‘외래어+한자어’가 4개로 ‘한자어’의 뒤를 잇고 있는데 외래어의 사용이 비교적 많다는 것도 Aa형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고유어+한자어’는 3개이며 ‘한자어+고유어+한자어’는 북측에서만 사용되는 어종 유형이었다. 한편 ‘고유어’ 유형은 한 개도 출현하지 않았다.

이러한 Aa형은 남북 간 어문 규정에 따라 두음법칙의 적용 유무, 한글 맞춤법 차이, 사이시옷의 적용 유무, 외래어 표기법의 차이, 조사 ‘-의’의 유무 등 총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문 규정별 빈도와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 15> Aa형 어문 규정 차이에 따른 빈도

	어문 규정	빈도(개)	예시	
			남	북
Aa형	두음법칙	51	낭만주의	랑만주의
	사이시옷	1	되풀잇법	되풀이법
	조사 ‘-의’의 유무	1	언어예술	언어의예술
	외래어표기법	10	파리코뮌문 학	빠리꿈문문 학
	한글맞춤법	2	끝구	끝귀

<표 15>에서와 같이 ‘낭만주의 ↔ 랑만주의’와 같이 두음법칙의 적용 유무로 형태 차이를 보이는 것이 51개로 가장 많다. 두음법칙으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모두 ‘한자어’이다. 다음으로 남북의 서로 다른 외래어표기법으로 인한 것이 10개였다. ‘몽타주 ↔ 몽따쥬’와 같은 ‘외래어’ 유형이 6개, ‘파리코뮌문학 ↔ 빠리꿈문문학’의 ‘외래어+한자어’ 유형이 4개이다. ‘끝구 ↔ 끝귀’와 ‘변려문 ↔ 병려문’은 남북에서 서로 다른 한자음을 사용하는 데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들이다. ‘끝구(끝-句)’는 ‘시조의 끝 장(章)의 마지막 구절’을 뜻하는 문학 용어로 남측에서는 ‘句’라는 한자어를 ‘글귀 구’라고 읽으나 북측에서는 같은 한자를 ‘글귀 귀’라고 읽는 데에서 차이를 갖게 된다. 이러한 것은 남북의 한글맞춤법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사이시옷의 적용과 조사 ‘-의’의 사용 유무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각각 1개였다. 이러한 Aa형은 통일 이후 동일한 어문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면 AA형으로 통합될 수 있다.

2.2.3 형태가 다른 것(AB형)

AB형은 남북 문학 전문용어에서 서로 다른 형태를 보이는 것들이다. AB형은 모두 165개로 전체 문학 전문용어의 22.7%에 해당된다.

1) 남측 AB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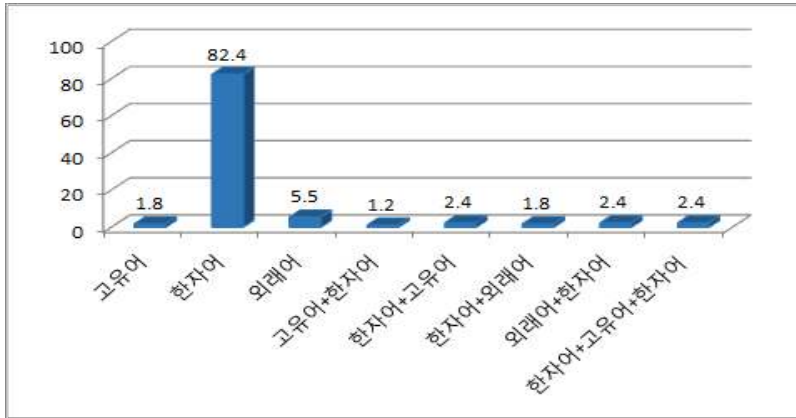
남측 AB형의 어종 유형별 빈도와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6> 남측 AB형 어종 유형별 빈도

	어종 유형	빈도(개)	예시
AB형	고유어	3	글쓴이, 꼭두각시놀이
	한자어	136	서정적자아, 층시
	외래어	9	시나리오, 플롯
	고유어+한자어	2	글의구조, 다리운
	한자어+고유어	4	부차적줄거리, 서사갈래
	한자어+외래어	3	다중플롯, 사회주의리얼리즘
	외래어+한자어	4	그로테스크작품, 프로문학
	한자어+고유어+한자어	4	민중의정서, 고대시대의문학

남측에서는 모두 8가지 어종 유형이 나타난다.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단일 어종 유형은 물론 혼종어에서도 ‘고유어+한자어’, ‘한자어+고유어’, ‘한자어+외래어’, ‘외래어+한자어’, ‘한자어+고유어+한자어’의 복합적 형태가 있다.

남측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은 ‘서정적자아, 서시’ 등의 ‘한자어’이다. 다음으로 ‘시나리오, 플롯’ 등 ‘외래어’가 9개로 많다. 특히 외래어는 한자어와 결합하여 ‘다중플롯, 사회주의리얼리즘’과 같은 ‘한자어+외래어’ 유형과 ‘그로테스크작품, 프로문학’ 등의 ‘외래어+한자어’ 유형에도 쓰일 만큼 남측 AB형에서 사용 빈도가 높다. 이것은 문학 용어가 유입될 때 영어를 비롯한 외래어 사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용어를 순화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인 것은 ‘고유어+한자어’ 유형이며 ‘고유어’는 3개로 두 번째로 낮은 빈도를 나타냈다.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12] 남측 AB형 어종 유형별 비율(%)

[그림 12]에서 볼 수 있듯 ‘한자어’가 82.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외래어’가 5.5%, ‘한자어+고유어’, ‘외래어+한자어’, ‘한자어+고유어+한자어’가 2.4%, ‘고유어’와 ‘한자어+외래어’가 1.8%, ‘고유어+한자어’가 1.2%이다. ‘한자어’와 ‘외래어’를 제외하면 나머지 어종 유형은 모두 3% 이하로 그 비중이 낮다. 이를 통해 북측과 다른 형태를 가진 남측 전문용어에서는 ‘한자어’의 사용이 많으며 ‘외래어’도 상대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북측 AB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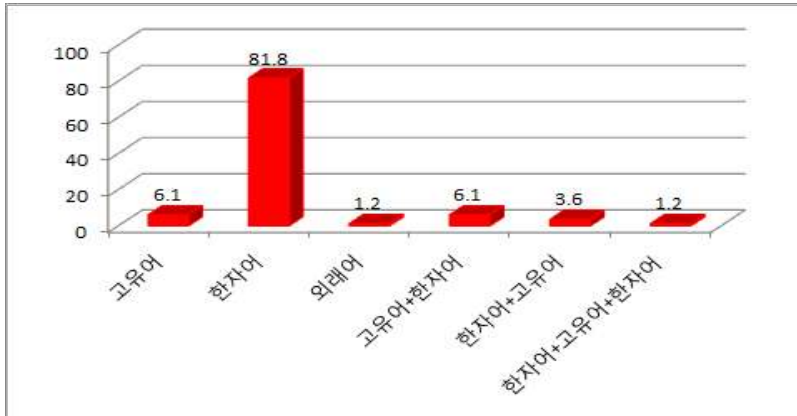
북측 AB형의 어종 유형별 빈도와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 17> 북측 AB형 어종 유형별 빈도

	어종 유형	빈도(개)	예시
AB형	고유어	10	마감, 머리아기
	한자어	135	기형화, 사건조직
	외래어	2	뽀에지야, 모더니즘
	고유어+한자어	10	벌립법, 머리운
	한자어+고유어	6	생활바탕, 전설적이야기
	한자어+고유어+한자어	2	수로의출생담, 내적인고민

북측 AB형에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고유어+한자어’, ‘한자어+고유어’, ‘한자어+고유어+한자어’의 6가지 유형이 있다. 이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

은 남측 AB형과 같이 ‘한자어’이다. ‘한자어’에 이어 ‘고유어’와 ‘고유어+한자어’가 10개로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반면 ‘뽀에지야, 모더니즘’의 ‘외래어’ 유형과 ‘수로의출생담, 내적인고민’의 ‘한자어+고유어+한자어’는 2개로 출현 빈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북측 전문용어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3] 북측 AB형 어종 유형별 비율(%)

위의 그림과 같이 북측 AB형의 어종 유형은 ‘한자어’ 81.8%, ‘고유어’와 ‘고유어+한자어’ 6.1%, ‘한자어+고유어’ 3.6%, ‘외래어’와 ‘한자어+고유어+한자어’ 1.2%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측 AB형에서와 마찬가지로 북측에서도 ‘한자어’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반면에 ‘외래어’는 1.2%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다. 남측 AB형에서 ‘외래어’나 외래어와의 혼종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10%였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외래어는 북측에서 여전히 친숙하지 않은 용어라고 판단할 수 있다.

3) 남북 AB형 대응 유형

남측 AB형을 기준으로 이에 대응하는 북측 AB형의 어종 유형과 빈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8> AB형 남측 기준 북측 대응 유형

남 어종	북		예시(남/북)
	대응 유형	빈도(개)	
고유어	고유어	3	꼭두각시놀이 ↔ 꼭두각시놀음
한자어	고유어	6	원관념 ↔ 비겨지는말
	한자어	112	패관문학 ↔ 패설문학
	외래어	2	시문학 ↔ 뽀에지야
	고유어+한자어	8	반복법 ↔ 되풀이법
	한자어+고유어	6	생활소재 ↔ 생활바탕
	한자어+고유어+한자어	2	김수로왕신화 ↔ 수로의출생담
외래어	고유어	1	에필로그 ↔ 뒤이야기
	한자어	8	시나리오 ↔ 영화문학
고유어+한자어	고유어+한자어	2	다리운 ↔ 꼬리운
한자어+고유어	한자어	4	서정갈래 ↔ 서정적종류
한자어+외래어	한자어	3	사회주의리얼리즘 ↔ 사회주의적사실주의
외래어+한자어	한자어	4	러시아12월당원문학 ↔ 십이월파문학
한자어+고유어+한자어	한자어	4	조선시대의문학 ↔ 조선문학

남측 8가지 어종 유형에 북측의 6가지 어종 유형이 대응을 이루어 모두 14개의 대응 쌍을 이루고 있다. 남측의 ‘고유어’와 ‘고유어+한자어’에는 북측에서도 같은 어종 유형이 ‘고유어’와 ‘고유어+한자어’가 일대일 대응을 이루고 있다. 남측의 ‘한자어+고유어’, ‘한자어+외래어’, ‘외래어+한자어’, ‘한자어+고유어+한자어’에는 북측의 ‘한자어’가 대응을 이루고 있다. 남측의 ‘한자어’에는 북측의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고유어+한자어’, ‘한자어+고유어’, ‘한자어+고유어+한자어’의 6가지 대응 유형이, ‘외래어’에는 ‘고유어’와 ‘한자어’의 2가지 대응 유형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은 남측 ‘한자어’에 대응하는 북측 ‘한자어’로 그 수는 112개이다. 이는 AB형 전체의 67.6%에 해당된다. 이들은 남북에서 같은 개념을 설명하고 있지만 ‘패관문학 ↔ 패설문학’처럼 서로 다른 한자를 사용하여 형태적 차이를 갖게 되었다. 그다음으로 남측의 ‘한자어’에 대응하는 북측의 ‘고유어+한자어’와 남측의 ‘외래어’에 대응하는 북측의 ‘한자어’가 각각 8개로 두 번째로 높은 대응 빈도를 보였다. 특히 ‘시나리오 ↔ 영화문학’처럼 남측의 ‘외래어’는 북측에서 주로 ‘한자어’로 쓰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북측의 ‘외래어’인 ‘뽀에지야’가 남측에서 ‘한자어’인 ‘시문학’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생각해 볼 때 이는 남북 언어 통합의 과정에서 외래어로 인한 남북 언어의 차이는 한자어로 그 통합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2.3 기능교육 분야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 중 기능교육 전문용어는 모두 312개이다. 남북에서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AA형과 Aa형은 각각 253개, 24개이며 남북이 서로 다른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AB형은 35개이다. 기능교육 전문용어에서 형태가 같은 것은 전체의 88.8%로 형태가 다른 것 11.2%보다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문학 전문용어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능교육 전문용어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전문용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 간에 이질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2.3.1 형태가 같은 것(AA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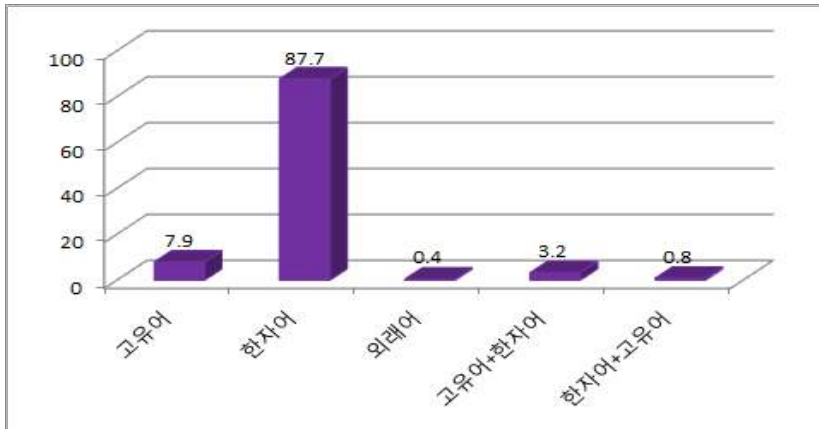
기능교육 전문용어 312개 중 형태가 완전히 일치하는 AA형은 253개이다. AA형은 기능교육 전문용어 중 81.1%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AA형에는 모두 5개의 어종 유형이 나타난다.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단일 유형과 ‘고유어+한자어’와 ‘한자어+고유어’의 2가지 혼종 유형이 있다. 어종 유형별 빈도와 그 예를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9> AA형 어종 유형별 빈도

	어종 유형	빈도(개)	예시
AA형	고유어	20	말하기, 머리글
	한자어	222	발론, 타협
	외래어	1	리드
	고유어+한자어	8	글말체, 입말투
	한자어+고유어	2	설명글, 본보기글

AA형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은 ‘한자어’이다. ‘발론, 타협’ 등의 ‘한자어’는 남과 북에서 동일한 의미와 형태로 사용되는 기능교육 전문용어이다. 다음으로 ‘말하기, 머리글’ 등의 ‘고유어’가 20개로 빈도가 높았으며 ‘고유어+한자어’ 유형이 8개로 그 뒤를 이었다. ‘한자어+고유어’와 ‘외래어’는 그 수가 각각 2개와

1개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14] AA형 어종 유형별 비율(%)

[그림 14]에서 볼 수 있듯이 AA형 기능교육 전문용어의 어종 유형별 비율은 ‘한자어’ 87.7%, ‘고유어’ 7.9%, ‘고유어+한자어’ 3.2%, ‘한자어+고유어’ 0.8%, ‘외래어’ 0.4%로 나타났다. AA형 기능교육 전문용어에서도 ‘한자어’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외래어’의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AA형 문법과 문학 전문용어에서도 ‘한자어’의 비중이 높았는데, 이는 남북 전문용어 통합의 과정에서 ‘한자어’가 핵심 어종으로 사용될 것임을 거듭 보여준다. 남북에서 같은 형태를 보이는 국어 교과 전문용어의 상당수가 ‘한자어’이므로 전문용어 통합 과정에서 남북 간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 ‘한자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3.2 형태가 같은 것(Aa형)

Aa형은 남북의 서로 다른 어문 규정으로 표기 차이를 갖는 것들이다. Aa형 기능교육 전문용어는 모두 24개로 전체의 7.7%에 해당한다. Aa형에 나타나는 어종 유형은 ‘한자어’와 ‘한자어+고유어+한자어’ 단 2가지이다. Aa형의 어종 유형별 빈도와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 20> Aa형 어종 유형별 빈도

	유형	빈도(개)		예시	
		남	북	남	북
Aa형	한자어	24	23	논박	론박
	한자어+고유어+한자어	-	1		신문의기사

위의 표를 보면 남측 용어 24개는 모두 ‘한자어’이지만 북측은 ‘한자어’와 ‘한자어+고유어+한자어’의 2가지 유형이 있다. 이는 조사 ‘-의’의 유무로 인해 어종 유형의 차이를 갖게 된 것이다. 북측에서는 조사 ‘-의’를 사용하여 ‘한자어+고유어+한자어’ 유형인 ‘신문의기사’로 전문용어를 나타내지만 남측에서는 ‘한자어’인 ‘신문기사’라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Aa형은 통합 과정에서 조사 ‘-의’가 없는 측의 전문용어가 선택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 ‘-의’로 인해 두 전문용어의 의미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언어의 경제성 측면에서 조사 ‘-의’가 없는 전문용어를 선택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조사 ‘-의’의 유무와 같이 남북 간 어문 규정 차이를 보이는 것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21> Aa형 어문 규정 차이에 따른 빈도

	어문 규정	빈도(개)	예시	
			남	북
Aa형	두음법칙	23	논리성	론리성
	조사 ‘-의’의 유무	1	신문기사	신문의기사

Aa형 기능교육 전문용어에서는 앞서 기술한 조사 ‘-의’의 유무로 인한 것이 1개, 두음법칙으로 인한 것이 23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문용어에서 ‘한자어’의 사용이 많은 만큼 남북 간 형태 차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어문 규정은 두음법칙이다. 남측에서는 두음법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북측은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남북 간 어문 규정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유형은 모두 AA형으로 흡수될 것이다.

2.3.3 형태가 다른 것(AB형)

AB형은 남북 기능교육 전문용어에서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유형으로 총 35개이다. 이는 기능교육 전문용어 전체의 11.2%로 문법이나 문학 전문용어에 비

해 그 비율이 낮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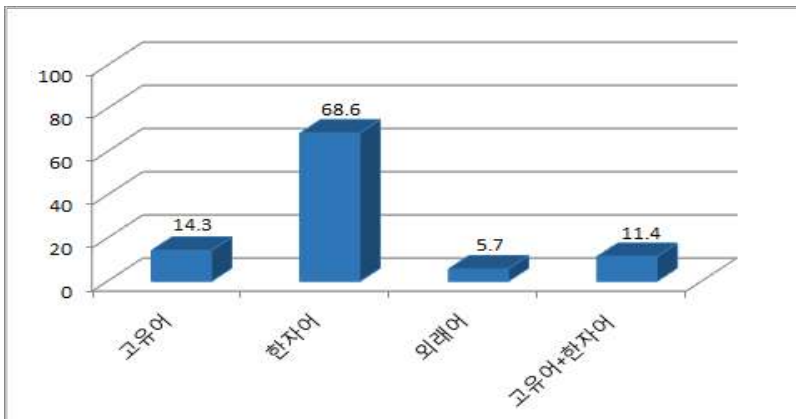
1) 남측 AB형

남측 AB형의 어종 유형별 빈도와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2> 남측 AB형 어종 유형별 빈도

	어종 유형	빈도(개)	예시
AB형	고유어	5	글쓰기, 맺음말
	한자어	24	귀납, 중심내용
	외래어	2	콤마, 마인드맵
	고유어+한자어	4	쉽표, 아랫주

남측에서는 모두 4가지 어종 유형이 나타난다. <표22>에서와 같이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고유어+한자어’의 유형이 있다. 이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은 ‘귀납, 중심내용’ 등의 ‘한자어’이다. ‘한자어’는 모두 24개이다. 다음으로 ‘글쓰기, 맺음말’ 등의 ‘고유어’ 5개, ‘쉽표, 아랫주’ 등의 ‘고유어+한자어’ 4개, ‘콤마, 마인드맵’의 ‘외래어’ 2개 순이다.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5] 남측 AB형 어종 유형별 비율(%)

[그림 15]에서와 같이 ‘한자어’가 68.6%의 비율을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고유어’ 14.3%, ‘고유어+한자어’ 11.4%, ‘외래어’ 5.7%이다. 남측 AB형 문법과 문학 전문용어에서와 같이 기능교육 분야에서도 ‘한자어’의 비

중이 가장 높다. 그러나 기능교육 전문용어에서는 ‘고유어’나 ‘고유어+한자어’가 모두 10% 이상의 비율을 보여 두 분야에 비해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2) 복측 AB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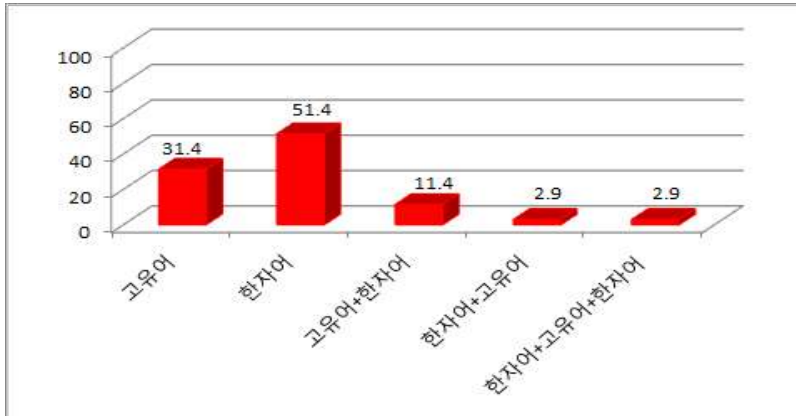
복측 AB형의 어종 유형별 빈도와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3> 복측 AB형 어종 유형별 빈도

	어종 유형	빈도(개)	예시
AB형	고유어	11	이음말, 끊기
	한자어	18	서술순서, 종자
	고유어+한자어	4	이야기목적, 말투
	한자어+고유어	1	기본글
	한자어+고유어+한자어	1	자료수집의직접적수법

복측 AB형 기능교육 전문용어에는 ‘고유어’, ‘한자어’, ‘고유어+한자어’, ‘한자어+고유어’, ‘한자어+고유어+한자어’의 5가지 어종 유형이 있다. 남측 AB형과 달리 ‘외래어’는 나타나지 않으며 ‘고유어’와 ‘한자어’, 고유어와 한자어의 혼종 유형으로만 전문용어를 형성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유형은 ‘한자어’이다. ‘서술순서, 종자’ 등의 ‘한자어’는 18개로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이는 유형인 ‘고유어’ 11개보다 약 1.5 배 많다. 뒤이어 한자어와 고유어의 혼종 유형인 ‘이야기목적, 말투’ 등의 ‘고유어+한자어’ 유형이 4개였으며, ‘한자어+고유어’ 유형인 ‘기본글’과 ‘한자어+고유어+한자어’ 유형인 ‘자료수집의직접적수법’이 각각 1개로 나타났다.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6] 복측 AB형 어종 유형별 비율(%)

[그림 16]에서 볼 수 있듯이 ‘한자어’는 51.4%로 복측 AB형 기능교육 전문용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고유어’는 31.4%로 앞서 살펴본 복측 AB형 문법과 문학 전문용어에서보다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고유어+한자어’는 11.4%로 남측 AB형과 같은 비중을 보인다. ‘한자어+고유어’와 ‘한자어+고유어+한자어’는 모두 3% 이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3) 남측 AB형 대응 유형

남측 AB형을 기준으로 이에 대응하는 복측 AB형의 어종 유형과 빈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4> AB형 남측 기준 복측 대응 유형

남 어종	복		예시(남/복)
	대응 유형	빈도(개)	
고유어	고유어	4	맺음말 ↔ 맺는글
	한자어	1	쓰기 ↔ 작문
한자어	고유어	6	음색 ↔ 소리빛갈
	한자어	13	중심내용 ↔ 기본내용
	고유어+한자어	3	구어적표현 ↔ 입말투
	한자어+고유어	1	본론 ↔ 기본글
	한자어+고유어+한자어	1	직접수집 ↔ 자료수집의직접적수법
외래어	한자어	2	마인드맵 ↔ 도식

고유어+한자어	한자어	3	셈표 ↔ 반점
	고유어+한자어	1	말하기목적 ↔ 이야기목적

<표 24>를 보면 남측의 4가지 어종 유형에 북측의 5가지 어종 유형이 대응을 이루어 모두 10개의 대응쌍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남측의 ‘고유어’에는 북측의 ‘고유어’와 ‘한자어’가 대응을 이루고, 남측의 ‘한자어’에는 ‘고유어’, ‘한자어’, ‘고유어+한자어’, ‘한자어+고유어’, ‘한자어+고유어+한자어’ 등 북측의 모든 유형이 대응을 이룬다. 남측의 ‘외래어’에는 북측의 ‘한자어’가 일대일 대응을 이루며, 남측의 ‘고유어+한자어’에는 북측의 ‘한자어’와 ‘고유어+한자어’가 대응한다.

이 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은 남측의 ‘한자어’에 대응하는 북측의 ‘한자어’이다. 남과 북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어종 유형이 ‘한자어’인 만큼 서로 대응을 이루는 경우도 많다. 다음으로 남측의 ‘한자어’에 대응하는 북측의 ‘고유어’의 빈도가 높았다. 북측에서는 ‘음색 ↔ 소리빛갈’처럼 남측의 ‘한자어’를 순화하여 ‘고유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북측 AB형은 남측 AB형보다 ‘고유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마인드맵 ↔ 도식’과 같이 남측에서 ‘외래어’로 사용하는 용어를 북측에서는 ‘한자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3.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의 조어 분석

이 연구에서는 국어 교과 전문용어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조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장에서는 조어 분석의 목적과 필요성, 조어 분석의 단위를 먼저 고찰한 후에 국어 교과 세부 분야별 조어 분석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3.1 조어 분석과 조어 단위

3.1.1 조어 분석의 목적과 필요성

‘조어 분석’이란 전문용어의 형태 분석을 의미한다. 언어학에서 ‘단어’ 단위에 대한 형태 분석은 대체로 형태소 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전문용어에서의 조어 분석은 형태소를 기본 단위로 삼아 분석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문용어를 형태 분석할 때 분석 단위를 설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절에서

는 전문용어에서 조어 분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전문용어의 분석 단위를 검토하고자 한다.

조은경(2001)에서는 전문용어의 어휘·형태적 특성을 연구하면서 전문용어 조어 분석의 목적과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1) 전문용어에 대한 언어적 정보를 축적하는 데에는 ‘전문용어는 일반 어휘와 달리 어떤 어휘·형태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특정 분야의 용어는 어떤 어휘적 자원을 생산적으로 이용하는지’, ‘어떤 분야의 용어와 인접한 분야의 용어들 간에는 어떠한 어휘·형태적 특성이 공유되고 있는지’ 등을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조은경 2001:2).
- (2) 전문용어에는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하나의 개념적 단위를 이루는 다단어 단위(multiword unit)들이 많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전문용어의 띄어쓰기, 구 구성의 전문용어, 전문용어의 형태 구조적 변화, 우리말과 외래어가 결합한 용어 등과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부각된다. 따라서 전문용어의 어휘·형태적 특성을 실증적이며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복합 용어를 이루는 요소들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조은경 2001:17-18).

위의 (1)과 (2)를 요약하면, 전문용어에 대한 언어적 정보를 축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어 분석이라는 구체적인 방법이 사용된다. 그리고 전문용어 구성 요소들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근본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전문용어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배선미·시정근(2004)에서는 기초과학 분야 한국어 핵심 용어의 조어 분석에 대한 통계적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대상 분야는 ‘물리, 화학, 생물, 의학’ 분야이며, 핵심 용어의 조어 단위 유형을 파악하고 각 조어 단위의 조어력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 (3) 본 연구는 전문용어 추출, 전문용어 교차 정렬 및 검색, 자동 음차 표기, 전문용어의 기계 번역, 전문용어의 용어 구성 정보를 이용한 전문성 측정, 온톨로지 구축, 전문용어의 정의문 추출 등 여러 전문용어 응용 시스템 및 자동조어분석기를 개발하는 데 토대가 될 것이다(배선미·시정근 2004:192).

위의 연구에서는 전문용어 목록을 자동 구축하고 응용 시스템들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어 분석을 하고 있으며, 전문용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 조어 분석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현주(2007)에서는 외래 전문용어 번역 및 조어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연구는 분야별 전문용어 조어의 특성과 번역의 유형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4) 복합 용어를 살펴보면, 그 구성 요소 중 여러 분야의 전문용어 조어에 많이 사용되는 어휘들이 있는데, ... (중략) ... 이렇게 일반적 의미를 가지고 용어 형성에 관여하는 어휘 요소들을 전문 용어 형성소라 부르겠다. ... (중략) ... 형성소의 목록을 구축하는 것은 전문 용어 번역과 조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이현주 외 2007:20).

이현주 외(2007)에서는 전문용어의 조어 분석을 통해 용어 형성에 관여하는 요소들의 목록을 구축할 수 있고, 이는 전문용어 번역과 표준화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조은경(2001), 배선미·시정곤(2004), 이현주 외(2007)는 각각 조어 분석의 목적과 필요성을 나름의 이유와 근거를 들어 주장하고 있다. 조은경(2001)은 전문용어의 어휘·형태적 특성을 밝히고자 하는 배경에서 조어 분석을 설명하고 있다. 배선미·시정곤(2004)은 전문용어 정보화의 관점에서 조어 분석이 그 토대를 이룬다고 보고 있다. 이현주 외(2007)는 전문용어의 표준화와 관련하여 번역 유형의 형식화와 올바른 조어법 제시를 위해 조어 분석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위의 세 가지 목적과 더불어 남북 전문용어 통합을 위한 관점에서 조어 분석의 목적과 필요성을 밝히고자 한다. 국립국어원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전문용어 정비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때문에 국내 전문용어 연구의 흐름은 용어 표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도 궁극적으로는 용어 표준화와 관련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측 용어를 조어 분석하는 일은 전문용어 형성에 이용되는 구성 요소를 비교함으로써 통합의 기초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다. 이미 엄태경(2015)에서는 남북 수학 기초 전문용어에 대한 조어 분석을 실시하여 접사 조어 단위 및 고빈도 조어 단위를 통한 통합 방안을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신중진 외(2015, 2016)에서도 남북한 자연과학, 체육 등의 교과를 중심으로 조어 분석을 하였다. 남북 전문용어의 조어 분석은 용어 형성 방식과 유형을 제공하므로 남북의 전문용어 통합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따라서 남북의 전문용어 통합을 위해 조어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3.1.2 조어 분석의 단위

전문용어를 형태 분석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분석 단위와 관련한 문제이다. 조은경(2001:18)에서는 ‘하나의 전문용어가 형성되는 과정에는 말을 만드는 최소 형식인 형태소가 반드시 참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전문용어 형성에 이용된 어휘 모두를 분석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전문용어의 조어 단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5) 전문용어의 분석에서는 전문용어의 형성에 이용되는 기초적인 요소로서 서로 다른 용어들 간에 공유되는 생산적인 요소이며, 형태소보다는 유의미한 수준에서 이용되는 것으로서 즉, 전문용어를 분석하는 단위이자 전문용어를 형성하는 단위로서 ‘조어 단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조은경 2001:20).

일반 단어의 형태 분석에서는 기본적인 분석 단위를 형태소로 삼는다. 예를 들어 ‘미끄럼틀’을 분석하면, ‘미끄러(<미끄럽)’, ‘-ㄱ’, ‘틀’과 같이 세 개의 형태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단어 형성의 관점에서는 세 개의 형태소가 결합하여 ‘미끄럼틀’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미끄러-’에 ‘-ㄱ’이 결합하여 ‘미끄럽’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틀’이 결합하여 ‘미끄럼틀’이 만들어진 것이다. 즉 분석의 단위와 형성의 단위가 항상 같지만은 않다. 하지만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은경(2001)에서는 전문용어를 분석하는 단위와 형성하는 단위를 동일시하고 있다. 즉 용어 형성의 관점에서 용어 분석 단위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분석의 효율성을 고려한 결과이다. 조은경(2001)이 설정한 ‘조어 단위’의 개념과 설정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¹⁵⁾

<표 25> 조은경(2001:22-28)에서의 조어 분석 방법

방법	설명	예시
1. 일반어휘로 형성된 것	· 전문용어의 특수한 조어 양상에 큰 영향력을 주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일반어로 일차적 형성이 된 어휘를 분석하지 않는다.	· 펼친-그림 → 펴/르/치/ㄴ/그리/ㄱ ⇒ 펼친/그림 · 나란히-각 → 나란/히/각 ⇒ 나란히/각

15) 이전의 국립국어원 전문용어 정비 사업에서 실시한 조어 분석은 조은경(2001)의 방법론에 따라 수행되었다. 따라서 이전의 연구 결과와 비교·검토를 위해 동일한 방법론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2. 한자어 조어력으로 형성된 것	· 1음절 한자어에 한자어 접사가 결합한 형태로 쓰이는 것은 국어 어휘로서 2음절 구성이 보다 안정적이므로, 여기는 2음절이 기본이 되도록 분석한다.	· 공적독점 → 공적/독점 · 사적독점 → 사적/독점
3. 한자어 접사	· 한자어 접사는 하나의 용어를 형성함에 있어 그 용어의 개념 형성 요소로 쓰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자립적 단어와 분리성을 갖는 하나의 조어 단위가 된다.	· 가/처분, 가/지급, 원자/력, 원심/력 등
4. 어근적 형태소	· 전문용어의 개념 형성 요소로 기능하는 고유어의 어근을 하나의 조어 단위로 인정하여 분석한다.	· 움직/씨, 둥글/수 등
5. 의미적 투명성이 없는 형태소 결합	· 형태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지라도 용어의 의미를 형성하는 최소한의 투명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분석의 의의가 낮다.	· 삼일오/정부통령/선거 · 삼에스/정책(三S政策)
6. 약어나 복합 단위의 준말	· 약어나 복합 단위의 준말은 또 다른 용어의 어기로 이용되기 때문에 형태적으로 복원하거나 분석하지 않았다.	· 정통령부통령>정부통령 → 정부통령/선거
7. 용언의 활용형, 명사 파생접사, 피사동 접사	· 전문용어 형성에 이용되는 어휘의 활용형은 대체로 제한된 쓰임을 보인다.	· 고른/값, 고른/수, 꺾은/금, 꺾은/선, 기울기, 기울기/표, 기울기/자
8. 외래어, 고유어·한자어의 경계	· 외래어와 우리말(한자어 포함)의 결합은 그 경계에서 분석한다. · 외래어끼리 결합된 것은 대응하는 우리말로 대치되거나 띄어쓰기가 되어 우리말 속에서의 어휘적 가치를 띠고 있을 경우에 분석한다.	· 데이터베이스/화 · 데이터/파일 · 마이크로/파

이 연구에서는 조은경(2001:1-28), 신중진 외(2015, 2016)의 조어 분석 단위와 조어 분석 방법을 기준으로 삼아 다음과 같이 조어 분석 단위를 설정하였다.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의 조어 분석에 사용된 품사 표지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원어 표지는 ‘고유어: ko(korean), 한자어: ch(chinese), 한자어(고유어)+고유어(한자어): sk(sino-korean), 인도유럽외래어: ie(indo-european)’으로 설정하였다.

<표 26>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의 품사 표지

형태·품사		표지	형태·품사	표지	
기호, 숫자		sy	용언	기본형	vb
표지 보류		tt		명사형, 명사파생접미사 결합형	vn
명사 류	보통명사	nc		관형형	va
	대명사	np		연결형	vc
	고유명사	npp	조사		pa
	의존명사	nb	체언 이외의 외래어	형용사, 부사	af
	수사	nu		동사	vf
	아라비아숫자 포함 명사	nu-cc		전치사	pf
관형사	an	접속사		cf	
부사		av	접사	xf	
접사	접두사	xp	단일 단위 준말	표지-c	
	접미사	xs	복합 단위 준말	표지-cc	
어근적 형태소		mm	약어	acn	

조어 분석 이후 각각의 조어 단위는 형태·품사 표지와 원어 표지를 달게 된다. 예를 들어 ‘러시아^십이월^당원^문학’이라는 용어는 분석을 거친 후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얻는다.

<표 27> ‘러시아^십이월^당원^문학’의 분석 예시

조어 단위 1	분석 표지 1	조어 단위 2	분석 표지 2	조어 단위 3	분석 표지 3	조어 단위 4	분석 표지 4
러시아	npp/ie	십이월	nc/ch	당원	nc/ch	문학	nc/ch

분석 표지 중 앞의 것은 형태·품사를 표시하고, 뒤의 것은 원어를 표시한다. 즉, ‘nc/ch’는 ‘한자어인 보통명사’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3.2 국어 교과 조어 분석의 실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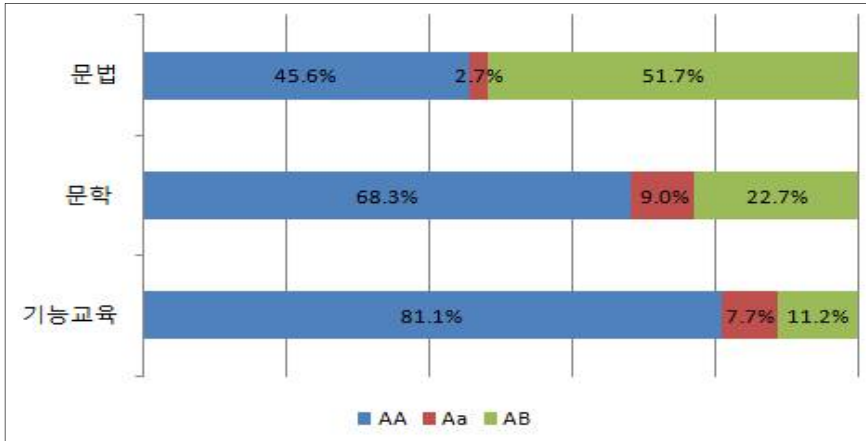
국어 교과 전문용어의 조어 분석은 ‘문법 분야, 문학 분야, 기능교육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그리고 동일 개념에 대해 남북측이 같은 형태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AA형, 어문 규정과 관련한 부분만 다르고 동일한 형태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Aa형,¹⁶⁾ 다른 형태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AB형으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8> 국어 교과 전문용어 유형

영역	전문용어 개수	AA형	Aa형	AB형
문법	1162	530	31	601
문학	726	496	65	165
기능교육	312	253	24	35
합계	2200	1279	120	8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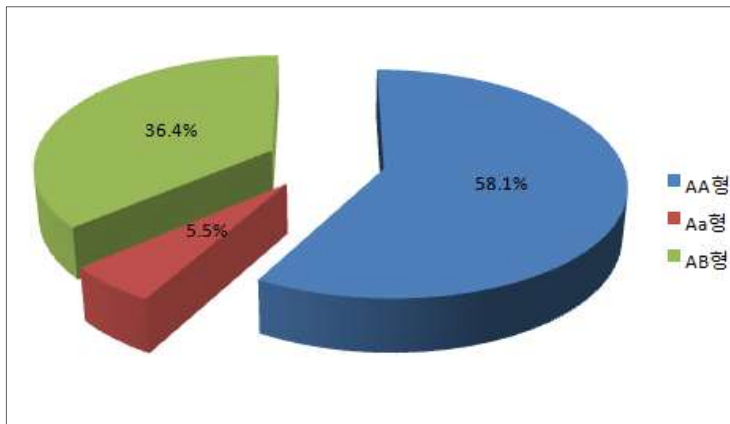
표에 제시한 바와 같이, 문법 분야는 총 1,162개의 어휘가 조사되었고, 그중에 AA형은 530개, Aa형은 31개, AB형은 601개로 분석되었다. 문학 분야는 총 726개의 어휘가 조사되었으며, 그중에 AA형은 496개, Aa형은 65개, AB형은 165개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능교육 분야는 총 312개의 어휘가 수집되었고, 그중에 AA형은 253개, Aa형은 24개, AB형은 35개로 나타났다. 이를 백분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6) Aa 유형에 포함하는 것으로는, ‘사이시옷, 외래어표기, 한자음, 두음법칙’ 등이 있으며, 예외적으로 조사 ‘의’가 포함된 용어도 Aa 유형으로 다룬다. 전문용어에 사용되는 ‘의’는 선행 성분이 후행 성분에 대해 관형어적 성격을 갖게 한다. 따라서 형태적으로 ‘의’만 차이가 있는 남북 용어들은 우선적으로 쉽게 통합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Aa형으로 분류한다.



[그림 17] 국어 교과 전문용어 분야별 백분율

문법 분야는 AA형이 45.6%, Aa형이 2.7%, AB형이 51.7%로 나타났고, 문학 분야는 AA형이 68.3%, Aa형이 9.0%, AB형이 22.7%의 비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기능교육 분야는 AA형이 81.1%, Aa형이 7.7%, AB형이 11.2%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기능교육 분야에서 남북 전문용어의 일치도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문학, 문법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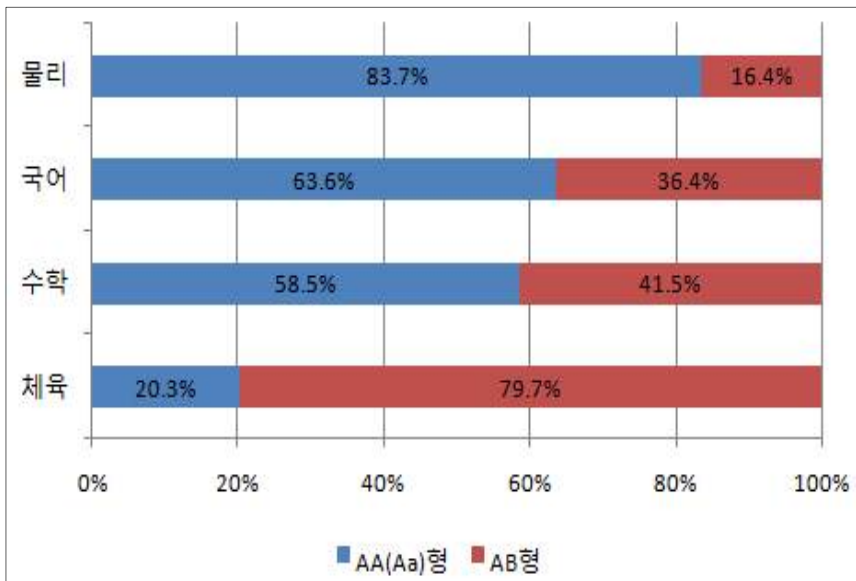


[그림 18] 국어 교과 전문용어 유형별 백분율

문법, 문학, 기능교육 분야를 통합한 국어 교과 전문용어의 비율을 살펴보면, AA형이 58.1%, Aa형이 5.5%, AB형이 36.4%로 나타났다. 큰 틀에서 Aa형은 AA형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는 63.6%

정도의 일치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국어 교과 전문용어를 신중진 외(2016)에서 연구한 체육 교과와 비교해 보았다. 체육 교과에서는 남북이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AA(Aa)형이 238개(20.3%)로 나타났으며 서로 다른 형태를 보이는 AB형이 935개(79.7%)로 분석되었다. 즉, AB형이 약 80%로 그 일치도가 매우 낮다. 신중진 외(2015, 2016)에서 연구된 수학과 물리 교과와도 비교해 보면, 수학 교과에서는 AA(Aa)형이 206개(58.5%), AB형이 146개(41.5%)로 나타났다. 물리 교과에서는 AA(Aa)형이 358개(83.7%), AB형이 70개(16.4%)로 나타났다. 즉, 남북측 국어 교과 전문용어는 수학보다는 일치도가 높고, 물리보다는 일치도가 낮은 편이다. 이를 정리해 보면, 남북 양측이 같은 형태의 용어를 사용하는 AA(Aa)형은 ‘물리 > 국어 > 수학 > 체육’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그래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9] 교과별 남북 전문용어의 유형

남북 전문용어를 교과별로 비교해 본 결과, 물리 교과에서 남북 전문용어의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체육 교과에서 남북 전문용어의 차이가 큼을 알 수 있었다. 국어 교과는 물리 교과 다음으로 용어의 일치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렇다면 국어 교과 세부 분야별로는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지 국어 교과의 분야별 조어 분석 결과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3.2.1 문법 분야

1) 형태 분포

문법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는 총 1,162개가 분석되었다. 다음의 표는 각 유형을 예와 함께 제시한 것이다.

<표 29> 문법 분야 전문용어 유형

유형		예(남-북)	개수 (백분율)
AA	AA	가 ^ㅅ 주어-가 ^ㅅ 주어, 대 ^ㅅ 명사-대 ^ㅅ 명사, 억양-억양 등	530개 (45.6%)
	Aa	러시아 ^ㅅ 어-로씨야 ^ㅅ 어, 반 ^ㅅ 잇 ^ㅅ 소리-반 ^ㅅ 이 ^ㅅ 소리, 이찰-리찰 등	31개 (2.7%)
AB		동화-소리 ^ㅅ 닿기, 삼입 ^ㅅ 어-끼움 ^ㅅ 말, 평음-순환 ^ㅅ 소리 등	601개 (51.7%)

AA형과 Aa형은 남북의 전문용어가 동일 개념에 대해 동일한 형태를 가진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문법 분야에는 이러한 유형이 561개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동일 개념에 대해 상이한 형태를 보이는 AB형은 601개가 출현하였다. 즉, 남북 문법 용어는 48.3%에 가까운 일치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문법 분야의 용어는 남북이 각각 601개의 다른 형태가 있고, AA(Aa)형과 AB형까지 모두 더하면 총 1,763개가 된다. 이를 아래 표에 따라 분석해 보았더니 그 결과 전문용어 하나당 2.12개의 조어 단위가 결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개의 조어 단위로 결합한 용어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어 분석 결과, 문법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는 적게는 1개의 조어 단위부터 가장 많게는 9개의 조어 단위까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의 표는 조어 단위의 결합 길이에 따른 전문용어의 개수와 그 예이다.

<표 30> 문법 분야 조어 단위 길이

조어 단위의 결합 길이	개수	백분율	예
1개	330	18.7%	가획, 기억, 신어, 콜론, 혼철, 호기 등
2개	1,039	58.9%	통사 [^] 론, 평서 [^] 문, 가정 [^] 법, 접속 [^] 어 등
3개	275	15.6%	접두 [^] 파생 [^] 법, 동음 [^] 의 [^] 어, 통시 [^] 어휘 [^] 론 등
4개	94	5.3%	단어 [^] 빈도 [^] 수 [^] 사전, 국제 [^] 음성 [^] 학 [^] 기호 등
5개	20	1.1%	한글 [^] 맞춤 [^] 법 [^] 통일 [^] 안, 히 [^] 의 [^] 앞 [^] 뒤 [^] 위치 등
6개	2	0.1%	감점 [^] 정서 [^] 적 [^] 뜻 [^] 같은 [^] 말 등
7개	2	0.1%	조선 [^] 어 [^] 의 [^] 라틴 [^] 글자 [^] 표기 [^] 법 등
9개	1	0.1%	듣는 [^] 사람 [^] 을 [^] 조금 [^] 높여서 [^] 말할 [^] 때 [^] 쓰는 [^] 토
합계	1,763	100.0%	

문법 분야의 전문용어는 일반적으로 2개의 조어 단위가 결합하여 전문용어를 형성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2개의 조어 단위로 구성된 전문용어가 전체 분포의 58.9%를 차지한다. 신중진 외(2016:71-76)에 따르면, 수학 교과에서는 2개로 결합된 용어가 52.0%였고, 물리 교과에서는 53.6%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문법도 수학, 물리와 마찬가지로 2개로 구성된 조어 단위가 50% 이상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형태 유형별 특징

가) AA(Aa)형

AA(Aa)형은 남북이 동일하게 사용한 용어를 나타내므로 AA(Aa)형을 통해 공통적인 조어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이 유형을 면밀하게 살펴 통합의 근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AA(Aa)형에서 사용된 형태 및 원어는 다음과 같다.

<표 31> 문법 분야 AA(Aa)형 형태 및 원어

형태	빈도	원어	빈도
보통명사(nc)	762	한자어(ch)	818
접미사(xs)	143	고유어(ko)	164(165) ¹⁷⁾
접두사(xp)	22	외래어(ie)	14
어근적 형태소(mm)	19		
고유명사(npp)	17		
용언의 명사형(vn)	9		
용언의 관형형(va)	6		
수사(nu)	6		
관형사(an)	6		
조사(pa)	4(5)		
용언의 연결형(vc)	1		
대명사(np)	1		

위의 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실은 보통명사의 수치가 762개로 월등히 높다는 점이다. 또한 원어 사용에서는 한자어의 빈도가 818개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표에서 남북측 빈도에 약간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Aa형에서 비롯된다. Aa형 대부분이 형태 표지와 원어 표지가 동일하지만, ‘반의^관계(남)-반의^의^관계(북)’에서 형태 표지와 원어 표지에 차이를 보였다. 여기서 사용되는 ‘의’는 선행 성분이 후행 성분에 대해 관형어적 성격을 지니게 할 뿐이며, 형태적으로 ‘의’만 차이가 있는 남북 용어들은 우선적으로 쉽게 통합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Aa형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은 AA(Aa)형 전문용어들의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를 보여주는 아래 표에서는 상위 5위까지의 유형만을 제시하였다.

17) 남북 용어에서 수치에 차이가 있는 경우만 괄호로 제시하였다.

<표 32> 문법 분야 AA(Aa)형의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

유형		남	북	예
형태 결합 (35개 유형)	nc	197	197	구결, 대화, 랑그, 문법, 방언 등
	nc^nc	147	148	단어^구조, 동남^방언, 명사^구 등
	nc^xs	97	97	과거^형, 국어^학, 목적^어 등
	nc^nc^xs	19	19	보조^형용^사, 일반^언어^학 등
	xp^nc	17	17	반^모음, 대^과거, 피^동사
원어 결합 (19개 유형)	ch^ch	239	238	내적^언어, 순경^음, 각자^병서 등
	ch	150	150	교체, 성분, 의미, 자질, 주어 등
	ko	42	42	갈래, 뜻, 사투리, 소리, 허용 등
	ch^ch^ch	40	40	모음^사각^도, 통계^언어^학 등
	ko^ko	34	34	뜻^풀이, 소리^마디, 말^다듬기 등
형태·원어 결합 (57:59개 유형) ¹⁸⁾	nc/ch	150	150	계통, 규범, 담화, 동사, 한자 등
	nc/ch^nc/ch	115	114	국어^사전, 모음^조화, 치경^음 등
	nc/ch^xs/ch	92	91	다의^성, 단어^어, 방언^학 등
	nc/ko	42	42	낮춤, 받침, 이음, 한글 등
	nc/ko^nc/ko	17	17	명사^구, 높임^말, 울림^소리 등

먼저 형태 결합 관계를 살펴보면, 문법 분야에서는 ‘보통명사’ 유형이 주를 이룬다. 신중진 외(2015, 2016)에서 고찰한 수학과 물리의 AA(Aa)형은 ‘보통명사+보통명사’의 결합이 가장 두드러졌는데, 문법은 ‘보통명사’ 유형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¹⁹⁾ 그리고 원어 결합 관계에서는 한자어의 사용이 두드러졌다. 원어 사용에서 수학과 물리도 한자어와 한자어의 결합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는데, 마찬가지로 문법에서도 한자어와 한자어의 결합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문법 분야의 형태 결합에서는 ‘보통명사’ 단일 형태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데 원어 결합에서는 한자어와 한자어의 결합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이유는, 다른 유형에서 한자어와 한자어의 결합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Aa형은 AA형의 형태·원어 결합 관계와 거의 일치하고, 두음법칙과 사잇소리 현상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두음법칙으로 인해 차이를 보이는 용어는 ‘노어(남)-로어(북), 약어-략어, 예문-례문, 이두-리두, 여성^명사-려성^명사, 역사^문법-력사^문법’ 등이 있고, 사잇소리 현상으로 차이를 보이는 용어는 ‘헛바닥^소리-허바닥^소리, 가운데^소리-가운데^소리, 아라비아^숫자-아라비아^수자, 잇^소리-이^소리’ 등이 있다. 그 밖에 외래어 표기로 차이를 보이는 용어는 ‘러시아^어-로씨야^

18) 이 수치는 유형의 개수를 제시한 것이며, 남북측 개수에 차이가 있을 때 앞의 수치는 남측 용어, 뒤의 수치는 북측 용어를 제시하였다.

19) AA(Aa)형에서 수학 용어의 형태 결합 관계는 ‘nc^nc(87), nc(81), nc^xs(7), xp^nc(4), nc^nc^nc(4)’ 순으로 나타났고, 물리 용어의 형태 결합 관계는 ‘nc^nc(116), nc(98), nc^xs(35), npp^nc(20), nb(19)’ 순으로 나타났다(신중진 외 2016:72-77).

어’ 등이고, 모음 표기의 차이로 인한 ‘띄어쓰기-띄여쓰기’도 나타났다.

나) AB형

남북 문법 분야의 전문용어 중에서 AB형은 601개로 나타났다. AB형은 남측과 북측이 전문용어를 통합하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AB형은 AA(Aa)형에서 드러나지 않던 남과 북의 이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형이다.

남북의 전문용어가 다를 때 전문용어를 통합하는 방법은 새로운 전문용어를 만드는 방법과 기존의 전문용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전자의 방법은 남북의 합의에 따라 새로운 용어를 생산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후자의 방법을 사용하여 통합안을 마련할 수 있는데, 이때 어떤 용어를 선택할지 다양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전문용어의 차이를 꼼꼼히 살피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남북 용어에 차이를 보이는 AB형의 형태 및 원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3> 문법 분야 AB형 형태 및 원어

형태				원어			
남측 형태	빈도	북측 형태	빈도	남측 원어	빈도	북측 원어	빈도
보통명사(nc)	941	보통명사(nc)	930	한자어(ch)	1,099	한자어(ch)	748
접미사(xs)	198	접미사(xs)	157	고유어(ko)	200	고유어(ko)	655
어근적형태소(mm)	62	용언의명사형(vn)	126	외래어(ie)	16	혼종어(sk)	22
접두사(xp)	39	용언의관형형(va)	61			외래어(ie)	8
용언의명사형(vn)	17	조사(pa)	38				
용언의관형형(va)	16	접두사(xp)	33				
표지 보류(tt)	15	표지 보류(tt)	24				
고유명사(npp)	10	어근적형태소(mm)	18				
조사(pa)	6	고유명사(npp)	16				
부사(av)	4	관형사(an)	12				
관형사(an)	3	용언의연결형(vc)	9				
용언의연결형(vc)	2	부사(av)	8				
의존명사(nb)	2	수사(nu)	1				

위의 표에 제시된 AB형의 형태 및 원어를 AA(Aa)형과 비교하면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즉 보통명사와 한자어가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남북의 원어 사용을 비교해 보면, 남측은 한자어가 1,099개, 고유어가 200개, 외래어가

16개이고, 북측은 한자어가 748개, 고유어가 655개, 혼종어가 22개, 외래어가 8개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남측이 북측보다 외래어 사용이 많고, 북측은 고유어의 비중이 높으며 남측에서 나타나지 않는 혼종어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 및 원어가 어떠한 결합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4> 문법 분야 남측 AB형의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

	유형	빈도	예
형태 결합 (62개 유형)	nc [^] nc	183	간접 [^] 담화, 관용 [^] 구, 사이 [^] 시옷 등
	nc [^] xs	101	명령 [^] 문, 반대 [^] 어, 사전 [^] 학 등
	nc	84	여기, 유음, 음운, 조사, 축약 등
	nc [^] nc [^] xs	30	간접 [^] 목적 [^] 어, 어두 [^] 자음 [^] 군 등
	nc [^] nc [^] nc	19	국어 [^] 순화 [^] 운동, 사이 [^] 소리 [^] 현상 등
원어 결합 (32개 유형)	ch [^] ch	302	주 [^] 성분, 관형 [^] 격, 탄설 [^] 음 등
	ch [^] ch [^] ch	74	접두 [^] 과생 [^] 법, 의문 [^] 대 [^] 명사 등
	ch	70	주부, 이화, 인칭, 혼철, 활용 등
	ko [^] ko	33	말 [^] 토막, 이어 [^] 적기, 매김 [^] 씨 등
	ko [^] ch	24	하오 [^] 체, 붙임 [^] 표, 겹 [^] 문자 등
형태/원어 결합 (92개 유형)	nc/ch [^] nc/ch	153	공통 [^] 조어, 근대 [^] 국어, 기본 [^] 의미 등
	nc/ch [^] xs/ch	100	갑골 [^] 문, 격음 [^] 화, 구어 [^] 체 등
	nc/ch	70	외과, 유음, 접사, 축약 등
	nc/ch [^] nc/ch [^] x s/ch	29	시간 [^] 부사 [^] 어, 의성 [^] 의태 [^] 어 등
	nc/ko [^] nc/ko	16	끝 [^] 씨, 입술 [^] 소리, 입 [^] 말 등

위의 표는 남측의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를 보여준다. 남측의 형태 결합 관계를 보면 ‘보통명사[^]보통명사, 보통명사[^]접미사, 보통명사’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인다. 원어 결합 관계를 살펴보면, ‘한자어[^]한자어, 한자어[^]한자어[^]한자어, 한자어’ 순으로 나타난다. 형태와 원어 결합 관계를 보면, ‘보통명사/한자어[^]보통명사/한자어’의 구성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통명사/한자어[^]접미사/한자어’의 구성도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북측 AB형의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를 제시한 것이다.

<표 35> 문법 분야 북측 AB형의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

	유형	빈도	예
형태 결합 (78개 유형)	nc^nc	161	도움^토, 용언^줄기, 소리^동강 등
	nc^xs	57	앞^붙이, 느낌^법, 접합^어 등
	nc	46	량사, 하철, 줄기, 실체, 기속 등
	vn^nc	30	옮김^말, 맺음^토, 스침^소리 등
	nc^nc^nc	27	끝^소리^법칙, 목^안^소리 등
원어 결합 (44개 유형)	ch^ch	120	지소^칭, 형^동사, 수^범주 등
	ko^ko	106	뜻^쪼각, 부름^말, 기동^소리 등
	ko^ch	79	순환^자음, 시킴^상, 흠^모음 등
	ch^ch^ch	45	단어^전환^법, 불^완전^명사 등
	ch^ko	43	규정^토, 복수^토, 모음^줄이기 등
형태/원어 결합 (127개 유형)	nc/ch^nc/ch	63	중동^상, 시간^범주, 수량^수사 등
	nc/ch^xs/ch	44	진술^부, 형태^부, 구어^문 등
	nc/ch^nc/ko	36	속격^토, 외국^말, 대충^말 등
	nc/ch	34	괄호, 수사, 하철, 형식 등
	nc/ko^nc/ko	28	울림^소리, 길이^마루, 이음^토 등

북측 역시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데, 형태 결합에서는 ‘보통명사^보통명사, 보통명사^접미사, 보통명사’ 순으로 남측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4위의 결합 관계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남측은 ‘보통명사^보통명사^접미사’가 나타난 반면 북측은 ‘명사형^보통명사’가 나타났다. 즉 ‘옮김^말, 맺음^토, 스침^소리, 돌이킴^동사, 가리킴^말’ 등의 표현이 남측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북측은 남측처럼 한자어도 많이 사용하지만, 고유어의 사용이 남측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남측은 원어 결합 관계의 4, 5위에서 고유어 사용이 나타났는데, 북측은 2, 3위에서 고유어 사용이 나타나고 있다. 형태와 원어 결합 구조에서는 ‘보통명사/한자어^보통명사/한자어, 보통명사/한자어^접미사/한자어, 보통명사/한자어^보통명사/고유어’ 순으로 빈도를 나타냈다.

남북측 AB형에서 특징적인 것은 ‘보통명사^보통명사’ 구성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AA형에서는 ‘보통명사’의 구성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반면에, AB형은 ‘보통명사^보통명사’처럼 2개의 조어 단위가 결합한 형태가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3.2.2 문학 분야

1) 형태 분포

문학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는 총 726개가 분석되었다. 다음의 표는 각 유형을 예와 함께 제시한 것이다.

<표 36> 문학 분야 전문용어의 유형

유형		예(남-북)	개수 (백분율)
AA	AA	고려 ^ㅅ 가요-고려 ^ㅅ 가요, 글-글, 단형 ^ㅅ 시-단형 ^ㅅ 시 등	496개 (68.3%)
	Aa	연상-련상, 러시아 ^ㅅ 문학-로씨야 ^ㅅ 문학, 산문 ^ㅅ 울-산문 ^ㅅ 를 등	65개 (9.0%)
AB		두운-머리 ^ㅅ 운, 두운 ^ㅅ 법-두어 ^ㅅ 중첩, 보조 ^ㅅ 관념-비기는 ^ㅅ 말 등	165개 (22.7%)

AA형과 Aa형은 남북의 전문용어가 동일 개념에 대해 동일한 형태를 가진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문학 분야에는 이러한 유형이 561개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동일 개념에 대해 상이한 형태를 보이는 AB형은 165개가 출현하였다. 즉, 남북 문학 용어는 77.3%에 가까운 일치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문학 용어는 남북 각각 165개의 다른 형태가 있고, AA(Aa)형과 AB형을 모두 더하면 총 891개가 된다. 이를 다음의 표에 따라 분석해 보았더니 그 결과 전문 용어 하나당 1.76개의 조어 단위가 결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개의 조어 단위와 2개의 조어 단위로 결합한 용어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어 분석 결과, 문학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는 적게는 1개의 조어 단위부터 가장 많게는 6개의 조어 단위까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의 표는 조어 단위의 결합 길이에 따른 전문용어의 개수와 그 예이다.

<표 37> 문학 분야 조어 단위 길이

조어 단위의 결합 길이	개수	백분율	예
1개	348	39.1%	글, 기행, 대본, 모더니즘, 시, 에세이 등
2개	442	49.6%	단형 [^] 시, 평 [^] 시조, 근대 [^] 문학, 고전 [^] 소설 등
3개	74	8.3%	영화 [^] 감상 [^] 문, 의인 [^] 전기 [^] 체, 대화 [^] 체 [^] 소설 등
4개	23	2.6%	비판 [^] 적 [^] 사실 [^] 주의, 문체 [^] 론 [^] 적 [^] 수단 등
5개	2	0.2%	런대 [^] 기 [^] 적 [^] 문화 [^] 유산 등
6개	2	0.2%	사회 [^] 주의 [^] 적 [^] 사실 [^] 주의 [^] 문학 등
합계	891	100.0%	

남북의 문학 용어는 일반적으로 1~2개의 조어 단위가 결합하여 전문용어를 형성하였다. 1개 조어 단위와 2개 조어 단위로 구성된 전문용어가 전체 분포의 88.7%를 차지한다. 그중 두 개의 조어 단위가 결합된 전문용어가 49.6%를 차지하고 있는데, ‘보통명사’와 ‘보통명사’의 결합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다.²⁰⁾ 조어 단위가 1개로 구성된 용어들은 ‘가사, 독백, 은유, 율조, 해학’처럼 2음절로 된 단어들인 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2개로 결합된 용어들은 ‘산문[^]체, 고체[^]시, 대조[^]법, 비극[^]적’ 등의 3음절 형태가 ‘가사[^]문학, 고려[^]속요, 문학[^]작품’ 등의 4음절 형태보다 더 많이 사용되었다. 3개로 결합된 용어들은 ‘대화[^]체[^]소설, 장편[^]서사[^]시, 진보[^]적[^]인물’ 등의 5음절로 구성된 형태가 많이 쓰였으며, 4개로 결합된 용어들은 ‘다[^]장면[^]구성[^]형식, 의인[^]전기[^]체[^]소설, 묘사[^]적[^]심상[^]기법’ 등의 7음절 형태가 많았다. 5개로 결합된 용어는 ‘런대[^]기[^]적[^]문화[^]유산’, 6개로 결합된 용어는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 등이 나타났다.

2) 형태 유형별 특징

가) AA(Aa)형

문학 용어의 AA(Aa)형에서 사용된 형태 및 원어는 다음과 같다.

20) 수학 교과에서는 1개로 구성된 용어가 33.7%, 2개로 결합된 용어가 52.0%였고, 물리 교과에서는 1개로 구성된 용어가 29.5%, 2개로 결합된 용어가 53.6%였다(신중진 외 2016:71-76). 이에 비해 문학은 1개로 구성된 용어가 39.1%로, 수학과 물리와 비교해 볼 때 그 비율이 높은 편이다.

<표 38> 문학 분야 AA(Aa)형 형태 및 원어

형태	빈도	원어	빈도
보통명사(nc)	699(698)	한자어(ch)	811
접미사(xs)	127	고유어(ko)	32(33)
어근적 형태소(mm)	14(15)	외래어(ie)	16
고유명사(npp)	7		
접두사(xp)	6		
아라비아숫자 포함			
명사(nu)	2		
조사(pa)	1(2)		
관형사(an)	1		
의존명사(nb)	1		
약어(acn)	1		

위의 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실은 보통명사의 수치가 굉장히 높다는 점이다. 또한 원어 사용에서는 한자어의 빈도가 월등히 높다는 점이다. 표의 괄호 속 수치는 북측 용어의 빈도를 나타낸 것인데, 남북측 빈도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Aa형에서 비롯된다. Aa형 대부분이 형태 표지와 원어 표지가 동일하지만, ‘언어[^]예술(남)-언어[^]의[^]예술(북)’, ‘끝[^]구(남)-끝[^]귀(북)’에서 형태 표지와 원어 표지에 차이를 보였다. 다음은 AA(Aa)형 전문용어들의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를 보여주는 아래 표에서는 상위 5위까지의 유형만을 제시하였다.

<표 39> 문학 분야 AA(Aa)형의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

유형		남	북	예
형태 결합 (22개 유형)	nc	286	286	문학, 복선, 산문, 시, 운문, 은유 등
	nc [^] nc	124	122	고전 [^] 문학, 구전 [^] 설화, 국문 [^] 시가 등
	nc [^] xs	105	105	간결 [^] 체, 강조 [^] 법, 예 [^] 학, 문학 [^] 성 등
	nc [^] xs [^] nc	7	7	극 [^] 적 [^] 갈등, 시대 [^] 적 [^] 배경 등
	mm [^] nc	6	6	단운 [^] 시, 단형 [^] 시, 평 [^] 시조 등
원어 결합 (12;13개 유형) ²⁾	ch	263	263	감상, 극, 단편, 문체, 소재, 시점 등
	ch [^] ch	239	238	가면 [^] 극, 구비 [^] 전설, 낭만 [^] 주의 등
	ch [^] ch [^] ch	14	14	고전 [^] 문학 [^] 작품, 일 [^] 인칭 [^] 소설 등
	ko	13	13	가락, 곳, 글, 줄거리, 판소리 등
	ie	11	11	다다이즘, 드라마, 모더니즘, 카프 등
형태·원어 결합 (31;34개)	nc/ch	263	263	가사, 극, 막, 소설, 소재, 주제, 행 등
	nc/ch [^] nc/ch	113	112	가정 [^] 소설, 구전 [^] 문학, 칠언 [^] 절구 등
	nc/ch [^] xs/ch	104	104	간결 [^] 체, 과장 [^] 법, 서정 [^] 성 등

유형)	nc/ko	13	13	곳, 글, 끝, 줄거리, 판소리 등
	nc/ie	10	10	다다이즘, 모더니즘, 몽타주 등

먼저 형태 결합 관계를 살펴보면 ‘보통명사’ 유형이 주를 이룬다. 신중진 외 (2015, 2016)에서 연구한 수학과 물리의 AA(Aa)형은 ‘보통명사+보통명사’의 결합이 가장 두드러졌는데, 문학 용어는 ‘보통명사’ 유형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²²⁾ 그리고 원어 결합 관계에서는 한자어의 사용이 두드러졌다. 원어 사용에서도 수학과 물리는 한자어와 한자어의 결합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반면, 문학에서는 한자어 단일 형태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²³⁾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교과별 조어 단위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한자어 보통명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a형은 AA형의 형태·원어 결합 관계와 거의 일치하고, 두음법칙과 외래어 표기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두음법칙으로 인해 차이를 보이는 용어는 ‘연상(남)-런상(북), 율문-률문, 낭만[^]주의-랑만[^]주의, 역사[^]소설-력사[^]소설, 논설[^]문-론설[^]문’ 등이 있고, 외래어 표기로 차이를 보이는 용어는 ‘로맨스-로만스, 몽타주-몽따쥬, 프롤레타리아[^]문학-프로레타리아[^]문학, 러시아[^]문학-로씨야[^]문학, 이솝[^]우화-이소프[^]우화’ 등이 나타났다.

나) AB형

남북 문학 분야의 전문용어 중에서 AB형은 165개로 나타났다. AB형은 남과 북의 이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형이다. 남북 용어에 차이를 보이는 AB형의 형태 및 원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이 수치는 유형의 개수를 제시한 것이며, 앞의 수치는 남측 용어, 뒤의 수치는 북측 용어에 대한 것이다.

22) AA(Aa)형에서 수학 용어의 형태 결합 관계는 ‘nc[^]nc(87), nc(81), nc[^]xs(7), xp[^]nc(4), nc[^]nc[^]nc(4)’ 순으로 나타났고, 물리 용어의 형태 결합 관계는 ‘nc[^]nc(116), nc(98), nc[^]xs(35), npp[^]nc(20), nb(19)’ 순으로 나타났다(신중진 외 2016:72-77).

23) AA(Aa)형에서 수학 용어의 원어 결합 관계는 ‘ch[^]ch(74), ch(69), ch[^]ch[^]ch(12), ch[^]ko(11), ie(7)’ 순으로 나타났고, 물리 용어의 원어 결합 관계는 ‘ch[^]ch(134), ch(77), ie(33), ch[^]ch[^]ch(25), ie[^]ch(22)’ 순으로 나타났다(신중진 외 2016:72-77).

<표 40> 문학 분야 AB형 형태 및 원어

형태				원어			
남측 형태	빈도	북측 형태	빈도	남측 원어	빈도	북측 원어	빈도
보통명사(nc)	266	보통명사(nc)	288	한자어(ch)	302	한자어(ch)	333
접미사(xs)	52	접미사(xs)	59	고유어(ko)	18	고유어(ko)	38
고유명사(npp)	6	고유명사(npp)	6	외래어(ie)	16	외래어(ie)	2
조사(pa)	5	접두사(xp)	4				
관형사(an)	2	명사형(vn)	4				
관형형(va)	2	관형형(va)	4				
어근적형태소(mm)	1	조사(pa)	2				
접두사(xp)	1	관형사(an)	2				
의존명사(nb)	1	어근적형태소(mm)	2				
		의존명사(nb)	1				
		연결형(vc)	1				

위 표에 제시된 AB형의 형태 및 원어를 AA(Aa)형과 비교하면 큰 차이는 없다. 즉 보통명사와 한자어가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남북의 원어 사용을 비교해 보면, 남측은 한자어가 302개, 고유어가 18개, 외래어가 16개이고, 북측은 한자어가 333개, 고유어가 38개, 외래어가 2개이다. 이를 통해 남측이 북측보다 외래어 사용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형태 및 원어가 어떠한 결합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1> 문학 분야 남측 AB형의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

유형	빈도	예
형태 결합 (18개 유형)	nc^nc	다리^운, 보조^관념, 패관^문학 등
	nc	각운, 도치, 두운, 층시 등
	nc^xs	각운^법, 반복^법, 소설^체, 반어^법 등
	nc^xs^nc	관능^적^문학, 시간^적^배경 등
	nc^nc^nc	공상^과학^소설, 공상^과학^작품 등
원어 결합 (19개 유형)	ch^ch	시적^상황, 보조^관념, 복수^주인공 등
	ch	각운, 결말, 도치, 서시, 층시 등
	ch^ch^ch	공상^과학^소설, 일기^체^소설 등
	ie	리얼리즘, 에세이, 플롯 등
	ch^ch^ch^ch	묘사^적^심상^기법, 서정^적^서사^시 등
형태/원어 결합 (28개 유형)	nc/ch^nc/ch	보조^관념, 복수^주인공, 사건^전개 등
	nc/ch	각운, 결말, 도치, 두운, 층시 등
	nc/ch^xs/ch	각운^법, 나열^법, 두운^법, 반복^법 등
	nc/ch^xs/ch^	관능^적^문학, 환상^적^구성 등

	nc/ch		
	nc/ie	9	리얼리즘, 시나리오, 에세이, 플롯 등

위의 표는 남측의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를 보여준다. 남측의 형태 결합 관계를 보면 ‘보통명사^보통명사, 보통명사, 보통명사^접미사’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인다. 원어 결합 관계를 살펴보면, ‘한자어^한자어, 한자어, 한자어^한자어^한자어’ 순으로 나타난다. 원어에서 보면, 한자어 사용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한자어와 더불어 1개 형태로 구성된 외래어 사용도 5순위 안에 든다. 형태와 원어 결합 관계를 보면, ‘보통명사/한자어^보통명사/한자어’의 구성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북측 AB형의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를 제시한 것이다.

<표 42> 문학 분야 북측 AB형의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

	유형	빈도	예
형태 결합 (29개 유형)	nc^nc	60	머리^이야기, 계단^시, 두어^중첩 등
	nc	24	마감, 부선, 수필 등
	nc^xs	23	되풀이^법, 야유^법, 흐름^새 등
	nc^xs^nc	12	고전^적^로작, 편지^체^소설 등
	nc^nc^nc	8	과학^환상^소설, 과학^환상^작품 등
원어 결합 (16개 유형)	ch^ch	76	시적^정황, 폐설^문학, 색정^문학 등
	ch^ch^ch	26	장회^체^소설, 과학^환상^소설 등
	ch	20	발생, 부선 등
	ch^ch^ch^ch	10	다^장면^구성^형식, 사회^주의^문학^예술 등
	ko^ch	9	꼬리^운, 되풀이^법, 벌림^법 등
형태/원어 결합 (38개 유형)	nc/ch^nc/ch	49	계단^시, 초상^묘사, 결어^중첩 등
	nc/ch	20	발생, 부선, 시련 등
	nc/ch^xs/ch	19	야유^법, 작시^법 등
	nc/ch^xs/ch^nc /ch	11	고전^적^로작, 편지^체^소설 등
	nc/ch^nc/ch^nc /ch	8	과학^환상^소설, 과학^환상^작품 등

북측 역시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데, 형태 결합에서는 ‘보통명사^보통명사, 보통명사, 보통명사^접미사’ 순으로 남측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자어 사용이 대부분이라는 점도 남측과 동일하다. 원어 결합 구조를 살펴보면, ‘한자어^한자어, 한자어^한자어^한자어’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자어^한자어, 한자어’ 순의 빈도를

보인 남측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또한 외래어 사용이 많지 않은 점이 남측과 다른 특징이다. 형태와 원어 결합 구조에서는 ‘보통명사/한자어^보통명사/한자어’의 결합 관계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문학 분야의 남북측 AB형에서 특징적인 것은 ‘보통명사^보통명사’ 구성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AA형은 ‘보통명사’의 구성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반면에, AB형은 ‘보통명사^보통명사’처럼 2개의 조어 단위가 결합한 형태가 높은 빈도를 보였다.

3.2.3 기능교육 분야

1) 형태 분포

기능교육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는 총 312개가 분석되었다. 다음의 표는 각 유형을 예와 함께 제시한 것이다.

<표 43> 기능교육 분야 전문용어 유형

유형		예(남-북)	개수 (백분율)
AA	AA	건의^문-건의^문, 언어^생활-언어^생활, 토론-토론 등	253개 (81.1%)
	Aa	논거-론거, 약호-략호, 이해-리해 등	24개 (7.7%)
AB		감상^문-느낌^글, 발췌^독-추려^읽기, 휴지-끊기 등	35개 (11.2%)

AA형과 Aa형은 남북의 전문용어가 동일 개념에 대해 동일한 형태를 가진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기능교육 분야에는 이러한 유형이 277개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동일 개념에 대해 상이한 형태를 보이는 AB형은 35개가 출현하였다. 즉, 남북 기능교육 용어는 88.8%에 가까운 일치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조어 분석 결과, 기능교육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는 적게는 1개의 조어 단위부터 가장 많게는 6개의 조어 단위까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의 표는 조어 단위의 결합 길이에 따른 전문용어의 개수와 그 예이다.

<표 44> 기능교육 분야 조어 단위 길이

조어 단위의 결합 길이	개수	백분율	예
1개	218	62.8%	자료, 쟁점, 사고, 귀납, 연역 등
2개	119	34.3%	보고 [^] 서, 대 [^] 전제, 소 [^] 제목, 언어 [^] 생활 등
3개	8	2.3%	논리 [^] 적 [^] 오류, 내용 [^] 전개 [^] 방식 등
4개	1	0.3%	글 [^] 을 [^] 쓴 [^] 사람
5개	0	0%	
6개	1	0.3%	자료 [^] 수집 [^] 의 [^] 직접 [^] 적 [^] 수법
합계	347	100.0%	

남북의 기능교육 분야 전문용어는 일반적으로 1~2개의 조어 단위가 결합하여 전문용어를 형성하였다. 1개 조어 단위와 2개 조어 단위로 구성된 전문용어가 전체 분포의 97.1%를 차지한다. 그중 1개의 조어 단위가 결합된 전문용어가 62.8%를 차지하고 있는데, ‘보통명사’의 단일 조어 단위가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다.

2) 형태 유형별 특징

가) AA(Aa)형

기능교육 분야의 AA(Aa)형에서 사용된 형태 및 원어는 다음과 같다.

<표 45> 기능교육 분야 AA(Aa)형 형태 및 원어

형태	빈도	원어	빈도
보통명사(nc)	307	한자어(ch)	321
접미사(xs)	44	고유어(ko)	37(38)
접두사(xp)	4	외래어(ie)	1
어근적형태소(mm)	3	혼종어(sk)	1
의존명사(nb)	2		
조사(pa)	0(1)		

위의 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실은 보통명사의 수치가 굉장히 높다는 점이다. 또한 원어 사용에서는 한자어의 빈도가 월등히 높다는 점이다. 고유어와 조사에 나타난 괄호 속 수치는 복측 용어의 빈도를 나타낸 것인데, 이는 Aa형에서 비롯

된다. Aa형 대부분이 형태 표지와 원어 표지가 동일하지만, ‘신문^기사(남)-신문^의^기사(북)’에서 형태 표지와 원어 표지에 차이를 보였다. 다음은 AA(Aa)형 전문용어들의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표 46> 기능교육 분야 AA(Aa)형의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

유형		남	북	예
형태 결합 (10:11개 유형)	nc	198	198	강연, 개요, 듣기, 반론, 이야기 등
	nc^xs	42	42	간결^성, 건의^문, 명료^성 등
	nc^nc	26	25	개량^주의, 귀납^추리, 바탕^글 등
	xp^nc	3	3	대^전제, 소^제목 등
	nc^mm	3	3	글^귀, 보고^서, 탄원^서
원어 결합 (10:11개 유형)	ch	182	182	표절, 표준, 해성, 협상, 주장 등
	ch^ch	62	61	관찰^일기, 질의^응답, 언어^생활 등
	ko	15	15	까닭, 느낌, 말하기, 읽기, 짜임 등
	ko^ch	6	6	느낌^글, 머리^글, 바탕^글 등
형태/원어 결합 (17:18개 유형)	nc/ch	182	182	각주, 과목, 과정, 면접, 문구 등
	nc/ch^xs/ch	42	42	경고^문, 광고^문, 의식^화 등
	nc/ko	15	15	국어^교육, 귀납^추리, 자연^현상 등
	nc/ch^nc/ch	15	14	넋, 말, 모듬, 읽기, 마무리 등
	nc/ko^nc/ko	5	5	손^짓, 느낌^말, 머리^글 등

먼저 형태 결합 관계를 살펴보면 ‘보통명사’ 유형이 주를 이룬다. 신중진 외(2015, 2016)에서 연구한 수학과 물리 교과의 AA(Aa)형은 ‘보통명사+보통명사’의 결합이 가장 두드러졌는데, 국어 교과(문법, 문학, 기능교육)는 ‘보통명사’ 유형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그리고 원어 결합 관계에서는 한자어의 사용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전체적으로 한자어 보통명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능교육 분야에서 Aa형은 AA형의 형태·원어 결합 관계와 거의 일치하고, 두 음법칙에서 차이를 보인다. 두 음법칙으로 인해 차이를 보이는 용어는 ‘논거(남)-론거(북), 논리-론리, 논박-론박, 논쟁-론쟁, 논리^성-론리^성, 논문-론문, 약호-략호, 이해-리해’ 등이 나타났다.

나) AB형

남북 기능교육 용어 중에서 AB형은 35개로 나타났다. 남북 용어에 차이를 보이는 AB형의 형태 및 원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7> 기능교육 분야 AB형 형태 및 원어

형태				원어			
남측 형태	빈도	북측 형태	빈도	남측 원어	빈도	북측 원어	빈도
보통명사(nc)	54	보통명사(nc)	57	한자어(ch)	45	한자어(ch)	40
접미사(xs)	3	접미사(xs)	2	고유어(ko)	14	고유어(ko)	28
용언의명사형(vn)	2	용언의명사형(vn)	2	외래어(ie)	3		
용언의관형형(va)	1	용언의관형형(va)	2				
의존명사(nb)	1	조사(pa)	2				
어근적형태소(mm)	1	의존명사(nb)	2				
		용언의연결형(vc)	1				

위 표에 제시된 AB형의 형태 및 원어를 AA(Aa)형과 비교하면 큰 차이는 없다. 즉 보통명사와 한자어가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남북의 원어 사용을 비교해 보면, 남측은 한자어가 45개, 고유어가 14개, 외래어가 3개이고, 북측은 한자어가 40개, 고유어가 28개, 외래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남측이 북측보다 외래어 사용이 많음을 알 수 있고, 기능교육 분야에서는 남측에서도 고유어 사용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형태 및 원어가 어떠한 결합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8> 기능교육 분야 남측 AB형의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

	유형	빈도	예
형태 결합 (8개 유형)	nc [^] nc	16	구성 [^] 단위, 내용 [^] 조직, 글 [^] 쓰기 등
	nc	11	본론, 쓰기, 번역, 이유 등
	vn [^] nc	2	맺음 [^] 말, 쉽 [^] 표
	nc [^] xs	2	감상 [^] 문, 연결 [^] 어
원어 결합 (8개 유형)	nc [^] xs [^] nc	1	구어 [^] 적 [^] 표현
	ch [^] ch	13	인용 [^] 부호, 핵심 [^] 내용, 중심 [^] 내용 등
	ch	9	어투, 유추, 음색, 휴지 등
	ko [^] ch	4	그림 [^] 표, 말하기 [^] 목적, 아랫 [^] 주 등
형태/원어 결합 (14개 유형)	ko [^] ko	3	글 [^] 쓰기, 머리 [^] 말, 맺음 [^] 말
	ch [^] ch [^] ch	2	내용 [^] 전개 [^] 방식, 구어 [^] 적 [^] 표현
	nc/ch [^] nc/ch	10	삼단 [^] 추리, 직접 [^] 수집, 의문 [^] 부호 등
	nc/ch	9	서론, 유추, 귀납, 이유 등
	nc/ko [^] nc/ch	3	그림 [^] 표, 말하기 [^] 목적, 아랫 [^] 주
	nc/ko [^] nc/ko	2	글 [^] 쓰기, 머리 [^] 글
	nc/ch [^] xs [^] ch	2	감상 [^] 문, 연결 [^] 어

위의 표는 남측의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를 보여준다. 남측의 형태 결합 관계를 보면 ‘보통명사^보통명사, 보통명사, 명사형^보통명사’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인다. 원어 결합 관계를 살펴보면, ‘한자어^한자어, 한자어, 고유어^한자어’ 순으로 나타난다. 형태와 원어 결합 관계를 보면, ‘보통명사/한자어^보통명사/한자어, 보통명사/한자어’의 구성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북측 AB형의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를 제시한 것이다.

<표 49> 기능교육 분야 북측 AB형의 형태·원어적 결합 관계

유형		빈도	예
형태 결합 (11개 유형)	nc^nc	18	귀납^추리, 기본^글, 소리^빛깔 등
	nc	8	근거, 종자, 도식, 반점 등
	vn	1	끓기
	nc^nb	1	추려^읽기
	nc^nc^nb	1	맺는^글
원어 결합 (9개 유형)	ch^ch	11	연역^추리, 내용^체계, 서술^순서 등
	ko^ko	8	글^짓기, 맺는^글, 추려^읽기 등
	ch	8	종자, 도식, 도표, 각주, 반점 등
	ko^ch	3	말^투, 물음^표, 이야기^목적
	ko	1	입^말^투
형태/원어 결합 (14개 유형)	nc/ch^nc/ch	10	삼단^론법, 기본^내용, 구성^부분 등
	nc/ch	8	근거, 종자, 반점, 작문, 각주 등
	nc/ko^nc/ko	5	머리^글, 소리^빛깔, 느낌^글 등
	nc/ko^nc/ch	2	물음^표, 이야기^목적
	vn/ko	1	끓기

북측 역시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데, 형태 결합에서는 ‘보통명사^보통명사, 보통명사’ 순으로 남측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원어 결합 구조를 살펴보면, 한자어 사용 못지않게 고유어 사용도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형태와 원어 결합 구조에서는 ‘보통명사/한자어^보통명사/한자어, 보통명사/한자어, 보통명사/고유어^보통명사/고유어’의 결합 관계 순으로 빈도를 보였다.

남북측 AB형에서 특징적인 것은 ‘보통명사^보통명사’ 구성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AA형은 ‘보통명사’의 구성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반면에, AB형은 ‘보통명사^보통명사’처럼 2개의 조어 단위가 결합한 형태가 높은 빈도를 보였다.

3.3 핵심 조어 단위와 그 빈도

이 절에서는 3.1과 3.2에서 드러난 국어 교과 전문용어의 특징을 살펴본다. 이를 토대로 각 분야의 핵심 조어 단위와 그 빈도에 대해 고찰한다. 핵심 조어 단위들은 전문용어 형성에 있어 가장 활발히 사용되는 생산성을 가진 조어 단위들이다.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은 이 핵심 조어 단위들의 우선적인 통합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3.1 국어 교과의 분야별 전문용어의 특징

1) 문법 분야

문법 분야는 국어 교과에서 조사된 총 2,200개의 어휘 중에 가장 높은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다. 조어 단위 분석 결과, 적게는 1개의 조어 단위부터 가장 많게는 9개의 조어 단위까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학과 기능교육 분야에서 출현하지 않은 7개 이상의 조어 단위 구성이 나타났는데, 7개의 조어 단위 구성을 보이는 용어는 ‘입음[^]의[^]상[^]토[^]가[^]붙은[^]동사, 조선[^]어[^]의[^]라틴[^]글자[^]표기[^]법’이고, 9개의 조어 단위 구성을 보이는 용어는 ‘듣는[^]사람[^]을[^]조금[^]높여서[^]말할[^]때[^]쓰는[^]토’이다. 이들은 모두 남북측이 다른 AB형으로 북측 용어에 해당한다. 7개의 조어 단위 구성을 보이는 ‘입음[^]의[^]상[^]토[^]가[^]붙은[^]동사’는 남측의 ‘피동사’와 대응되는 용어이고, ‘조선[^]어[^]의[^]라틴[^]글자[^]표기[^]법’은 남측의 ‘로마자 표기법’과 대응되는 용어이다. 9개의 조어 단위 구성을 보이는 ‘듣는[^]사람[^]을[^]조금[^]높여서[^]말할[^]때[^]쓰는[^]토’는 남측의 ‘하오체’에 대응되는 용어이다. 이처럼 북측은 조어 단위의 결합이 늘어나더라도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려는 양상을 보인다.

남북의 문법 용어는 일반적으로 2개의 조어 단위가 결합하여 전문용어를 형성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2개 조어 단위로 구성된 전문용어가 전체 분포의 58.9%를 차지한다. 이러한 현상은 수학과 물리 교과에서도 보이는 현상이다.

문법 분야의 조어 단위 분석 결과, AA형은 ‘보통명사’의 구성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반면에 AB형은 ‘보통명사[^]보통명사’처럼 2개의 조어 단위가 결합한 형태가 높은 빈도를 보였다. AA형에서 ‘보통명사’의 구성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점은 국어 교과의 특징으로, 수학과 물리 교과에서는 AA형에서도 ‘보통명사[^]보통명사’ 구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측이 동일하게 사용하는 AA형에서 생산성이 높은 접미사들을 볼 수 있었는데, ‘가[^]주어, 고립[^]어, 공용[^]어, 단의[^]어, 민족[^]어, 상위[^]어, 수식[^]어, 인용[^]어, 차용[^]어, 친족[^]어’ 등처럼 접미사 ‘-어’가 결합한 형태, ‘가정[^]법, 맞춤[^]법, 부정[^]법,

표기[^]법, 한글[^]맞춤[^]법' 등처럼 '-법'이 결합한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 밖에 '구어[^]문, 도치[^]문, 복합[^]문, 부정[^]문, 완전[^]문' 등의 '-문'과 '문법[^]론, 문장[^]론, 의미[^]론' 등의 '-론'도 생산성이 높았다. 그리고 '고유[^]명사, 관계[^]대[^]명사, 단위[^]명사, 대[^]명사, 불[^]규칙[^]동사, 감동[^]사, 양태[^]부사, 접속[^]부사, 형용[^]사' 등 품사와 관련된 형태가 많았다.

남북측이 다르게 사용하는 AB형을 중심으로 용어상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측에서 한자어로 사용되는 용어가 북측에서는 고유어로 쓰이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다의(남)-한[^]단어[^]의[^]여러[^]뜻(북), 마찰[^]음(남)-스침[^]소리(북), 접두[^]사(남)-앞[^]붙이(북)'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문학 분야

문학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는 일반적으로 1~2개의 조어 단위가 결합하여 전문용어를 형성하였다. 1개 조어 단위와 2개 조어 단위로 구성된 전문용어가 전체 분포의 89%를 차지한다. AA(Aa)형은 1개 조어 단위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AB형은 2개 조어 단위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1~2음절로 구성된 조어 단위가 다른 조어 단위와 결합하여 새로운 전문용어를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시, 법, 체, 성, 론, 문, 말, 문학, 소설, 작품' 등의 형태가 생산성이 높았다. '시'의 경우는 '고체[^]시, 근체[^]시, 교훈[^]시, 단형[^]시, 산문[^]시, 서사[^]시, 서정[^]시, 자유[^]시, 원전[^]시, 정형[^]시, 즉흥[^]시, 칠언[^]시, 풍자[^]시, 배울[^]시, 연애[^]시, 대화[^]시, 자연[^]시, 풍경[^]시' 등이 사용되었다. '법'과 '체'도 생산성이 높는데, '법'은 '강조[^]법, 과장[^]법, 대구[^]법, 대위[^]법, 변화[^]법, 비유[^]법, 상징[^]법, 수사[^]법, 은유[^]법, 의인[^]법, 점층[^]법, 직유[^]법, 열거[^]법, 각운[^]법, 별립[^]법, 대조[^]법, 두운[^]법, 반복[^]법' 등의 표현법이 두드러진다. '체'는 '가전[^]체, 간결[^]체, 강건[^]체, 건조[^]체, 경기[^]체, 내간[^]체, 만연[^]체, 산문[^]체, 잠언[^]체, 화려[^]체, 논설[^]체, 대화[^]체, 서간[^]체, 소설[^]체' 등의 문체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원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한자어의 사용이 월등히 높았다. 북측은 남측보다 외래어를 덜 사용하고 있었다. 남측의 '리브레토, 모놀로그, 에세이, 리얼리즘, 플롯' 등의 외래어를 북측에서는 '가극, 독백, 수필, 사실주의, 구성' 등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남측의 한자어를 북측에서는 고유어로 사용한 예도 많이 보이는데, '결말(남)-마감(북), 각운(남)-꼬리[^]운(북), 두운(남)-머리[^]운(북), 원관념(남)-비겨[^]지는[^]말(북)'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기능교육 분야

남북의 기능교육 분야의 용어는 일반적으로 1~2개의 조어 단위가 결합하여 전문용어를 형성하였다. 1개 조어 단위와 2개 조어 단위로 구성된 전문용어가 전체 분포의 97.1%를 차지한다. 그중 1개의 조어 단위가 결합된 전문용어가 62.8%를 차지하고 있는데, ‘보통명사’의 단일 조어 단위가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다.

기능교육 분야에서도 문법과 문학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AA형은 ‘보통명사’의 구성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반면에, AB형은 ‘보통명사^보통명사’처럼 2개의 조어 단위가 결합한 형태가 높은 빈도를 보였다. 신중진 외(2015, 2016)에서 연구한 수학과 물리의 AA(Aa)형은 ‘보통명사+보통명사’의 결합이 가장 두드러졌는데, 국어 교과는 문법, 문학, 기능교육 모두 AA(Aa)형에서 ‘보통명사’ 유형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여 다른 교과와 차이를 나타냈다.

기능교육에서는 ‘관찰^일기, 느낌^말, 다독, 다작, 듣기’ 등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의 언어활동과 관련된 용어가 가장 많았다. 또한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용어들이 문법, 문학보다 더 많았으나, 그 개수는 저조하였다.

Aa형에서 나타나는 조어 단위 분석의 차이는 문법, 문학과 마찬가지로 ‘의’의 사용 여부에서 기인한다. 남북이 Aa형에서도 형태 표지와 원어 표지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신문^기사(남)-신문^의^기사(북)’에서 차이를 보였다. 기능교육 분야의 Aa형은 대부분이 두음법칙에 의한 차이로 나타났다. 두음법칙으로 인해 차이를 보이는 용어는 ‘논거(남)-론거(북), 논리-론리, 논박-론박, 논쟁-론쟁, 논리^성-론리^성, 논문-론문, 약호-략호, 이해-리해’ 등이다.

3.3.2 분야별 핵심 조어 단위

각 전문 분야에는 전문용어 조어에 있어 핵심이 되는 조어 단위들이 있다. 이 조어 단위들은 전문용어 형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남북의 전문용어를 통합할 때, 이 조어 단위들의 대응 관계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통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국어 교과의 분야별 핵심 조어 단위들을 빈도순으로 정리하여 50위까지 제시한 것이다.

<표 50> 국어 교과 분야별 전문용어의 핵심 조어 단위 빈도(남측)

순위	문법	빈도	문학	빈도	기능교육	빈도
1	어08xs/ch	107	적18xs/ch	64	성17xs/ch	11
2	소리nc/ko	42	문학nc/ch	45	글nc/ko	10
3	법03xs/ch	41	소설nc/ch	35	문11xs/ch	10

4	명사nc/ch	40	범03xs/ch	30	말01nc/ko	6
5	모음nc/ch	40	시13nc/ch	30	적18xs/ch	5
6	음04nc/ch	36	체10xs/ch	26	내용nc/ch	4
7	말01nc/ko	34	성17xs/ch	22	논리nc/ch	4
8	형07xs/ch	33	주의nc/ch	13	기사nc/ch	3
9	격01nc/ch	27	서정nc/ch	10	느낌nc/ko	3
10	언어nc/ch	26	인물nc/ch	9	신문nc/ch	3
11	문11xs/ch	24	극04nc/ch	8	자30xs/ch	3
12	사43xs/ch	23	묘사nc/ch	8	표05nc/ch	3
13	어미nc/ch	23	서사nc/ch	8	호소nc/ch	3
14	학07xs/ch	23	신화nc/ch	8	성17xs/ch	3
15	조사nc/ch	20	작품nc/ch	8	주의nc/ch	3
16	부사nc/ch	19	고전nc/ch	7	감상nc/ch	2
17	표05nc/ch	19	글nc/ko	7	건의nc/ch	2
18	문법nc/ch	18	문11xs/ch	7	관찰nc/ch	2
19	방언nc/ch	18	풍자nc/ch	7	광고nc/ch	2
20	활용nc/ch	18	감정nc/ch	6	교육nc/ch	2
21	대Xmm/ch	17	구성nc/ch	6	구성nc/ch	2
22	규칙nc/ch	16	문예nc/ch	6	귀납nc/ch	2
23	문자nc/ch	16	문체nc/ch	6	기호nc/ch	2
24	동사nc/ch	15	배경nc/ch	6	능력nc/ch	2
25	음운nc/ch	14	산문nc/ch	6	단위nc/ch	2
26	자음nc/ch	14	시가nc/ch	6	독서nc/ch	2
27	체10xs/ch	14	운08nc/ch	6	력02xs/ch	2
28	론03xs/ch	13	의pa/ko	6	말하기nc/ko	2
29	화16xs/ch	13	전기12nc/ch	6	머리nc/ko	2
30	국어nc/ch	12	가사10nc/ch	5	문답nc/ch	2
31	불15-xp/ch	12	사회nc/ch	5	보고nc/ch	2
32	의미nc/ch	12	예술nc/ch	5	본론nc/ch	2
33	적18xs/ch	12	의인nc/ch	5	부호nc/ch	2
34	문장nc/ch	11	갈등nc/ch	4	삼단nc/ch	2
35	사전nc/ch	11	교훈nc/ch	4	서Xmm/ch	2
36	씨nc/ko	11	기법nc/ch	4	쓰기nc/ko	2
37	합성nc/ch	11	대조nc/ch	4	이유nc/ch	2
38	동화02nc/ch	10	대화nc/ch	4	전제nc/ch	2
39	반17-xp/ch	10	반복nc/ch	4	제목nc/ch	2
40	성17xs/ch	10	사상nc/ch	4	추리nc/ch	2
41	음절nc/ch	10	설화nc/ch	4	토론nc/ch	2
42	인칭nc/ch	10	수사16nc/ch	4	투nb/ch	2
43	과생nc/ch	10	시대nc/ch	4	력02xs/ch	2
44	구개nc/ch	9	역사nc/ch	4	세계nc/ch	2
45	전성nc/ch	9	표현nc/ch	4	이상nc/ch	2
46	관계nc/ch	8	학07xs/ch	4	적18xs/ch	2

47	성분nc/ch	8	형상nc/ch	4	각주nc/ch	1
48	의pa/ko	8	화16xs/ch	4	간결nc/ch	1
49	형용nc/ch	8	가요nc/ch	3	감화nc/ch	1
50	관형mm/ch	7	고려npp/ch	3	강연nc/ch	1

<표 51> 국어 교과 분야별 전문용어의 핵심 조어 단위 빈도(복측)

순 위	문법	빈도	문학	빈도	기능교육	빈도
1	소리nc/ko	103	적18xs/ch	62	글nc/ko	14
2	어08xs/ch	84	문 학nc/ch	44	성17xs/ch	11
3	말01nc/ko	68	소설nc/ch	38	문11xs/ch	9
4	토03nc/ko	51	시13nc/ch	33	말01nc/ko	8
5	명사nc/ch	42	법03xs/ch	31	적18xs/ch	5
6	법03xs/ch	42	체10xs/ch	25	느낌nc/ko	4
7	모음nc/ch	41	주의nc/ch	22	론리(논리)nc/ch	4
8	의pa/ko	37	성17xs/ch	21	추리nc/ch	4
9	문11xs/ch	29	서정nc/ch	10	투nb/ch	4
10	언어nc/ch	27	운08nc/ch	9	표05nc/ch	4
11	뜻nc/ko	24	작품nc/ch	9	기사nc/ch	3
12	형07xs/ch	22	극04nc/ch	8	력02xs/ch	3
13	적18xs/ch	21	글nc/ko	8	머리nc/ko	3
14	표05nc/ch	19	묘사nc/ch	8	반점nc/ch	3
15	학07xs/ch	19	문11xs/ch	8	신문nc/ch	3
16	격01nc/ch	18	문예nc/ch	8	자30xs/ch	3
17	단어nc/ch	18	전기12nc/ch	8	호소nc/ch	3
18	대Xmm/ch	18	가요nc/ch	7	성17xs/ch	3
19	동사nc/ch	18	고전nc/ch	7	주의nc/ch	3
20	문법nc/ch	18	사실nc/ch	7	각주nc/ch	2
21	자음nc/ch	18	사회nc/ch	7	건의nc/ch	2
22	되기vn/ko	17	서사nc/ch	7	관찰nc/ch	2
23	방언nc/ch	17	예술nc/ch	7	광고nc/ch	2
24	론03xs/ch	16	의인nc/ch	7	교육nc/ch	2
25	부사nc/ch	16	인물nc/ch	7	구성nc/ch	2
26	사43xs/ch	15	풍자nc/ch	7	귀납nc/ch	2
27	된X-xp/ko	14	구성nc/ch	6	근거nc/ch	2
28	조선npp/ch	14	문 체nc/ch	6	기본nc/ch	2
29	문 장nc/ch	12	산문nc/ch	6	기 호nc/ch	2
30	반17-xp/ch	12	가사10nc/ch	5	내용nc/ch	2
31	음04nc/ch	12	감정nc/ch	5	도표nc/ch	2
32	뒤01nc/ko	11	론03xs/ch	5	독서nc/ch	2
33	맺음vn/ko	11	론설(논설)nc/ch	5	론법(논법)nc/ch	2

34	사전nc/ch	11	시가nc/ch	5	문답nc/ch	2
35	성17xs/ch	11	학07xs/ch	5	물음nc/ko	2
36	상11nc/ch	10	형상nc/ch	5	보고nc/ch	2
37	앞nc/ko	10	화16xs/ch	5	삼단nc/ch	2
38	점10nc/ch	10	교훈nc/ch	4	서Xmm/ch	2
39	체10xs/ch	10	대화nc/ch	4	서술nc/ch	2
40	글자nc/sk	9	력사(역사)nc/ch	4	의pa/ko	2
41	답기vn/ko	9	배경nc/ch	4	이야기nc/ko	2
42	바꿈vn/ko	9	사상nc/ch	4	읽기nc/ko	2
43	발음nc/ch	9	설화nc/ch	4	입nc/ko	2
44	수사25nc/ch	9	신화nc/ch	4	자료nc/ch	2
45	용언nc/ch	9	영화nc/ch	4	작문nc/ch	2
46	음운nc/ch	9	이야기nc/ko	4	전체nc/ch	2
47	이음nc/ko	9	장면nc/ch	4	제목nc/ch	2
48	인칭nc/ch	9	장편nc/ch	4	체계nc/ch	2
49	관계nc/ch	8	전설04nc/ch	4	토론nc/ch	2
50	마디nc/ko	8	주인공nc/ch	4	력02xs/ch	2

다음은 문법, 문학, 기능교육 분야를 통합하여 국어 교과 전체 전문용어의 핵심 조어 단위들을 빈도순으로 정리하여 150위까지 제시한 것이다.

<표 52> 국어 교과 전문용어의 핵심 조어 단위 빈도(남북측 통합)

순위	형태	빈도	순위	형태	빈도	순위	형태	빈도
1	어08xs/ch	192	51	구조nc/ch	18	101	풀이nc/ko	12
2	적18xs/ch	173	52	국어nc/ch	18	102	괄호nc/ch	11
3	범03xs/ch	146	53	느낌nc/ko	18	103	법칙nc/ch	11
4	소리nc/ko	146	54	묘사nc/ch	18	104	복합nc/ch	11
5	말01nc/ko	118	55	불15-xp/ch	18	105	시가nc/ch	11
6	성17xs/ch	92	56	의미nc/ch	18	106	시킴vn/ko	11
7	문학nc/ch	89	57	점10nc/ch	18	107	쌍02nc/ch	11
8	문11xs/ch	87	58	활용nc/ch	18	108	씨nc/ko	11
9	명사nc/ch	82	59	입nc/ko	17	109	앞nc/ko	11
10	모음nc/ch	81	60	작품nc/ch	17	110	완전nc/ch	11
11	체10xs/ch	77	61	극04nc/ch	16	111	음절nc/ch	11
12	소설nc/ch	73	62	끝01nc/ko	16	112	입술nc/ko	11
13	시13nc/ch	63	63	서사nc/ch	16	113	자30xs/ch	11
14	언어nc/ch	57	64	성분nc/ch	16	114	자연nc/ch	11
15	의pa/ko	56	65	인물nc/ch	16	115	전성nc/ch	11
16	형07xs/ch	55	66	사회nc/ch	15	116	주어nc/ch	11
17	토03nc/ko	54	67	수사25nc/ch	15	117	파생nc/ch	11

18	학07xs/ch	51	68	용언nc/ch	15	118	표기nc/ch	11
19	음04nc/ch	48	69	운08nc/ch	15	119	가사10nc/ch	10
20	글nc/ko	46	70	형용nc/ch	15	120	가요nc/ch	10
21	격01nc/ch	45	71	고전nc/ch	14	121	대18-xp/ch	10
22	주의nc/ch	45	72	구05nc/ch	14	122	대화nc/ch	10
23	표05nc/ch	45	73	기본nc/ch	14	123	동화02nc/ch	10
24	사43xs/ch	38	74	목적nc/ch	14	124	력사역사nc/ch	10
25	론03xs/ch	37	75	문예nc/ch	14	125	머리nc/ko	10
26	문법nc/ch	36	76	물음nc/ko	14	126	바꿈vn/ko	10
27	대Xmm/ch	35	77	발음nc/ch	14	127	배경nc/ch	10
28	방언nc/ch	35	78	진기12nc/ch	14	128	보조nc/ch	10
29	부사nc/ch	35	79	체계nc/ch	14	129	부호nc/ch	10
30	동사nc/ch	33	80	풍자nc/ch	14	130	사실nc/ch	10
31	자음nc/ch	32	81	형식nc/ch	14	131	상11nc/ch	10
32	화16xs/ch	29	82	형태nc/ch	14	132	세계nc/ch	10
33	뜻nc/ko	28	83	구개nc/ch	13	133	요소nc/ch	10
34	구성nc/ch	25	84	뒤01nc/ko	13	134	의문nc/ch	10
35	문자nc/ch	24	85	력02xs/ch	13	135	인용nc/ch	10
36	사전nc/ch	24	86	변화nc/ch	13	136	자14nc/ch	10
37	단어nc/ch	23	87	어휘nc/ch	13	137	종속nc/ch	10
38	문장nc/ch	23	88	이음nc/ko	13	138	지시nc/ch	10
39	어미nc/ch	23	89	표현nc/ch	13	139	직접nc/ch	10
40	음운nc/ch	23	90	감정nc/ch	12	140	태12nc/ch	10
41	인칭nc/ch	23	91	과거nc/ch	12	141	감탄nc/ch	9
42	관계nc/ch	22	92	맺음vn/ko	12	142	거센va/ko	9
43	반17-xp/ch	22	93	문체nc/ch	12	143	겹01nc/ko	9
44	규칙nc/ch	21	94	산문nc/ch	12	144	관형mm/ch	9
45	된X-xp/ko	21	95	서술nc/ch	12	145	교체nc/ch	9
46	조사nc/ch	21	96	신화nc/ch	12	146	구어nc/ch	9
47	되기vn/ko	20	97	예술nc/ch	12	147	규범nc/ch	9
48	서정nc/ch	20	98	의인nc/ch	12	148	글자nc/sk	9
49	조선npp/ch	20	99	접속nc/ch	12	149	단위nc/ch	9
50	합성nc/ch	19	100	탈락nc/ch	12	150	답기vn/ko	9

IV.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과 방향

1.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 기준과 그 적용

이전의 2016년 《남북 전문용어 구축》 사업에서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을 위한 일반 지침을 수립하였다. 본 사업에서도 통합의 큰 방향과 기준을 따르되 국어 분야에 특징적인 세부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작년에 제시한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 지침은 첫째, 일반적인 전문용어의 정비 원리에 의거하여 ‘표준화’와 더불어 ‘조화(harmonization)’의 원리를 추구할 것을 언급하였다. ISO 860 (2007:1)에 의하면, 조화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개념 조화(conceptual harmonization):

직업적, 기술적, 과학적, 사회적, 경제적, 언어적, 문화적 또는 다른 차이점을 보이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연관된 개념들이나 겹치는 개념들에 대해서 그들 간의 작은 차이점들을 제거하거나 줄임으로써 상호 대응관계를 수립하는 활동.

즉, 언어의 차원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사회, 문화, 경제, 학술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차이가 나는 전문용어들 간의 통합 방안으로서 그 차이는 당연한 것이되 그것에 천착하기보다는 대응성을 확보하여 소통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이언어 전문용어를 번역하는 데에 필연적인 시각임과 동시에 수년 간 사회, 문화, 언어적 관습의 단절을 겪은 남북측의 언어 생태계에도 적용가능한 관점이다. 특히 서로 독특한 개념사를 발전시켜온 국어 분야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전문용어 표준화의 기준인 ①투명성, ②일의성, ③일관성 등의 기준을 적용함과 동시에 조화의 원리에 따라서 단순히 언어 형태의 차이가 아닌 개념 체계의 차이를 반영하는 남북 전문용어들에 대해 무리한 일원화를 실행하지 않고 그 대응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차후 남과 북의 활발한 학술적 교류의 장이 마련되어 개념 간의 논의와 합의, 조정이 이루어질 때 학문의 발전과 용어의 안정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로, 남북 전문용어는 남북의 일반 언어 통합 방안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표기법, 외래어에 대한 정책 등은 전문용어 통합안보다 상위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후속적으로 이를 따라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본 사업에서는 이전의 《남북 기초 전문용어 구축》, 《남북 전문용어 구축》 사업의 관점을 이어받아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두음법칙, 사이시옷 등과 관련한 표기상 다른 형태들을 이질적 용어(AB형)로 보지 않고 충분히 표준화할 수 있는 동질적

용어(Aa형)으로 간주한다.

셋째로, 전문용어는 우리말을 양적 그리고 질적 측면에서 모두 풍부히 하는 요소임을 인식하고 지식과 개념 체계의 이해, 전달의 도구이자 교육의 핵심 요소라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남북 전문용어 정비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초·중·고등교육 부문과 직업 현장에서의 전문용어는 앞서 말한 통일 언어의 풍부화와 진흥을 담당할 기반이 될 것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끈기 있게 진행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분야의 전문용어는 ④문법성, ⑤윤리·미학적성, ⑥친숙성, ⑦고유성, ⑧경제성 등의 기준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1.1 통합 기준의 유형 및 개념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안을 도출하기 위해 용어의 품질과 적정성 등을 판별할 판정 기준을 우선 마련하고자 한다. 이 판정 기준은 ISO 704 (2009)의 전문용어 형성 기준 및 국내의 전문용어 정리 기준에 대한 여러 연구²⁴⁾를 참조하여 총 8개의 기준을 수립하였다.

선행연구	투명성	친숙성	정확성	일의성	문법성	경제성	일관성	고유성	생산성	국제성	윤리미학적성
ISO 704 (TC37)	●		●	●	●	●	●	●	●		
조은경 (2001)		●		●	●	●					
남북 용어 통일화 원칙	●	●			●		●	●			
고석주 외 (2007)	●		●	●	●	●	●				●
일본 전문용어 선정기준	●			●			●		●	●	
전문용어 정비의 정량적 평가	●	●		●	●			●			
김문오 (2007)	●	●				●		●			
프랑스어 용어위원회	●	●		●					●		

[그림 20] 기존 전문용어의 통합 기준

8개의 통합안 판정 기준은 ① 문법성, ② 윤리·미학적성, ③ 투명성, ④ 일의성, ⑤ 친숙성, ⑥ 경제성, ⑦ 고유성, ⑧ 일관성이다. 이 중 처음 두 기준, 즉 문법성과 윤리·미학적성은 가장 기본이 되는 속성으로서 본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적절한 전문용어로서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문법성’과 ‘윤리·미학적성’

24) 대표적으로 최기선 (2000ㄱ, 2000ㄴ), 조은경(2001), 고석주 외(2007), 김문오(2007), 이현주(2007ㄱ) 등이 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신중진 외 (2015)를 참고할 것.

의 기준은 가장 필수적인 요인으로서 다른 기준보다 우선시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 기준은 전문분야에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용어로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겠다. 이러한 기준을 ‘필터 기준’이라 부르고, 이 기준에 위배될 경우 다른 기준들에 대한 분석을 추가로 더 진행하지 않는다.

위의 필터 기준 외에는 투명성, 일의성, 친숙성, 경제성, 고유성, 일관성을 위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 6가지 기준은 위의 전문용어 앞의 필터 기준과 달리 남북 용어쌍에 대해 비교우위를 산출해 부여하고 기준의 위계에 따라 상위 층위에 놓인 기준에 부합하는 용어가 선택된다. 우선, 각 기준에 대해서는 남북 전문용어 비교를 통해 >, <, = 등의 비숫값을 산출하고 제시한다. 위계의 순서에 따라 맨 위의 부등호 값이 최종 선정된다. 또한 본 기준의 순서는 각 전문분야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그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연과학 분야의 용어는 용어의 개념 체계를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투명성’과 ‘일관성’이 위계의 맨 위에 올 수 있다. 반면, 일상생활에 보다 가까운 분야의 경우는 그 체계성보다 손쉽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경제성, 친숙성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6가지 기준의 위계가 <투명성-경제성-고유성-친숙성-일관성-일의성>의 순서일 경우 투명성에서 남측 용어가 우세할 때 이 용어를 통합안으로 선정하게 된다.

각 기준들의 속성은 아래와 같다.

1.1.1 필터 기준

1) 문법성

문법성 기준이란 형태론적, 통사론적, 음운론적 규범을 따르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우선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즉, 구성 부분의 배열 방식이 국어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법과 같나, 국어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에 어긋나냐(남기심·고영근, 1993)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통사적 합성, 비통사적 합성의 문제를 포함한다. 또한 문법성은 어문 규정 준수 여부와도 연관되는데, 남북의 어문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문 규정의 통일이 우선되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문법성은 언어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는 약간의 어색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한국어 어문 규정이나 한국어 문법의 준수 입장에서 볼 때는 필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2) 윤리·미학적

윤리·미학적 기준이란, 비속의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과 더 미학적으로

곱게 다듬어진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그렇지 않은 것보다 우선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동음어가 윤리·미학성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가령, 한 식물을 가리키는 용어가 ‘지치’와 ‘자지(紫芝)’가 있을 때, 후자는 동음어에 금기어가 있으므로 윤리·미학성에서 유리한 ‘지치’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윤리·미학성 기준은, 교과서에 용어가 실릴 시에 저속한 표현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이상의 두 기준은 교육용 전문용어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기준으로 상정하였고 이를 필터 기준이라 부르고자 한다.

1.1.2 위계 기준

1) 투명성

투명성의 기준이란, 그 용어만 보고서도 용어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 것을 그렇지 않은 것보다 우선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즉, 그 용어를 보았을 때, 그 의미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비유적인 뜻이나 관용적인 뜻으로 해석된다면 불투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용어가 의미를 모두 담고 있지 않을 때나 의미 이상을 담고 있어도 불투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적용의 융통성을 허용하도록 한다. 의미를 정확하게 담고 있는 용어가 가장 투명할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기에, 의미를 되도록 정확하게 지시하는 용어를 골라도 투명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투명성은 용어만 보고도 어휘를 알 수 있기에, 용어를 쉽게 학습할 수 있게 하고, 용어의 사용도 편리하게 한다. 교육 현장에서는 전문용어의 사용보다는 이해와 학습이 중요한데, 그 용어를 보고도 그 내용을 추측할 수 있고, 게다가 그것을 명확히 이해시키기까지 한다면,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큰 교육 효과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투명성은 전문용어의 의미가 문맥에 좌우되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러한 유용성이 있기에 투명성을 그간 많은 전문용어 연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위의 선행 연구에서 전문용어의 특징으로 가장 많이(총 8회 중 7회) 기술되었다.

2) 일의성

일의성의 기준이란, 한 용어가 한 개념에 대응되는 것을 그렇지 않은 것보다 우선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즉, 하나의 언어 형식이 하나의 의미만 가진 것을, 하나의 언어 형식이 여러 의미를 가진 것보다 우선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동음어·다의어가 없는 전문용어를 동음어·다의어가 있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일의성의 선정 근거는 ‘동의어의 한 쪽이 동음 관계에 놓여 있을 경우 충돌 과정에서 불리하다.’는 동음 회피의 원리(임지룡, 1992: 144)에 기대고 있다. 임지룡(1992: 144)은 동음어가 있는 어휘소는 한편으로 형태의 측면에서 동음어와 경쟁을 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 의미의 측면에서 동의어와 충돌하게 되므로 경쟁에서 밀려나게 될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하였다. 결국 동음어가 있는 것은 동음어가 없는 것보다 힘이 약하므로, 동음어가 없는 것을 더 우선하여 선택하도록 한다. 동의어도 이에 준한다.

일의성을 선정한 또 다른 이유는, 판정하는 데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실제 분석에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의성은 기존 연구(총 8회)에서 등장하는 순위로는 6회로 투명성에 이어서 2위에 올라 있다.

3) 친숙성

친숙성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진 전문용어를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전문용어보다 우선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더 많이 사용되는 용어를 덜 사용되는 용어보다 우선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용어를 그렇지 않은 용어보다 우선시한다는 것이다.

친숙성을 바탕으로 그 전에 알고 있던 용어를 선택하면, 새로운 용어를 외울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경제적이다. 의미가 어려운 전문용어를 그 용어마저도 어렵게 배우는 것보다 더 쉽게 배운다는 점에서 친숙성은 강점이 있고, 선정할 근거가 있다. 또한 친숙성은 일반 사람들에게 의하여 다듬어져서 선택되었다는 점에서도 그 용이성이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친숙성은 인간 인지의 경제성에 기대고 있고 그 용이성이 사회적으로 검증이 된 만큼 높은 우선순위를 기대할 만하다. 실제로 친숙성은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순위가 5회로 투명성, 일의성 다음으로 3순위에 올라 있다. 그런데 친숙성은 남북측 전문용어 통일의 주요 기준으로 두기에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 그 문제란, 남북측의 친숙성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남북이 70년 가까이 분단되어 각기 진행된 언어 변화에 따라서, 각기 친숙한 용어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남측에서 친숙함을 기준으로 내세우는 것은 남측의 친숙성만을 내세우게 되는 것이고, 그리하면 이후 남북측 용어 통일 논의를 할 때도 북측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은 분명한 일이다. 그러므로 남북측 모두가 친숙성에 동의하는 전문용어일 경우에만, 이 기준을 적용토록 한다. 친숙성은 위의 8개 선행연구 중 5회 언급되어 필터 기준으로 들어간 문법성과 함께 세 번째 순위에 올라 있다. 아래의 경제성, 고유성, 일관성은 모두 4회씩 언급되었다.

4) 경제성

경제성의 기준이란, 음절수가 짧은 용어를 긴 용어보다 우선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짧은 용어는 학습하거나 기억하기에 용이하다. 따라서 경제성을 선정한 이유는, 짧은 것이 기억하기에 쉽다는 인간의 기본적인 인지 능력에 기대는 바가 크다.

개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정보를 담는 것은 잉여적이다.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라는 그라이스의 대화 협력 원칙 중 양의 격률(The maxim of Quantity)을 따라서라도, 경제성은 필히 선정되어야 한다.

5) 고유성

고유성의 기준이란, 외래 전문용어를 자국어화한 정도를 표시하는 기준이다. 고유어나 한자어를 외래어나 외국어로 된 전문용어보다 우선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본 사업에서는 고유성 기준을 한자어와 외래어가 충돌하였을 때 한자어를 선택한다는 것까지 포함하여 광의의 기준으로 쓰도록 한다.

국제표준화기구의 담당 기술위원회인 TC37에서 지정한 전문용어의 정비 기준에서도 ‘모국어에 대한 선호도’라고 하여 고유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다른 언어로부터 도입된 차용어가 용어 형성의 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토착어 표현이 직접적인 외국어 차용어보다 우선적으로 선택되도록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고유성에 고유어뿐만 아니라 한자어도 고유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고 본 이유는 현재 북측에서도 전문용어의 경우 어색한 고유어보다 익숙한 한자어의 경우 이를 보존한다는 기조의 변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용어의 개념적 투명성과 경제성에 한자어 조어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현재 남북 전문용어 모두 한자어 조어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남북의 동일 형태 유형인 AA형에서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므로 남북 용어 통일의 현실적 문제와 맞물려 있는 것이기도 하다.

6) 일관성

일관성 기준이란, 개념의 체계와 용어의 체계가 일관된 방식으로 대응된 용어를 그렇지 않은 용어보다 우선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개념을 지칭할 때 동일한 형식을 갖춘 용어가 그렇지 않은 용어보다 우선적으로 선택된다는 것이다.

일관성의 기준은 한 학문 내의 체계를 세운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남북측 용어의 통일이 중요하다고 하여, 한 학문 내의 체계를 무시하고 중구난방으로 용어를 선정한다면, 그 용어를 사용하는 학계에서 외면당할 가능성이 높다. 남북의 용

어 통일안이 탁상공론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즉, 학문 내에 체계를 지켜서 실제 사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관성의 기준은 중요하다.

1.2 통합 기준의 적용

앞선 통합 기준들을 실제 남북 전문용어에 적용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경제성’을 제외한 모든 지표가 의미 차원에 속하는 상대적 가치를 띠고 있으며, 개인별, 지역별로 서로 달리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래에서는 각 기준을 적용하는 실제 방법론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본 사업에서 채택한 판정 기준을 다시 정리하자면 아래 <표 53>과 같다.

<표 53> 용어 판정 기준표

필터 기준	1. 문법성
	2. 윤리·미학적성
위계 기준	3. 투명성
	4. 일의성
	5. 친숙성
	6. 경제성
	7. 고유성
	8. 일관성

그러나 이 중에서 특히 투명성, 일의성, 친숙성, 일관성의 네 가지 기준은 각각의 남북 전문용어 목록만으로 판정할 수 없고 참조 자료 및 세부 방법론을 구축해야 한다.

첫째로, 각 전문용어의 정의와 동음어 및 다의어에 대한 뜻풀이 항목은 《표준국어대사전》과 《조선말대사전》을 참고한다. 둘째로, 친숙성의 판별을 위해서는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기초 어휘》 사전을 참조하여 본 어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를 비율로 환산하여 우위를 결정한다. 일관성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분야 내 전문 용어 목록을 대상으로 판단해야 하며, 각 전문분야의 용어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비교하여 도출한다.

아래는 실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판정문의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표 54> 용어 판정문 예시

기준	용어	판정 근거	남	북
			역행동화	울리닭기
필터 기준	문법성	① 두 용어 모두 문법성에 어긋나지 않음. ② ‘섞붙임’이 비통사적 합성어이므로 남측어 우세	① = ② >	
	윤리미 확성	비속성 없음, 미확성 동일		=
위계 기준	투명성	① “보다 “이 그 뜻()을 추론해내기 유리하므로, 남측어 우세 ② “와 “이라는 용어를 통해 그 의미()를 추론할 수 없으므로 판정 불가 ③ “과 “의 투명성 무승부	① > ② = ③ =	
	일의성	① 남측어 x개(동음어 x개+다의어 x개), 북측어 x개(동음어 x개, 다의어 x개)이므로 {남측어/북측어 우세/동일} ② 남측어 0개, 북측어 x개(동음어 x개, 다의어 x개)이므로 {남측어 우세/동일} ③ 북측어가 조선말대사전 표제어가 아니므로 판정 불가 ④ 남측어가 표준국어대사전 표제어가 아니므로 판정 불가	① >/= ② >/= ③ = ④ =	
	친숙성	① 남측어와 북측어에 기초어휘가 없으므로 동일 ② 용어 내 기초어휘 비율이 남측어와(일·운동·에너지·정리) 북측어(일·에너지·정리)가 동일 ③ 용어 내 기초어휘 비율이 남측어가(보이다·먹다·별) 북측어(보이다·먹다)보다 높으므로 남측어 우세 ④ 기초어휘 목록에 남측어 ‘구역’이 있으므로 남측어 우세 ⑤ 기초어휘 목록에 북측어 ‘보이다·먹다’가 있으므로 북측어 우세	① = ② = ③ > ④ > ⑤ <	
	경제성	① 두 용어 모두 3음절 이하로 동일 ② 두 용어 모두 x음절로 동일 ③ 4음절 대 5음절로 남측어 우세 ④ 4음절 대 2음절로 북측어 우세	① = ② = ③ > ④ <	
	고유성	① ‘한자어(彗星)’ 대 ‘한자어+고유어’로 동일	① = ② =	

	② ‘외래어+한자어’로 동일	
일관성	① 두 용어 모두 일관성이 있음. (남측례: 광전자·광축, 북측례: 빛전자·빛축) ② 두 용어 모두 다른 용어와의 일관성 판정 불가 ③ “(북측례: ·)이 일관성이 있 으므로 북측어 우세	① = ② = ③ <
최종 판정	위계 판정	

1.2.1 문법성의 적용

첫째, 문법성은 위계 기준보다 우선 적용하는 필터 기준이다. 즉, 문법성의 기준에서 비문법적 용어로 판단되면 위계 기준 판정과 관계없이 올바른 문법성을 갖는 다른 용어가 선택된다.

둘째, 구성 부분의 배열 방식이나 결합 방식이 국어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법과 같은 것을 국어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에 어긋나는 것보다 우세한 것으로 판정한다. 예를 들면, 문법 전문용어에서 ‘울리닭기(북)’에서 ‘울리’는 일반적인 통사 구성에 맞지 않으므로 ‘역행동화(남)’가 문법성에서 우세하다.

셋째, 문법성은 어문 규정과도 연관되는데, 남북의 어문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문 규정의 통일이 우선되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남측 또는 북측 각각의 어문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용어는 선택되지 않는다.

넷째, 다른 기준들과 마찬가지로 양쪽 다 문법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가벼운입술소리(남)’와 ‘순경음(북)’이 있을 때, 두 용어 모두 문법성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문법성에서 동일하다고 본다.

1.2.2 윤리·미학성의 적용

첫째, 윤리·미학적 역시 다른 위계 기준보다 우선 적용되는 필터 기준이다. 문법성과 마찬가지로 이 기준에서 우열이 가려질 경우, 위계 기준 판정 없이 우세한 것이 선택된다.

둘째, 비속한 것을 연상하게 하지 않는 것을 그러한 용어보다 우세한 것으로 판정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관능적문학(남)’과 ‘색정문학(북)’이 있을 때, 윤리·미학성에서 유리한 ‘관능적문학’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셋째, 아름다운 것을 연상하게 하는 것을 그렇지 않은 용어보다 우세한 것으로

판정한다.

넷째, 두 용어 모두 윤리·미학성에 문제가 없으면 동일한 것으로 판단한다. ‘각운(남)’과 ‘꼬리운(북)’이 있을 때, 양쪽 다 비속성도 없고 미학성도 동일하다. 그러므로 윤리·미학성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윤리·미학성의 기준이 적용되는 실례는 희박하다. 윤리성은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미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주관적일 가능성이 높고 미적인 측면을 강조하면 투명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기에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예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

1.2.3 투명성의 적용

첫째, 그 용어를 보았을 때, 그 의미를 떠올릴 수 있는 것을 투명성이 우세한 것으로 판정한다. 이는 투명성의 표면상의 정의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예를 들면, ‘부차적줄거리(남)’와 ‘부선(북)’이 있는 경우, ‘부차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이야기 줄거리’라는 의미가 ‘부차적줄거리’에서 더 우세하게 나타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둘째, 투명성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투명성 정도 무승부로 판정한다. 이는 투명하다고 판단할 때의 주관성을 배제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개연성 구축(남)’과 ‘계기설정(북)’이 대두될 때,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일, 있음직한 일을 서술함으로써 보편적 진실을 획득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뜻은 두 용어에서 모두 의미 산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어떤 것을 선택하든 유의미하므로 투명성 정도를 무승부로 본다.

셋째, 용어가 그 범주 내에서 정확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의미를 적게 담고 있는 것이나 의미 이상을 담고 있는 것, 범주 외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보다 우세한 것으로 판정한다. 예를 들면, ‘할 말을 줄였을 때나 말이 없음을 나타낼 때에 쓰거나 문장이나 글의 일부를 생략할 때, 머뭇거림을 보일 때 쓰는 문장부호’를 나타내는 ‘말줄임표(남)’와 ‘줄임표(북)’가 대두될 때, ‘말줄임표’가 ‘줄임표’보다 줄임의 대상에 대해 더 정확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고유어·한자어·외래어는 그 뜻을 추론할 수 있는 한, 투명성이 같다고 처리한다. 이는 고유어와 마찬가지로 한자어와 외래어를 자주 사용하는 언어 현실을 볼 때, 어떠한 것이 더 투명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립인 ‘검월(남)’과 ‘복합문(북)’에서 ‘검’과 ‘복합(複合)’은 고유어와 한자어이지만 그 뜻을 추론할 수 있기에 투명성이 같다고 처리한다.

다섯째, 용어를 줄여서 쓴 경우는 그 본말이 투명성이 더 있다고 판단한다. 예를 들어서, ‘의인전기(남)’보다 ‘의인전기체소설(북)’이 그 뜻(사물을 의인화하여 전기

(傳記) 형식으로 서술하는 문학 양식)을 추론해내기 유리하므로, 북측어가 우세하다고 본다.

여섯째, 용어의 어종이 외국어일 경우에는 투명성 확인 불가로 처리한다. 예를 들면, ‘움라우트(남)’와 ‘앞모음되기(북)’의 경우, 외국어인 ‘움라우트’가 가지는 의미를 정확히 추론해 내기 어려우므로 투명성 확인 불가로 판정한다.

마지막으로, 투명성 판정이 어려운 다양한 경우가 존재한다. 남과 북의 개념화 과정이나 개념 체계가 서로 달라서 일대일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남과 북의 각각의 용어 체계 안에서 모두 투명성을 갖고 있지만, 서로 개념상 일부분만 겹치게 되어 비교우위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양측 간의 가치 평가가 달라서 용어에 쓰인 표현이 중립적일 경우도 있고 평가가 포함된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도 투명성을 판정하기에 어려운 경우이다. 더욱이 현재는 북측과의 소통이 완전히 단절되면서 실제 사용의 맥락이나 용례를 파악하기 어렵다. 남측의 연구자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용어의 의미가 틀릴 수도 있고 또는 실제로 개념 파악에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 개념 및 용어의 의미와 관련된 기준을 판별하고자 할 때 항상 북측과의 공동 논의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1.2.4 일의성의 적용

첫째, 동음어·다의어가 없는 전문용어를 동음어·다의어가 있는 것보다 우세한 것으로 판정한다.

(1) ㄱ. 홀문장(남) / 단일문(북)

ㄴ. 자전(남) / 자서전(북)

(1ㄱ)은 남측어 0개, 북측어 1개(다의어 1개)이므로 남측어가 일의성에서 우세하고, (2ㄴ)은 남측어 2개(동음어 1개, 다의어 1개), 북측어 1개(다의어 1개)이므로 북측어가 일의성에서 우세하다.

둘째, 남측어의 동음어·다의어 판정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고, 북측어의 동음어·다의어 판정은 《조선말대사전》에 따른다. 이러한 방법은 남측과 북측의 참고 기준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한계점을 갖지만, 대안의 방법으로서는 최선이다. 이후에 남북측 통일 사전인 《겨레말큰사전》이 발간되면, 그것에 따르도록 한다.

셋째, 둘 다 동음어나 다의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동일한 것으로 처리한다. 예를 들면, ‘자음탈락(남)’과 ‘자음빠지기(북)’가 있을 때, 남측어 0개, 북측어 0개이

므로 일의성에서 동일하다.

넷째, 남북의 용어가 사전의 표제어가 아닌 경우 판정 불가로 본다.

(2) ㄱ. 자연시(남) / 풍경시(북)

 나. 자음동화(남) / 자음닭기(북)

(2ㄱ)은 남측어 ‘자연시’가 표준국어대사전 표제어가 아니므로 판정이 불가능하다. (2나)도 북측어 ‘자음닭기’가 조선말대사전의 표제어가 아니므로 판정할 수 없다. 이렇게 용어가 사전의 표제어가 아닌 경우는 판정할 수 없으므로 판정 불가로 처리한다.

1.2.5 친숙성의 적용

우선, 남북이 70년 가까이 각기 진행된 언어 변화에 따라서, 각기 친숙한 용어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기준은 추후 남북이 함께 만나 논의하는 자리에서 재차 살피고 합의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 기초 어휘 목록을 참고하여 친숙성을 판정한다. 즉, 기초 어휘 목록에 포함된 구성성분을 가진 것을 그렇지 않은 것보다 우세한 것으로 판정한다. 기초 어휘 목록은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한국어 기초 사전》을 참고한다.²⁵⁾

친숙성을 판단할 때 우선 남북의 전문용어를 형태 분석²⁶⁾하고, 그 형태 중에서 학습용 어휘 목록에 포함된 비율이 높은 것을 우세한 것으로 판정한다. 북측어의 기초 어휘 목록이 확보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북측어의 친숙성도 남측의 기초 어휘를 바탕으로 판정하도록 하겠다. 이는 본 분석의 한계점이기도 하지만, 친숙한 어휘가 학습용 기초어휘임을 감안해 남북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진행하고자 한다. 그러나 북측어의 기초 어휘 목록이 수립되면, 북측어는 그 목록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ㄱ. 가벼운입술소리(남) / 순경음(북)

 나. 개음절(남) / 열린소리마디(북)

25) 《한국어 기초 사전》 웹사이트: <https://krdict.korean.go.kr/mainAction>

26) 형태를 분석할 때, 한자어의 분석이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한자어의 분석은 국립국어원과 21세기 세종계획의 형태 분석법에 따라서 한자 하나하나를 형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자 단일어를 하나의 형태로 처리한다. 한자 단일어를 판단하는 기준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른다.

(3ㄱ)은 용어 내 기초어휘 비율이 남측어 ‘가벼운입술소리’(남측 예: 가볍다, 입술)가 북측어 ‘순경음’보다 높으므로 친숙성에서는 남측어가 우세한 것으로 판정한다. (3ㄴ)에도 북측어에 기초어휘 ‘열리다’와 ‘소리’가 있으므로 친숙성에서는 북측어가 우세한 것으로 판정한다.

셋째, 남측어와 북측어에 모두 기초어휘가 없거나 용어 내 기초어휘 비율이 같으면 동일한 것으로 처리한다.

- (4) ㄱ. 지시대명사(남) / 가리킴대명사(북)
- ㄴ. 중동태(남) / 중동상(북)

(4ㄱ)은 용어 내 기초어휘 비율이 남측어(지시·대명사)와 북측어(가리키다·대명사)가 같으므로 동일하다. (4ㄴ)은 남측어와 북측어에 기초어휘가 없으므로 동일하다.

1.2.6 경제성의 적용

첫째, 음절수가 짧은 용어를 긴 용어보다 우세한 것으로 판정한다. 이는 경제성의 정의와 관련된 적용 방법으로, 예를 들면 ‘열린음절(남)’과 ‘열린소리마디(북)’가 있을 때, 4음절과 6음절로 남측어가 더 우세하다는 것이다.

둘째, 1음절은 다른 모든 음절수에 대해 가장 우세하다고 본다. 용어의 간결성이 목적인 경제성의 기준에서 1음절 용어는 가장 간결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연(남)’과 ‘시련(북)’이 있을 때, 2음절과 1음절로 남측어가 더 우세하다는 것이다.

셋째, 2음절과 3음절은 음절수의 차이를 두지 않고 동일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 이유는 우리말 단어의 음절수는 2음절에서 3음절까지가 절대적으로 많은데, 이들을 거의 큰 차이 없이 사용하다보니 기억 부담량에서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 적용 방법의 예를 들면, ‘어근(남)’과 ‘말뿌리(북)’의 경우는 두 용어 모두 3음절 이하이므로 경제성에서 동일하다고 본다.

넷째, 8음절 이상의 전문용어는 모두 동일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용어의 간결성을 판정하는 경제성의 기준에서 8음절 이상의 전문용어는 판정의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섯째, 우리말 자모음이나 아라비아 숫자, 외국 문자 등으로 표기된 것 등은 한국

어로 읽었을 때의 표기로 대체하여서 판단한다. 음운 표기가 된 다음 예를 보면, ‘ㄱ-구개음화(남)’와 ‘뒤자음구개음화(북)’가 있을 때, 남측어는 ‘기억 구개음화’으로 바꾸어서 경제성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1.2.7 고유성의 적용

첫째, 고유어의 개념은 넓은 의미로서 순우리말과 한자어를 포함하기로 하며, 이러한 고유 전문용어를 외래어·외국어 전문용어보다 우세한 것으로 판정한다. 이는 고유성의 정의와 관련한 방법이다. 예를 들면, 한자어와 고유어의 대립인 ‘매김말(남)’과 ‘규정어(북)’가 있을 때, 양측이 동일하다고 판단한다.

반면, 외래어와 한자어의 대립인 ‘로맨티시즘(남)’과 ‘낭만주의(북)’가 있을 때, 고유어로 이루어진 북측어가 우세하다는 것이다. 순우리말과 외래어가 충돌하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순우리말을 우세한 것으로 판정한다. 이 역시 첫째 방법과 마찬가지로 고유성의 정의와 관련된 방법이다.

셋째, 둘 다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이면, 고유성이 동일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말토막(남)’과 ‘소리토막(북)’은 모두 고유어로 동일하다.

넷째, 한자어와 고유어와 외래어가 결합한 복합어일 경우는 그 고유성의 비중에 따라서 판단한다. 즉, 고유어·한자어나 고유어·외래어의 복합어일 때는 외래어의 비중이 낮은 것을 우세하다고 판정한다.

(5) ㄱ. 말뭉치언어학(남) / 코퍼스언어학(북)

ㄴ. 사회주의리얼리즘(남) / 사회주의적사실주의(북)

(5ㄱ)은 ‘고유어+한자어’ 대 ‘외래어+한자어(corpus言語學)’로 남측어가 우세한 것으로 판정한다. (5ㄴ)은 ‘외래어+한자어(社會主義realism)’ 대 ‘한자어’로 북측어가 우세한 것으로 판정한다.

다섯째, 복합어일 경우에 형태소 분석과 상관없이 그 구성성분이 동일하면 판정 역시 동일한 것으로 처리한다.

(6) ㄱ. 객체높임말(남) / 감정정서적뜻같은말(북)

ㄴ. 비교언어학(남) / 비교력사언어학(북)

(6ㄱ)은 모두 ‘고유어+한자어’로 동일하고, (2ㄴ)은 ‘한자어’로 동일하다.

1.2.8 일관성의 적용

첫째,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개념을 지칭할 때 동일한 형식을 갖춘 용어를 그렇지 않은 용어보다 우세한 것으로 판정한다. 예를 들어, ‘감정형성(남)’과 ‘감정진술(북)’이 있을 때, ‘감정토로(남)’과 ‘주정토로(북)’와 비교하여 ‘감정’, ‘주정’으로 나누어 부르기보다 ‘감정’으로 일관되게 부를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한다.

둘째, 2015년, 2016년 사업에서는 일관성이 있는 동일 구성성분을 포함한 용어가 2개 이상 있으면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본 사업에서는 현 국어 분야의 용어 자료 내에서 1개 이상의 대응쌍 항목이 있으면 일관성이 있다고 판정하기로 하였다. 기존에는 2개 이상 동일 구성 요소가 발견될 때 일관성으로 보아서 개념 체계의 일관성을 보여준다기보다는 단순히 용어의 반복적 사용까지도 일관성으로 측정될 위험이 있었으며, 2개 이상의 용어가 없으면 대응쌍을 이루어 상호 연관 개념임을 충분히 보여주어도 일관성이 없다고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하였다. 개념 체계의 동위성, 상하위성 등의 위계를 잘 반영하는가가 판별 기준이 된다.

(7) ㄱ. 민간설화(남) / 민화(북)

ㄴ. 기억(남) / 기옥(북)

(7ㄱ)에서 ‘민간설화’(남측 예: 구전설화)가 일관성이 있으므로 남측어가 우세한 것으로 본다. (7ㄴ)에서 ‘기옥’(북)은 남측 예가 ‘디근’, ‘시웃’인데 비해 북측 예가 ‘디은’, ‘시웃’으로 더 일관성이 있으므로 북측어가 우세한 것으로 본다.

셋째, 두 용어 모두 일관성이 있는 경우와 두 용어 모두 다른 용어와의 일관성이 없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이 경우는 일관성이 동일한 것으로 본다.

(8) ㄱ. 고빈도어휘(남) / 저빈도어휘(북)

ㄴ. 고초(남) / 고난(북)

(8ㄱ)에서 ‘고빈도어휘’(남)는 남측 예에서 ‘저빈도어휘’가 발견되고, ‘적극적어휘’(북)는 북측 예에서 ‘소극적어휘’가 발견되므로 두 용어 모두 일관성이 있고 일관성이 동일하다고 본다. (8ㄴ)에서 두 용어 모두 다른 용어와의 일관성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일관성이 동일한 것으로 본다.

2.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 통합의 세부 지침

2.1 국어 교과 전문용어 판정을 위한 위계 설정

위의 6가지 위계 기준 중에서 가장 근간이 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바로 투명성이다. 우선, 전문용어학에서 그 개념 체계는 용어 체계와 동일시되는 학문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개념과 전문용어 간의 일지시성, 일의성, 일대일 대응성은 ISO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특징이며, 이는 개념을 용어가 투명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왔다. 또 다른 이유는 본 사업 대상의 전문용어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용어이기 때문이다. 만약 최종 통합안이 각 지역에서 사용하던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용어를 보고 개념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도록 하여 전문용어가 이해와 학습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때문에 국어 분야 전문가들이 학회 발표나 논문 등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용어보다 이해와 학습의 측면을 강조하고자 한다. 투명성이 높아서 그 용어를 보고도 그 내용을 추측할 수 있고, 게다가 그것을 명확히 이해시키기까지 한다면,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큰 교육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기준은 위와 비슷한 이유에서 일관성이 될 것이다. 전문용어는 서로 동떨어진 요소가 아니라 체계 속에서 서로 상·하위 관계로 밀접히 범주화된 개념이다. 이를 위해 용어 조어 역시 그 상위어와 하위어를 추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용어의 일관성은 투명성만큼이나 중요한 위계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셋째로는, 친숙성을 꼽고자 한다. 친숙성은 잘 알고 있는 용어로 구성된 것이기에 학습 효과도 높을 것이고, 오랜 기간 널리 쓰이는 것이라면 사회적으로 용어의 사용성이 검증이 된 만큼 높은 위계를 기대할 만하다. 교육용, 학습용 전문용어에서 특히 친숙성은 중요한 기준이다. 친숙성의 기준은 특히 근래 알기 쉬운 용어, 용어의 수월성에 대한 요구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전문용어를 통한 개념 이해를 쉽고 즉각적으로 할 수 있음과 더불어 용어들을 보급하고 빨리 정착시키는 데에도 난해하고 잘 사용하지 않는 어휘 단위로 이루어진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친숙성의 기준은 3순위에 두고자 한다.

다음 순위는 일의성이다. 그 이유는 일의성이 동음어와 다의어를 가져서 학습에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를 차단할 뿐 아니라, 남북측 전문용어 통합을 판정하는 데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일의성의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세로’(남)와 ‘길이’(북)가 있다. ‘길이’는 북측에서 ‘세로’의 뜻도 있지만, ‘한끝에서 다른 한끝까지의 거리’라는 뜻도 있으므로, 일의성이 없다. 따라서 ‘세로’(남)가 선택에 유리한 것이다. 일의성은 앞서 보았듯이 전문용어의 필수적 속성

이다. 그런데 자연과학 분야와 달리 인문 분야의 용어들은 일의성을 가진 용어가 거의 드물 것이다. 기본적으로 다의적 속성을 내재하고 있는 국어 분야 전문용어 이기에 일의성의 기준이 중요한 순위로 오르게 되었다.

다음 순위는 경제성을 두고자 한다. 물론 경제성은 투명성 또는 일관성과 대치되는 항목일 수 있다. 투명도와 일관성의 정도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는 복합용어가 유리하며 이 때문에 세분화된 분야일수록 긴 용어가 많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성 또한 전문용어의 사용 및 이해도와 직결되며 사용자의 입장에서 가장 선호되는 형태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고유성을 두고자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유성을 매우 넓은 의미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즉, 해외에서 수입되는 용어에 대해 그것을 음차하여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우리말로 옮겨서 토착화한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고유성은 한자어와 대비된 고유어로서의 특징이 아니라 우리말로 번역한 토착화의 개념으로 상용 한자어와 고유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남측 역시 대다수 전문용어에 한자어가 많이 쓰이지만 고유어에 대한 선호도가 있으므로 이 둘을 등가로 처리하면 더 수월한 통합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고유성을 맨 마지막 기준으로 선정한 이유는 현재 분석 대상 분야가 국어 분야이기 때문이다. 국어 전문용어의 특성상 거의 대다수가 한자어이며 외래어, 외국어는 드물어서 이 기준에 따른 변별력이 크지 않을 것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본 사업에서 제안하는 국어 교과 용어 판정 기준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

<표 55> 국어 교과 용어 판정의 순서

필터 기준	1. 문법성
	2. 윤리·미학적성
위계 기준	3. 투명성
	4. 일관성
	5. 친숙성
	6. 일의성
	7. 경제성
	8. 고유성

2.2 국어 교과 전문용어 판정의 적용과 실제

2.2.1 필터 기준의 적용

필터 기준은 앞서 보았듯이, 문법성과 윤리·미학성을 일컫는다. 이 두 기준에 미달할 경우, 기본적으로 표준 용어로서의 기본적인 모습을 갖추지 못한다고 간주하고, 더 이상 다른 위계 기준의 판정으로 넘어가지 않고 용어를 배제하도록 한다. 국어 교과와 전문용어들은 이미 교과서에 수록된 어느 정도 공인된 성격의 전문용어들이므로 이 필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

국어 전문용어 중 문법성에 위배되는 사례로는 아래의 한 항목이다.

예) 역행동화(남) > 올리닭기(북)

윤리·미학성의 경우, 발음상의 비속성에 의해 아래의 세 항목이 판정되었다.

예) ㄱ. 감정진술(남) > 추정토로(북)
 ㄴ. 관능적문학(남) > 색정문학(북)
 ㄷ. 언어학사(남) > 언어학설사(북)

2.2.2 투명성의 적용

투명성의 기준이란, 그 개념이 용어에 보다 정확하게 동기화되어 반영되었는지 판별하는 것이다. 역으로 용어만 보고서도 용어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 것을 그렇지 않은 것보다 우세한 것으로 판정한다.

1) 투명성 동일:

투명성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투명성이 동일하다고 판정한다. 예를 들어 남북 전문용어의 각 요소가 서로 동의어로 이루어져 있거나 풀어쓴 형태 대 생략된 형태의 대응어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국어분야의 판정 대상이 되는 AB형 용어 총 801개 중에서 투명성 동일 또는 판정불가는 752개로 전체의 93.8%에 해당한다.²⁷⁾

예) 공동격(남) = 동반격(북), 반어법(남) = 야유법(북), 반복법(남) = 되풀이법(북),

27) 이 중에서 ‘투명성 동일’은 672개, ‘판정 불가’는 80개이다.

감탄법(남) = 느낌법(북), 매김씨(남) = 관형사(북), 메인 이름씨(남) = 불완전 명사(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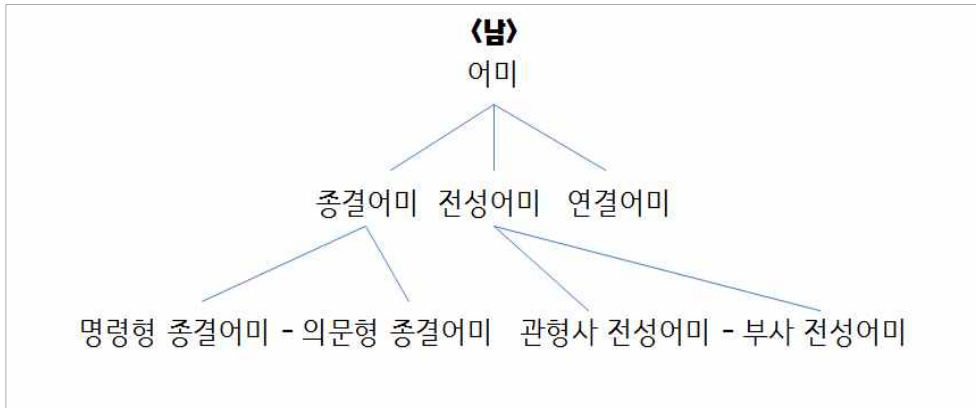
특히 관정 불가의 예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남측어의 ‘조사’, ‘어미’(선어말어미, 전성어미 등), ‘접사’, ‘표지’ 등에 해당하는 북측어 ‘토’의 예이다. 이는 개념 체계가 서로 달라 일대일 대응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례로서, 용어 차원에서는 서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개념 차원에서는 위계와 범위가 서로 다르므로 이를 체계상으로 대응시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일 것이다.

예) ㄱ. 어미(남) = 용언토(북)

ㄴ. 종결어미(남) = 맺음토, 전성어미(남) = 용언토(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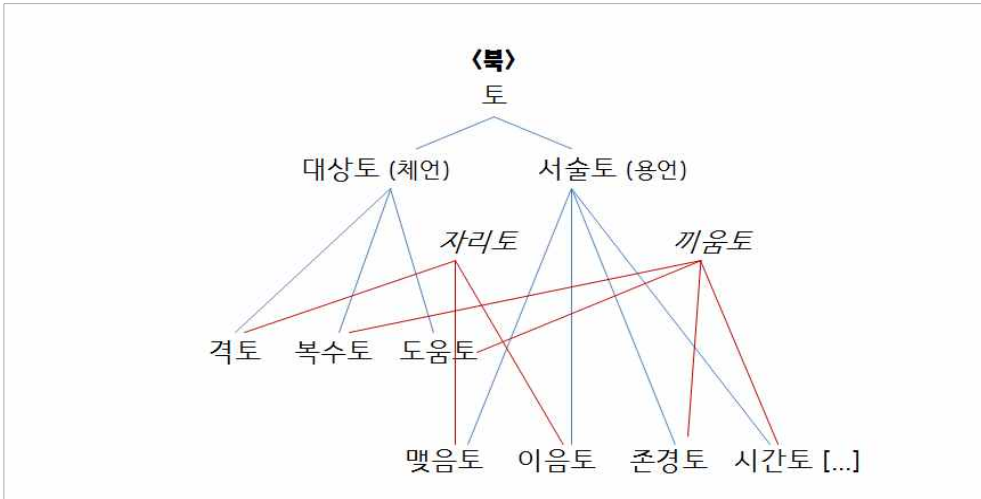
ㄷ. 부사형전성어미(남) = 상황토, 부사형조사(남) = 상황토, 명령형종결어미(남) = 시킴의맺음토(북), 시제선어말어미(남) = 시간토(북)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자료에서 수집한 예들에는 어미와 전성어미 간의 구분이 북측 용어에 드러나지 않고 또한 부사형 전성어미와 부사형 조사 간의 구분이 북측 용어에 드러나지 않는다. 상하위의 개념 위계를 드러내는 데에는 남측어가 보다 더 적절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아래 도식을 보면, 체언에 대한 ‘토’와 용언에 대한 ‘토’를 그것의 위치(앞이나 뒤에 고정되어 있는지 또는 삽입되는지)에 따라 각기 일괄되게 분류하여 체계를 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⁸⁾



[그림 21] 남측 용어 ‘어미’에 대한 개념 체계

28) 정도복 (1996: 428~429) 재편집



[그림 22] 복측 용어 ‘토’에 대한 개념체계

이러한 문제는 후차에 전문용어 체계와 개념 체계를 동시에 정비, 통합하는 ‘조화(harmonization)’의 작업이 필수적이다.

2) 투명성 우세:

가) 그 용어를 보았을 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중의성 없이 떠올릴 수 있는 것을 우세한 것으로 판정한다. 용어가 의미를 모두 담고 있는 것을 의미를 적게 담고 있는 것이나 의미 이상을 담고 있는 것보다 우세한 것으로 판정한다. 그런데 이 방법은 상대적으로 판단한다.

예) 가전체(남) < 의인전기체소설(복) , 이모음역행동화(남) > 앞모음되기(복), 치찰음(남) > 쉬쉬소리(복), 탄절음(남) > 튀김소리(복)

예) 가사문학(남) > 가사(복), 말줄임표(남) > 줄임표(복)

나) 용어가 의미를 적확하게 담고 있지 않아도 그것보다 의미를 덜 담고 있는 것이나 더 담고 있는 것보다 우세하다고 판정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물론 의미를 적확하게 담고 있는 용어가 가장 투명할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모든 용어가 다 그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예) 가정소설(남) > 가정세태소설(복), 흥태말(남) > 상징어(복)

다) 외시적 의미보다 비유적 또는 일반 어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투명도가 떨어진다고 보았다.

예) 서사구조(남) > 엽음새(북), 단일어(남) > 뿌리말(북)

라) 용어를 줄여서 쓴 경우는 그 본말이 투명성이 더 있다고 판단한다.

예) 수량사(남) > 량사(북)

3) 투명성 판정 불가:

투명성을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두 용어 모두 서로 다른 관점으로 개념화하여 그 의미를 용어에 담고 있을 경우 투명성 판정 불가로 본다. 또한 두 용어 모두 의미를 투명하게 반영하지 못할 때 투명성 판정 불가로 본다. 이때는 투명성이 동일한 것으로 처리한다.

예) 곡용(남) = 격변화(북), 드러냄표(남) = 밑점(북), 민중의정서(남) = 민족적정서(북)

2.2.3 일관성의 적용

일관성 기준이란, 개념의 체계와 용어의 체계가 일관된 방식으로 대응된 용어가 그렇지 않은 용어보다 우세한 것으로 판정한다는 것이다.

1) 일관성 우세: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개념을 지칭할 때 동일한 형식을 갖춘 용어를 그렇지 않은 용어보다 우세한 것으로 판정한다.

예) 음절말자음중화(남) > 끝소리법칙(북)

※ 앞서 이 두 용어는 투명성이 동일하다고 판정되었다. 북측 예에 ‘앞소리법칙’이 있으므로 북측어가 일관성이 있다고 판정한다.

일관성이 있는 구성 성분을 포함한 용어가 1개 이상 있으면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한다.

예) ㄱ. 김수로왕신화(남) > 수로의출생담(북)

ㄴ. 시옷(남) < 시옷(북)

※ ㄱ에서 ‘김수로왕신화(남측 예: 주몽신화)’가 일관성이 있으므로 남측어가 우세한 것으로 본다. ㄴ에서 ‘시옷(북측 예: 기옥, 리을)’이 일관성이 있으므로 북측어가 우세한 것으로 본다.

2) 일관성 동일 :

두 용어 모두 일관성이 있는 경우와 두 용어 모두 다른 용어와의 일관성이 없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이 경우는 일관성이 동일한 것으로 본다.

예) ㄱ. 폐모음(남) = 닫긴모음(북)

ㄴ. 비칭(남) = 낮춤(북)

※ ㄱ에서 ‘폐모음’은 남측 예에서 ‘개모음, 반개모음’이 발견되고, ‘닫긴모음’은 북측 예에서 ‘열린모음, 반열린모음’이 발견되므로 두 용어 모두 일관성이 있고 일관성이 동일하다고 본다. ㄴ에서 두 용어 모두 다른 용어와의 일관성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일관성이 동일한 것으로 본다.

2.2.4 친숙성의 적용

친숙성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진 전문용어를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전문용어보다 우세한 것으로 판정한다는 것이다.

1) 기초 어휘 목록을 참고하여 친숙성을 판정한다. 즉, 기초 어휘 목록에 포함된 구성성분을 가진 것을 그렇지 않은 것보다 우세한 것으로 판정한다.

☞ 기초 어휘 목록은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한국어 기초사전(국립국어원)’을 참고한다.

2) 친숙성 동일:

남측어와 북측어에 모두 기초 어휘가 없거나 용어 내 기초 어휘 비율이 같으면

동일한 것으로 처리한다.

예) ㄱ. 대괄호(남) = 꺾쇠괄호(북) [‘대’, ‘괄호’, ‘꺾쇠’가 기초어휘],

ㄴ. 연결하다(남) = 하철하다(북), 증동태(남) = 증동상(북)

※ ㄱ은 용어 내 기초어휘 비율이 남측어와 북측어가 같으므로 동일하다. ㄴ은 남측어과 북측어에 기초어휘가 없으므로 동일하다.

3) 친숙성 우세:

기초어휘가 포함된 전문용어가 포함되지 않은 용어보다 친숙성이 높다고 판정한다. 또는 기초어휘의 비율이 높을 때 친숙성이 높다고 판정한다.

예) ㄱ. 평음(남) < 순환소리(북)

ㄴ. 전도문(남) < 도치문(북)

※ ㄱ은 북측어에 기초어휘 ‘순하다’, ‘소리’가 있으므로 북측어 우세로 판정한다. ㄴ은 남측어에 ‘문’, 북측어에 ‘도치’, ‘문’이 기초어휘이지만 비율 상 북측어가 더 높으므로 북측어 우세로 판정한다.

2.2.5 일의성의 적용

일의성의 기준이란, 한 용어가 한 개념에 대응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우세한 것으로 판정한다는 것이다. 즉, 하나의 언어형식이 하나의 의미만 가진 것이 여러 의미를 가진 것보다 우세한 것으로 판정한다는 것이다.

1) 동음어가 없는 전문용어를 동음어가 있는 것보다 우세한 것으로 판정한다.

예) 관용구(남) > 성구(북)

※ ‘성구’는 북측에서 ‘관용구’의 뜻도 있지만, ‘베틀, 가마니틀, 방직기 따위에 딸린 기구의 하나’라는 뜻도 있으므로, 일의성이 없다. 따라서 ‘관용구’(남)가 선택에 유리하다.

2) 다의어가 없는 전문용어를 다의어가 있는 것보다 우세한 것으로 판정한다.

예) 과일음(남) < 터침소리(북)

※ ‘과일음’은 남측에서 ‘폐쇄음’으로서의 뜻도 있지만, ‘깨어지거나 갈라져 터지면서 나는 소리’라는 뜻도 있으므로, 일의성이 없다. 따라서 ‘터침소리’(북)가 선택에 유리하다.

3) 남측어의 동음어·다의어 판정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고, 북측어의 동음어·다의어 판정은 《조선말대사전》에 따른다.

☞ 이후에 남북측 통일 사전인 《겨레말큰사전》이 발간되면, 그것에 따르도록 한다.

2.2.6 경제성의 적용

경제성의 기준이란, 음절수가 짧은 용어를 긴 용어보다 더 우세한 것으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1) 음절수 우세:

음절수가 짧은 용어를 긴 용어보다 우세한 것으로 판정한다.

예) 서정적서사시(남) < 서정서사시(북)

아라비아 숫자나 외국 문자, 우리말 자모음으로 표기된 것은 한국어로 읽었을 때의 표기로 대체하여서 판단한다.

예) ㄱ. 《르-르르》바꿈(북)

나. ㅂ-불규칙활용(남)

※ ㄱ은 ‘르-리울리울’로 바꾸어서 판단한다. 나 은 ‘비읍’으로 바꾸어서 경제성을 판단한다.

2) 음절수 동일:

가) 2음절과 3음절은 음절수는 차이를 두지 않고 동일한 것으로 판단한다. 핵심 전문용어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는 음절수 유형이기 때문이다.

예) 각운(남) = 꼬리운(북)

나) 8음절 이상은 모두 동일한 것으로 판단한다. 8음절 이상의 용어는 모두 경제

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2.7 고유성의 적용

고유성의 기준이란, 외래어로 된 전문용어보다 고유어나 한자어로 된 전문용어를 우세한 것으로 판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문용어에서 외래어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고 우리말로 번역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1) 고유성 우세:

가) 고유어나 한자어인 전문용어를 외래어, 외국어인 전문용어보다 우세한 것으로 판정한다. 고유어와 한자어는 동일한 고유성을 갖는다고 판정한다.

예) 가. [외래어 대 고유어] 스트레스(남) < 세기마루(북)

나. [한자어 대 외래어] 시문학(남) > 뽀에지야(북)

나) 한자어와 고유어와 외래어가 결합한 복합어일 경우는 그 고유성의 비중에 따라서 판정한다. 즉, 고유어·한자어나 고유어·외래어의 복합어일 때는 외래어가 속한 것을 열세하다고 판정한다.

예) [한자어 복합어 대 한자어+외래어 복합어] 다장면구성형식(북) > 다중플롯(남)

2) 고유성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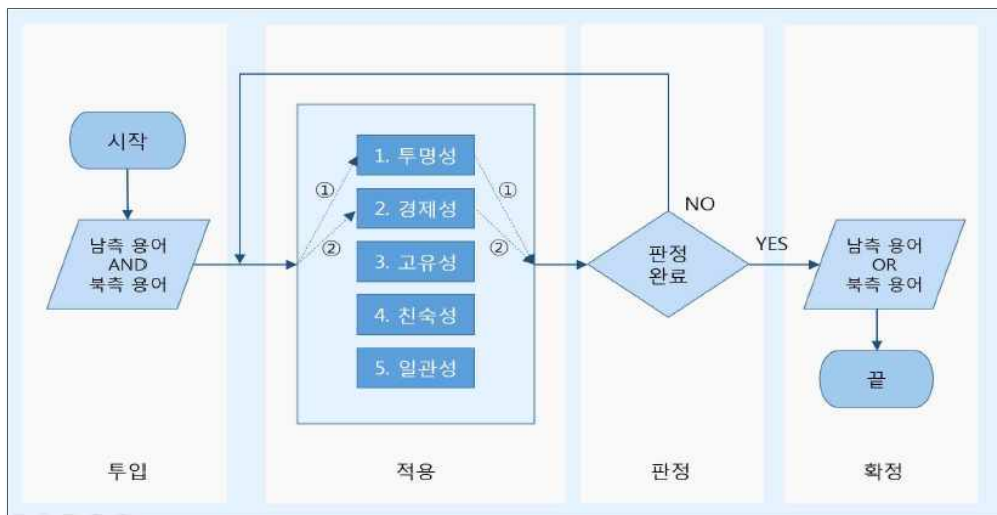
고유어 대 고유어, 한자어 대 한자어, 그리고 고유어 대 한자어는 동일한 고유성을 갖는다고 판정한다.

예) [고유어 대 한자어] 소리같은말(북) = 동음어(남)

[한자어 복합어 대 고유어+한자어 복합어] 대명사(북) = 대이름씨(북)

2.3 통합 기준의 계량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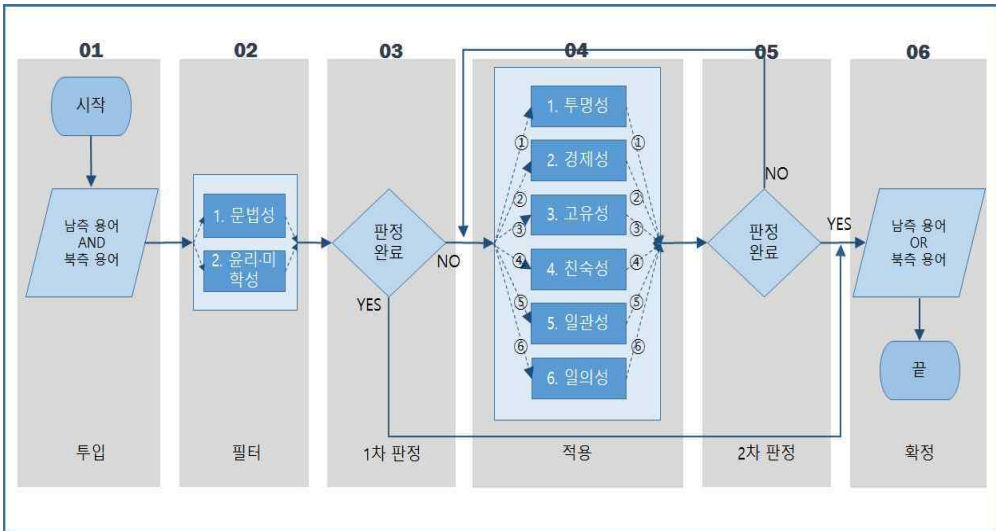
이 절에서는 IV.2.1에서 살펴본 기준들의 위계를 설정하고 조정한다. 그리고 조작성 위계에 따른 계량적 특징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국립국어원에서 발주한 《2015년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과 《2016년 남북 전문용어 구축》의 후속 사업으로, ‘국어 교과’의 전문용어를 구축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전 사업들과 여러 부분에서 동일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선 1차년도와 2차년도 연구들에서는 남측과 북측의 전문용어를 통합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그 위계에 따라 통합안을 도출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알고리즘은 각 기준에 위계를 두어 판정하는 방식인데, 전문 분야에 따라 기준의 위계가 조정될 수 있다. 따라서 매해 연구 분야에 따른 위계 기준의 순서가 조정되었다. 다음의 그림은 2015년과 2016년의 남북 전문용어 통합 알고리즘이다. 위계 기준의 순서가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살펴보자.



[그림 23] 2015년 1차년도 남북 전문용어 통합 알고리즘

1차년도 연구에서는 ‘투입-적용-판정-확정’의 단계를 거쳐 AB형의 전문용어를 통합한 바 있다. 위계 순서는 ‘(1)투명성 - (2)경제성 - (3)고유성 - (4)친숙성 - (5)일관성 - (6)일의성 - (7)국제성 - (8)문법성 - (9)윤리·미학적성’과 같았다. 이 위계 기준에 따라 총 395개의 AB형 전문용어 중 남측의 용어가 170개 선택되었고, 북측의 용어가 203개 선택되었다. 판정되지 못한 전문용어는 22개였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국제성, 문법성, 윤리·미학적성’ 등의 기준이 적용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말미암아 2차년도의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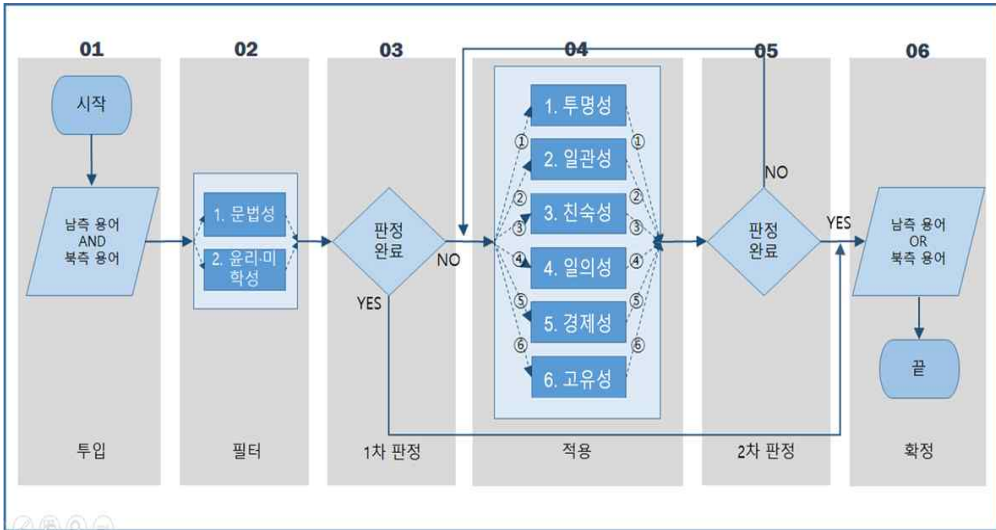
이 수정되었다.



[그림 24] 2016년 2차년도 남북 전문용어 통합 알고리즘

2차년도의 알고리즘은 ‘투입-필터-1차 판정-적용-2차 판정-확정’ 등의 여섯 단계를 거쳐 통합안을 도출하였다. 1차년도와 비교했을 때, ‘필터’ 단계와 ‘1차 판정’ 단계가 추가되었다. ‘문법성’과 ‘윤리·미학적성’ 기준에 의해 걸러지는 전문용어는 많지 않지만, 이 두 기준은 용어로서의 적법성을 나타내므로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따라서 필터 기준으로 삼아 용어로서 합당한지 판별한 것이다. 이 기준에 어긋나면 여타의 다른 기준 적용 없이 바로 판정된다. 그리고 나머지 기준들 중에서 ‘경제성’의 기준을 제외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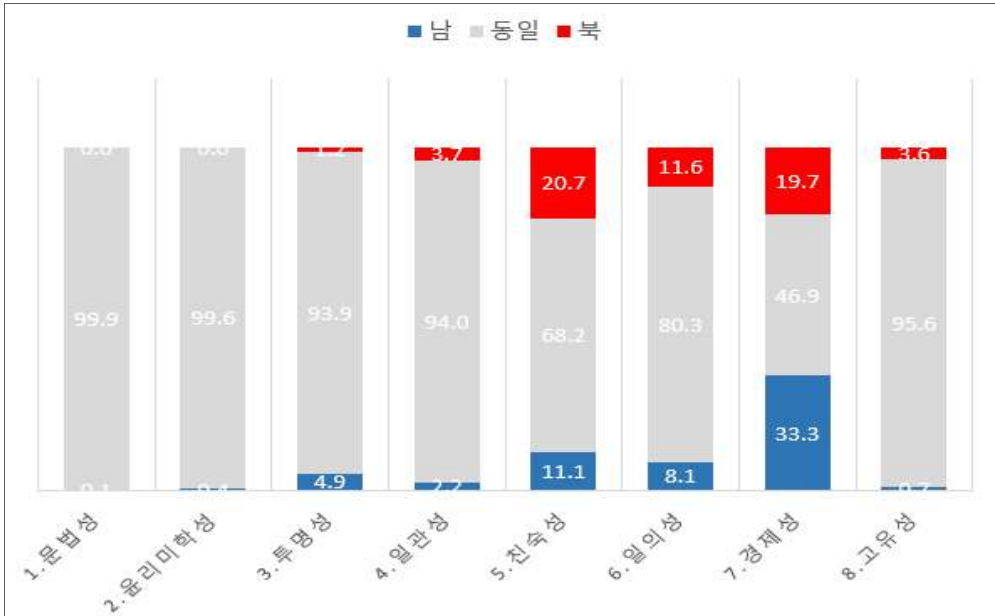
본 연구의 남북 전문용어 통합 알고리즘은 2차년도의 그것과 동일하다. 다만 ‘적용’ 단계에서의 위계 기준의 순서가 조금 달라졌다. ‘적용’ 단계에서 위계 순서는 ‘투명성-일관성-친숙성-일관성-경제성-고유성’순이다. 2차년도의 위계와 비교했을 때, ‘경제성’과 ‘고유성’의 기준이 하순위로 내려갔다. 대신에 ‘일관성’과 ‘친숙성’의 기준이 부각되어 ‘투명성’ 다음에 자리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그림 25] 2017년 3차년도 남북 전문용어 통합 알고리즘

위의 과정은 총 6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는 ‘투입’ 단계이다. 남측 용어와 북측 용어를 함께 판정 대상에 올려 둔다. 2단계는 ‘필터’ 단계이다. 앞서 밝힌 이유로 ‘문법성’과 ‘윤리·미학적성’의 기준을 적용한다. 그리고 3단계는 ‘1차 판정’ 단계로 ‘문법성’과 ‘윤리·미학적성’에 의해 판정이 되면 바로 6단계로 넘어가 용어가 확정된다. 그러나 판정이 되지 않으면 4단계인 ‘적용’ 단계로 넘어가 첫 번째 투명성의 기준을 적용한다. 5단계는 2차 판정을 실시한다. 여기에서 판정이 되면 6단계로 진행되어 용어가 확정된다. 그러나 판정되지 않으면 4단계로 회귀하여 두 번째 기준인 일관성의 기준을 적용한다. 그리고 이 회귀 과정은 여섯 번째 기준인 고유성까지 반복된다.

이 통합 과정을 통해 국어 교과의 AB형 전문용어 801개를 판정하였다. 문법 분야의 전문용어가 600개로 제일 많았으며, 문학 분야는 166개, 기능교육 분야의 전문용어는 35개였다. 우선 국어 교과의 전문용어가 8개의 기준에 따라 얼마만큼의 우세를 보였는지 확인해 보겠다.



[그림 26] 국어 교과 전문용어 기준별 판정 현황

위의 그림은 남측 전문용어와 북측 전문용어가 어느 기준에서 우세했는지 보여주는 그림이다.²⁹⁾ 예를 들어, ‘투명성’의 기준에서는 총 801개의 AB형 전문용어 중에서 남측 용어가 39개 우세하여 4.9%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북측 용어는 10개가 우세하여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일 판정이 752개로 93.9%를 차지한다.

위 그림에 나타난 국어 교과 기준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우세를 판정할 수 없는 ‘동일’ 판정이 많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친숙성’과 ‘경제성’ 기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기준들에서 80% 이상이 ‘동일’ 판정을 받고 있다. 뒤집어 말하면 ‘친숙성’과 ‘경제성’의 기준이 남북 전문용어 통합에 제일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뜻이다.

29) 위 그림의 구체적인 수량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56> 남북 전문용어 통합 기준에 따른 판정 현황

	문법성	윤리미학적성	투명성	일관성	친숙성	일의성	경제성	고유성
남측	1	3	39	18	89	65	267	6
동일	800	798	752	753	546	643	376	766
북측	0	0	10	30	166	93	158	29

친숙성의 기준의 경우, 남측 용어가 우세한 비율이 11.1%이며, 북측 용어가 우세한 비율은 20.7%이다. 앞선 III장의 언어학적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측 전문용어는 고유어인 조어 단위들이 용어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친숙성의 기준은 언중들에게 얼마나 친숙하게 느껴지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므로 고유어 조어 단위가 많이 활용될수록 친숙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경제성의 기준의 경우, 남측 용어가 33.3%의 비율로 우세하다. 그리고 북측 용어는 19.7%의 비율로 우세하다. 남측 전문용어는 한자어 조어 단위를 활용한 용어 형성이 활발하므로, 고유어 조어 단위를 활용한 용어 형성보다 용어의 길이가 짧다. 따라서 남측의 전문용어가 조금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고유성의 기준은 큰 변별력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진이 설정한 내용과 맞닿아 있다. 고유성의 기준에서 고유어와 한자어는 동일한 위계를 가진다. 그리고 외래어는 고유어나 한자어보다 낮은 위계를 가진다. 즉 ‘고유어=한자어>외래어’의 위계를 가지는 것이다. 국어 교과의 전문용어는 전반적으로 외래어의 사용이 적다. 따라서 고유어와 한자어를 구별하지 않는 본 기준에 따라 큰 변별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의 3차년도 남북 전문용어 통합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국어 교과의 AB형의 전문용어를 판정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적용’ 단계에 들어가는 국어 교과의 기본 위계 기준을 ‘투명성-일관성-친숙성-일의성-경제성-고유성’의 순서 배열하였다. ‘경제성’과 ‘고유성’의 기준은 국어 교과에서 크게 변별력을 가지지 못해 후순위로 조정된 것이다. 그리고 전문용어의 투명성과 적합성을 판단하는 ‘투명성’의 기준을 최상위로 조정했다. 또한 문법 분야의 전문용어들이 체계적인 방법으로 일관성 있는 용어를 형성하는 경향이 커 ‘일관성’의 기준을 앞에 두었다. 마지막으로 초중등 교육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임을 고려하여 ‘친숙성’의 기준을 비교적 상위에 두는 위계를 설정하였다.

<표 57> 기준 순서에 따른 판정 변화 양상

기준	기준 순서	남	북	동일
1. 기본 기준	문법성-윤리·미학성-투명성-일관성-친숙성-일의성-경제성-고유성	307	307	187
2. 변형 1	문법성-윤리·미학성-친숙성-경제성-투명성-일관성-일의성-고유성	306	308	187
3. 변형 2	문법성-윤리·미학성-투명성-일의성-경제성-친숙성-일관성-고유성	346	268	187

4. 변형 3	문법성-윤리·미학적성-투명성-고유성- 경제성-친숙성-일관성-일의성	364	250	187
---------	---	-----	-----	-----

위의 표에서 1의 ‘기본 기준’의 순서대로 AB형의 전문용어를 판정했을 때, 남측 용어가 판정되는 사례가 307개 있었다. 그리고 북측 용어 역시 307개 선택되었고, 판정되지 못한 ‘동일’은 187개가 확인되었다. 즉 총 801개의 AB형 국어 교과 전문용어를 ‘기본 기준’ 순서로 판정하면 정확히 50%의 비율로 양측의 용어가 선택되는 것이다.

‘변형 1’의 기준 순서는 국어 교과에서 가장 높은 변별력을 보이는 ‘친숙성’과 ‘경제성’의 기준을 선순위에 둔 변형 기준이다. [그림 2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친숙성의 기준으로는 북측의 용어가 우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경제성의 기준으로는 남측 용어가 우세하다. ‘변형 1’의 판정 결과는 이러한 사정을 보여준다. 남측 용어가 306개, 북측 용어가 308개 판정되어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양측의 우세한 기준들이 작용한 결과이다.

‘변형 2’의 기준 순서는 ISO 704 (2009)에서 밝히고 있는 주요 기준들을 선순위에 두었다. ISO 704 (2009)에서는 ‘transparency(투명성)’, ‘consistency(일관성)’, ‘appropriateness(적합성)’, ‘linguistic economy(언어적 경제성)’, ‘derivability and compoundability(파생성과 합성성)’, ‘linguistic correctness(언어적 정확성)’, ‘preference for native language(모국어 우선성)’ 등의 기준들이 용어 형성의 원칙으로 삼았다.³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투명성, 일의성, 경제성’의 기준들을 선순위로 조정한 것이다. 이 변형 기준으로 판정을 했을 때, 남측 용어는 346개 선택되었고 북측 용어는 268개 선택되었다.

‘변형 3’의 기준 순서는 1차년도에 설정한 ‘기본 기준’을 바탕으로 위계를 설정하였다. 1차년도의 전문분야는 수학 및 자연과학 분야로 ‘투명성’과 ‘고유성’ 그리고 ‘경제성’의 기준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용어는 음절이 다소 긴 특징이 있어 경제성의 기준을 중요한 판정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이 변형 기준의 결과로 남측 용어가 364개 선택되었고, 북측 용어는 250개 선택되었다.

‘변형 2’와 ‘변형 3’의 기준에서 남측 용어가 조금 더 많이 선택된 이유는 ‘경제성’의 기준이 작용한 결과이다. [그림 26]를 보면 경제성의 기준에서 남측 용어가 14% 가까이 더 선택됨을 볼 수 있다. 수치로 보면 대략 100여 개가 더 선택되는 것이다. 다른 기준들이 거의 동등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 경제성 기준의 분포가 위와 같은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30) 본 연구에서의 ‘투명성’ 기준과 ISO 704 (2009)에서의 ‘투명성’은 그 외연이 조금 다르다. 본 연구의 ‘투명성’의 기준은 ‘transparency(투명성)’과 ‘appropriateness(적합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3. 국어 교과 전문용어 통합 과정에서의 쟁점

3.1 교과 외부

3.1.1 국가 명칭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 통합 과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교과 외부적인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사회적인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이념적인 문제이다. 먼저 사회적인 측면은 주로 국가 명칭과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다. 일단 다음을 보도록 한다.

- (9) ㄱ. 고구려어 - 고구려지역의조선어
 - ㄴ. 백제어 - 백제지역의조선어
 - ㄷ. 신라어 - 신라지역의조선어
 - ㄹ. 부여계언어 - 부여지역의 조선어³¹⁾

(9)는 남측의 ‘고구려어’, ‘백제어’, ‘신라어’, ‘부여계 언어’와 이에 대응하는 북측어인 ‘고구려지역의조선어’, ‘백제지역의조선어’, ‘신라지역의조선어’, ‘부여지역의조선어’를 함께 제시한 것이다. 남측에서는 주로 나라 명칭과 어(語)를 더하여 단어를 만들고 있었으나, 북측에서는 ‘나라의 명칭+지역+조선어’의 구조로 단어를 만들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이는 용어에 대한 이념 개입 여부와 관련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남측의 용어에는 이념적인 성향이 배제되었다면, 북측에서는 ‘조선어’라는 용어를 통해 자신들의 사상적인 부분을 대입하려고 한 것으로 분석된다.

(9)에 제시한 용어들 중에서도 의심스러운 것이 있다. 바로 (9라)이다. 의심스러운 부분은 ‘부여계언어’와 ‘부여지역의조선어’가 서로 대응하는 용어가 맞는지이다. ‘부여계 언어’가 부여가 사용하던 언어가 후대로 이어져 내려온 언어를 일컫는 용어일 수 있으므로, 두 용어가 완벽하게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남북 전문용어의 대응 관계를 설정할 때는 절대 동의어뿐만 아니라 부분 동의어도 인정해야 한다는 관점에 서고자 한다.³²⁾ 따라서 (9라)까지도 인정하

31) 본고에서는 ‘부여계 언어’라는 용어를 확보하였으나, 학자에 따라서는 ‘부여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이기문 1998).

32) 의미 관계에서 절대 동의어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남북 전문용어의 대응 관계를 설정할 때도 적용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남북의 용어들이 부분적으로 의미가

도록 한다.

이러한 ‘조선어’라는 명칭과 관련된 문제는 (9) 외에 다른 경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을 보도록 한다.

- (10) ㄱ. 고대국어 - 고대시기조선어
- ㄴ. 중세국어³³⁾ - 중세중기조선어
- ㄷ. 근대국어 - 근대시기조선어
- ㄹ. 개화기국어 - 근대시기조선어
- ㅁ. 현대국어 - 현대조선어

(10)은 시기별로 한반도에서 쓰인 언어에 대한 남측과 북측의 용어이다. 남측은 고대-중세-근대-현대로 나누고 여기에 ‘국어’라는 명칭을 덧붙이고 있다.³⁴⁾ 마찬가지로 북측에서도 고대-중세-근대-현대로 나누고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북측에서는 과거의 언어와 현대의 언어를 구별하기 위해, 과거의 언어에만 ‘시기’라는 용어를 더하고 있다는 점이다. (10)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시기 구분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어와 조선어의 대응 관계이다.

현재 남측의 학교 문법에서 국어사의 시대 구분으로 따르는 것은 이기문(1998)이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이기문(1998)에서는 언어사(言語史)적인 측면을 주된 기준으로 설정하고, 정치사(政治史)적인 요소를 부차적인 요소로 보태어 국어사의 시대 구분을 시도하였다.³⁵⁾ 하지만 북측의 국어사 시대 구분과 그 기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통일 이후에는 국어사의 시대 구분이 기존 논의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북측과 남측 학자들의 의견 교환을 토대로 새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0)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생각

유사하다면, 대응하는 짝으로 보는 견지를 취하려고 한다.

33) 학계에서 중세국어란 전기중세국어와 후기중세국어를 함께 일컫는 용어이다(이기문 1998). 다만 본 연구에서 수집한 중세국어란 용어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국어를 지칭하는 것이다. 즉, 후기중세국어만이 중세국어에 해당하는 것이다. 최근 학계에서도 중세국어라고 하면 보통 이기문(1998)의 후기 중세국어를 가리키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34) 최근에는 ‘국어’라는 용어 대신 ‘한국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유형론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대 한국어, 중세 한국어, 현대 한국어 등). 이는 ‘국어’라는 용어가 가진 이념적인 성격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한국어’라는 용어를 통해 다른 나라의 언어와 구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35) (2)와 달리, 이기문(1998)에서는 개화기국어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현대 한국어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개화기국어를 근대 한국어로 설정한 북측의 시대 구분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개화기국어의 시기 구분에 대해서는 고영근(2000), 신중진(2007)등 참고.

된다.

다음은 국어와 조선어의 대응 관계이다. (10)만 고려한다면, 남측의 ‘국어’에 대응하는 북측의 용어로 ‘조선어’를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9)를 함께 생각한다면, 북측의 ‘조선어’가 남측의 ‘국어’보다 더 큰 개념임을 파악할 수 있다. 남측에서 ‘고구려 국어/고구려 한국어’와 같은 용어는 전혀 쓰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 먼저 생각할 것은 ‘한국’ 혹은 ‘조선’과 같은 국가의 명칭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 부분은 통일이 되면 저절로 해결될 부분이므로, 여기서는 살펴보지 않는다.³⁶⁾

다음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은 (9)에 대한 통합 방안이다. (9)에 제시된 남측과 북측의 용어는 각기 한계점이 있다. 남측 용어는 ‘고구려어’, ‘백제어’ 등과 달리, ‘고려어’가 빈칸으로 남아있다는 것이다.³⁷⁾ 북측 용어는 용어에 포함된 ‘지역’이라는 용어가 옛날 언어를 나타내는 것에는 부적합하다는 점이다.³⁸⁾ 따라서 (10)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두 용어 중 한 쪽의 우세를 제시할 필요는 없다. 남측과 북측에서 중사하는 학자들의 기존 논의와 토론을 통해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조선어’라는 용어가 국어 교과서의 국어사 관련 전문용어 통합에 문제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조선어’라는 명칭은 여전히 문제로 자리하고 있다. 다음을 보도록 한다.

(11) ㄱ. 조선어 - 조선어

- ㄴ. 조선어사전 - 조선어사전
- ㄷ. 조선어연구회 - 조선어연구회
- ㄹ. 조선어학회 - 조선어학회
- ㅁ. 조선시대의 문학 - 조선문학

(11) 역시 ‘조선’의 의미로 인해 남북 전문용어가 정확하게 대응하지 않는 예들이다. 간단히 설명한다면, (11ㄱ-ㄴ)에서 남측의 ‘조선어’의 ‘조선’은 대한제국의

36) 통일 이후에 국가 명칭을 정하면 쉽게 해결될 부분이기 때문이다.

37) 현재 학계에서 ‘고려어’란 고려시대의 언어가 아니라,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고려인들이 쓰는 언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권재일 2010:1). 아울러 학계에서는 현재 ‘조선어’라는 용어도 잘 쓰지 않는다(표준국어대사전에는 실려 있음). ‘고려시대의 언어’, ‘조선시대의 언어’라는 용어 대신 고대 국어, 중세 국어라는 용어로 이들을 대체하고 있다. 이는 국어사의 시대 구분이 정치사적인 면모보다는 언어사적인 측면을 중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영한 결과로 파악된다.

38) 보다 투명한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라면, ‘고구려시기의 조선어’, ‘백제시기의 조선어’가 옛날의 언어를 나타내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건국 이전의 나라 명칭을 의미하나, 북측의 조선어는 현대에도 쓰이는 북측의 언어까지도 포괄한다.³⁹⁾ 그리고 (11다-라)에 제시된 남측의 ‘조선어연구회’와 ‘조선어학회’는 역사적인 특정 단체를 의미하나, 북측의 조선어연구회와 조선어학회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연구 단체의 이름이 될 수 있다.⁴⁰⁾ 즉, (11ㄱ-ㄴ)에서 제시되고 있는 남측과 북측의 용어는 형태는 동일하나, 의미 차이는 매우 크다.

한편 (11口)의 예 역시 남과 북에서 사용하는 ‘조선’의 의미 차이로 인해 남북 전문용어가 정확하게 대응하지 않는 예이다. (11ㄱ-ㄴ)와 달리, (11마)는 형태와 의미 모두 다르다. 통일 이후에 (11)과 같은 용어들을 통합하는 방안은 국어 교과 외부의 문제로 보인다. 나라의 명칭이 정해지면, 그에 맞춰 용어들을 정비하면 되기 때문이다. 즉, 통일 이후에 ‘나라의 명칭+어(語)’의 형태로 우리나라 말을 지칭하는 용어를 설정하면 되는 것이다. 아울러 이는 (9)와 (10)의 통합 방향에도 적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 국가 명칭으로 인해 남북 전문용어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용어 차이는 통일 이후 국가 명칭을 새로이 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된다. 물론 고구려어와 백제어 같은 옛날 언어가 문제가 될 것이나, 이러한 부분은 학계의 합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3.1.2 사회주의 사상

다음으로 검토할 전제 조건은 이념, 즉 사회주의 사상이 개입하여 남측과 북측의 전문용어가 차이를 보이는 경우이다. 다음의 예를 보도록 한다.

(12) ㄱ. 표준어- 표준어

ㄴ. 표준어: 「명사」 『언어』

「1」 한 나라에서 공용어로 쓰는 규범으로서의 언어. ≡대중말 「1」 · 표준말 「1」.

「2」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단어. 우리나라에서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대중말 「2」 · 표준말 「2」.

39) 한일 합방 이후 일제의 ‘국어’ 개념이 자리 잡으면서 현재 남측의 ‘조선’은 폼하의 의미를 드러내기도 한다. 현재 인터넷에서 많이 쓰이는 신조어인 ‘헬조선’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

40) 북측의 조선어연구회, 조선어학회에 대응하는 남측의 용어로는 국어연구회, 국어학회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물론 남측의 국어연구회와 국어학회는 고유명사이기도 하다.

ㄷ. 표준어: 언어 ① = 표준말. ② 낯은 사회에서: “서울의 중류계층 곧 도시 소부르조아지들이 쓰던 말을 기준으로 하여 규범화한 말”을 이르는 말. 標準語

(12)는 남측의 ‘표준어’와 북측의 ‘표준어’를 대응시키고, 그 뜻풀이를 제시한 것이다. 남측과 북측에서 ‘표준어’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 형태가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표준어’에 대한 남측과 북측의 의미는 다르다. 이는 ‘표준어’에 대한 남측과 북측의 뜻풀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⁴¹⁾ (12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남측의 ‘표준어’는 이념의 색채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북측의 ‘표준어’는 사회주의적 이념을 바탕으로 풀이되어 있다. 이는 (12ㄷ)의 ‘낯은 사회, 도시 부르조아’와 같은 단어 사용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⁴²⁾

따라서 형태만으로 ‘표준어(남측)-표준어(북측)’의 대응 관계를 선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주지하듯이, 남측의 ‘표준어’에 대응하는 용어로 북측에는 ‘문화어’가 있다. 그러므로 표준어(남측)-문화어(북측)로 대응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온당하다.⁴³⁾ 이러한 ‘표준어-문화어’의 통합 방안은 신중진 외(2015, 2016)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합 원리의 바깥에 위치한다. 통일 이후 언어 정책의 일환으로 한쪽 용어를 선정하거나, 혹은 새로운 용어를 도입하면 해결되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용어 역시 (12)와 유사한 예이다.

(13) 가. 낭만주의 - 량만주의

나. 『예술』 꿈이나 공상의 세계를 동경하고 감상적인 정서를 중시하는 창작 태도.

다. 『문예』 작가의 주관적희망과 리상을 생활반영의 조건적인 형식으로 표현하는 창작경향이나 창작방법 또는 그에 기초한 문예사조. 착취사회의 현실생활을 부인하고 그에 대치되는 이상적인 생활을 그리면서 특수한 환경에서 이상적인 인물성격을 형성한다. 계급적립장과 미학적리상에 따라 진보적량만주의와 반동적량만주의로 나눈다.

41) (4나)는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이고, (4다)는 《조선말대사전》의 뜻풀이이다. 이후 논의에서도 뜻풀이를 언급하는 경우, 남측은 《표준국어대사전》, 북측은 《조선말대사전》의 뜻풀이에 주로 의지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남측 용어의 뜻풀이를 《우리말샘》에 의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42) ‘낯은 사회’는 남측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측에 대한 북측의 인식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43) 국립국어원 수행한 연구 과제인 김선철(2008) 역시 ‘표준어’에 대응하는 용어로 ‘문화어’를 든다.

(13) 역시 남측의 낭만주의와 북측의 ‘랑만주의’를 대응시키고 그 뜻풀이를 제시한 것이다. (12)와 마찬가지로, ‘낭만주의-랑만주의’는 동일한 형태이다. 하지만 어문 규범으로 인해 표기가 달라진 유형이다. 따라서 (12)와는 다른 유형에 해당한다. 형태는 동일하지만, 뜻풀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북측 용어인 ‘랑만주의’에 이념적인 색채가 짙게 배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남측과 북측의 ‘낭만주의’와 ‘랑만주의’가 대응하지 않는 용어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남측의 ‘낭만주의’에 대응하는 전문용어로 북측의 ‘랑만주의’를 선정하도록 한다. 이념적인 요소만을 제외한다면, 남측의 ‘낭만주의’와 북측의 ‘랑만주의’는 유사한 의미를 보유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표준어-문화어’의 관계와 달리, 북측에서는 남측의 ‘낭만주의’에 엄격하게 대응하는 용어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본고에서는 (13ㄱ)의 대응 관계를 인정하고자 한다.

한편 전혀 다른 형태이지만 이념적인 요소로 인해 남북 전문용어가 서로 짝이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다음을 보도록 한다.

(14) ㄱ. 진보적 인물 - 긍정인물

ㄴ. 긍정인물 「001」 「명사」 「북한어」 『문학』 공산주의적 관점에서, 선진적이고 진보적인 사상과 지향을 구현한 인물을 이르는 말.

ㄷ. 부정적 인물 - 부정인물

ㄹ. 부정적 인물: 작가의 인생관이나 세계관에 반하는 입장에 놓인 인물. 이러한 인물은 대개 인생이나 사회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며, 주인공과 갈등의 관계에 놓인다.

ㅁ. 부정인물: 『문예』 작가의 사회미학적리상의 견지로 보아 반동적이고 보수적이며 낡은 사상과 지향을 가진 인물. ㄴ 긍정인물과 ~. §否定人物

(14) 역시 사회주의 사상과 관련되는 용어들이다. (14ㄱ, ㄴ)은 완전히 다른 형태이지만, 이념적인 요소로 인해 서로 짝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다. 이와 달리, (14ㄷ-ㅁ)은 유사한 형태이나, 이념적인 부분으로 인해 서로 짝으로 처리하기 주저되는 부분이다.

먼저 (14ㄱ, ㄴ)을 살펴보면, 남측에서 ‘진보적’이란 공산주의 이념과 관련되며, 북측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⁴⁴⁾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14ㄱ, ㄴ)

44) 《우리말샘》에서는 ‘진보적 인물’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긍정인물’은 표제어로 실려있다. 다만 ‘진보적’의 뜻풀이로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또는 그런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의 ‘진보적 인물 - 긍정인물’은 남측과 북측이 대응하는 용어가 된다. 이와 달리, (14ㄷ)의 ‘부정적 인물 - 부정인물’은 서로 짝으로 볼 수 있을지 주저된다. 북측 용어가 보유한 이념적인 성격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글은 (13)과 마찬가지로 ‘부정적 인물 - 부정인물’ 역시 대응 용어로 보도록 한다. 이념적인 요소만 배제한다면, 두 용어의 의미가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⁴⁵⁾

이처럼 이념적인 문제는 특히 문학 분야 전문용어에서 많이 확인된다. 문학과 철학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기 때문이다(조동일 2005ㄴ 참고). 따라서 문학 분야 전문용어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념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의 근본이 되는 부분으로, 전문용어의 통합 원리로만 접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3.2 교과 내부

3.2.1 문법 분야

이 절에서는 남측과 북측이 문법교육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통합하기 전에 수행해야 할 것들을 미리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통일된 국가의 학교 현장에서 문법을 가르치기 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은 통합 문법을 세우는 일이다. 이는 남측과 북측의 문법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다.⁴⁶⁾ 가장 극명하게 다른 부분은 ‘조사’의 지위이다. 현행 남측의 학교 문법에서는 ‘조사’를 단어로 보고 어미와 구분한다. 하지만 북측에서는 ‘조사’와 ‘어미’를 동등하게 보고, ‘토’라는 용어로 통칭한다.

(15) ㄱ. 격조사 - 격토

ㄴ. 처소격조사 - 위격토

45) 이는 북측의 문학이 사회주의 사상을 선전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현실을 고려한 처리이다. 만약 북측 문학이 이러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남측의 문학과 동일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고려하여, 이 글은 북측의 ‘부정인물’은 남측의 ‘부정적 인물’과 동일한 것으로 처리한다.

46) 남측의 학교문법은 5차 통일 문법인 남기심·고영근(1985)를 시작으로, 7차 문법 해설서인 이관규(2002), 임지룡 외(2005), 고영근·구분관(2008)으로 이어져 내려온다. 최근에는 그 역할을 구분관 외(2015, 2016)이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 문법의 용어 정비는 남기심 고영근(1985)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최근 학계에서도 이들 용어를 기본으로 삼고 있다. 이로 인해 최현배(1937;1989), 허웅(1975)의 용어는 학계에서 잘 쓰이지 않는다. 하지만 북측의 용어는 최현배(1937;1989)와 허웅(1975)의 용어와 유사하다. 이러한 점에서 통일 이후의 통합 문법을 세우는 일은 지난한 일일 것으로 예측된다.

- ㄷ. 보조사 - 도움토
- ㄹ. 서술격조사 - 바꿈토
- ㅁ. 종결어미 - 맺음토
- ㅂ. 의문형종결어미 - 물음의 맺음토
- ㅅ. 주체존대선어말어미 - 존경토

(15)는 남측에서 사용하는 ‘조사’와 ‘어미’에 대해, 북측이 어떠한 용어를 사용하는지 제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조사와 어미를 엄격히 구분하는 남측과 달리 북측에서는 ‘토’라는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 이후 통합 문법을 세우기 위해서는 조사와 어미에 대한 명확한 문법적 지위 설정이 우선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이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도 있다. 그것은 (15ㄹ)이다. ‘서술격조사’는 조사나 어미가 아닌, ‘계사’, ‘의존형용사’로 처리하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 국립국어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표준문법’에서는 ‘이다’를 ‘의존형용사’로 처리하고 있다. 이는 학교문법의 ‘서술격조사’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파장이 크리라 생각된다. ‘학교문법’에서 ‘표준문법’의 처리를 온전히 받아들일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이다’를 ‘서술격조사’ 대신 ‘의존형용사’로 분류한다고 해서, 이러한 처리가 교육적으로 어떠한 효용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학교문법’과 ‘표준문법’의 주관 기관이 다르다는 점이다.⁴⁷⁾

이러한 논쟁은 통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통일 이전에 남측과 북측은 이에 대한 명확한 관점을 미리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세부적인 문법 개념에 대해서도 남측과 북측이 서로 입장을 달리 하는 경우가 있다.

- (16) ㄱ. 능동태 - 능동상
- ㄴ. 사동 - 시킴상
 - ㄷ. 중간태 - 중동상
 - ㄹ. 피동태 - 피동상
 - ㅁ. 명사파생접미사 - 바꿈토
 - ㅂ. 명사형전성어미 - 바꿈토

47) 주지하듯이 학교문법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문법이다. 따라서 주관기관은 교육부가 된다. 하지만 국립국어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표준문법은 문화관광부가 된다.

(16)은 문법 개념으로 인해 용어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우선 (16ㄱ-ㄴ)부터 살펴보면, 문법범주인 태(voice)와 상(tense)의 개념 차이로 인해 남북 전문용어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이다. 즉, 같은 개념에 대해 남측에서는 ‘태’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북측에서는 ‘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16ㄱ-ㄴ)은 용어 차이가 ‘파생’과 ‘굴절’의 개념에 기인한 것이다. 즉, 남측에서는 파생과 활용을 비교적 엄격히 구분하나, 북측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⁴⁸⁾ (16)과 같은 용어들에 대한 통합은 전문용어 통합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태와 상에 대한 정밀한 개념 정립과 국어학 전공자들의 논의를 기반으로 통합될 수 있다.

한편, 문법교육 분야에서도 하나의 개념에 대해 남측과 북측이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다음을 보도록 한다.

- (17) ㄱ. 된기역, 쌍기역 - 된기억
 ㄴ. 명령형 어미, 명령형 종결어미 - 시킴의 맺음도
 ㄷ. 사전학, 사전편찬학 - 사전편찬학
 ㄹ. 의성어, 소리를 흉내내는 말 - 소리본딤말
 ㅁ. 장단 - 장단, 길이마루
 ㅂ. 접속어 - 접속어, 이음말
 ㅅ. 입천장소리되기, 경구개음화 - 《지, 치》로 되기, 경구개음화
 ㅇ. 통사론, 문장론, 통어론, 구문론 - 문장론, 구문론

(17)은 하나의 개념에 대해 남측과 북측이 여러 용어를 사용한 경우를 제시한 것이다. 먼저 (17ㄱ-ㄴ)를 통해 남측은 하나의 개념에 대해 여러 용어를 사용하나, 북측은 하나의 용어를 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발견된다. 이는 (17ㄱ-ㄴ)에서 드러난다. 이와 달리, 하나의 개념에 대해 남측과 북측이 여러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17ㅅ-ㅇ)가 그 예가 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용어들에 대한 통합 절차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남측과 북측이 각기 표준화 작업을 실시한 후, 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각 용어들에 대해 모두 우열을 가르고 가장 좋은 용어를 선정하는 것이다. 물론 이와 함께 교육적인 효과도 아울러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학습자의 교육 수준에 적합한 용어를 골라내기 위한 작업이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그 전에 학계 차원에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48) 남측의 파생과 굴절에 대한 구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논의는 Bybee, J. L(1985)이다. 그리고 국내의 대표적인 논의로는 구분관(1998)을 제시할 수 있다. 파생과 굴절의 개념 구분에 대해서는 양정호(2008)에서 상세히 정리한 바 있다.

3.2.2 문학 분야

이 절에서는 남측과 북측이 문학교육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고, 전문용어 통합 작업을 시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들을 미리 진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문학교육의 측면에서 보면, 남측과 북측에서 우선적으로 달성해야 할 사항은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을 새로이 선정하는 일이다. 이는 남측과 달리, 북측의 문학교육이 사회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⁴⁹⁾ 따라서 문학교육의 용어를 통합할 때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미리 이루어져야 한다.⁵⁰⁾

이와 함께 남측과 북측의 문학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용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8) ㄱ. 건국신화 - 건국신화, 건국설화
 - ㄴ. 주몽신화 - 주몽전설
 - ㄷ. 김수로왕신화 - 수로의출생담
 - ㄹ. 민간설화, 민담 - 민화
 - ㅁ. 고려가요, 고려속요, 고려가사 - 고려가요
 - ㅂ. 경기체가 - 경기체가요
 - ㅅ. 대하소설 - 대장편소설

(18)은 문학의 체계 차이로 인해 용어가 서로 달라진 경우이다. 주로 갈래명이나 작품명과 관련된다.⁵¹⁾ 우선 (18ㄱ-ㄴ)부터 살펴보도록 한다. (1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남측에서는 설화-신화-민담-전설의 경계가 엄격히 나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남측에서는 ‘건국’과 관련된 설화를 ‘신화’라는 용어로 일관되게 부르나, 북측에서는 ‘신화, 출생담, 전설, 설화’ 등 여러 용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남측의 이러한 분류는 조동일(2005ㄱ)의 논의를 따른 것이다. 하지만 북측에서는 어떠한 이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다.⁵²⁾

49) 현재 남측은 문학의 효용성을 개인 및 사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정하고 있으나, 북측은 문학의 효용성을 사회적 측면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주체 사상, 혁명 사상 주입에 문학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희 외 (2015: 13-14) 참고.

50) 이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논의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51) 물론 모든 갈래명이 다른 것은 아니다. ‘항가’에 대해 남측과 북측은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단군신화’ 역시 남측과 북측 모두 ‘단군신화’로 부르고 있다.

52) 조동일(2005ㄱ,ㄴ)에서는 설화를 최상위 개념으로 설정하고 그 밑에 신화, 민담, 전설

같은 경우가 남측에서도 발견되는데, (18口)가 그러하다. 고려시대에 불린 노래에 대해서 남측은 ‘가요’, ‘속요’, ‘가사’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만, 북측은 일관되게 가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⁵³⁾ 한편, (18日, 人)은 다소 다르다. 특정 갈래에 대해 남측과 북측이 각기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어떠한 용어의 우월성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 특정 학자의 용어가 교육 현장에 도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18日, 人)에서 제시된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은 관련 분야 학자들의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만이 정리될 수 있다.⁵⁴⁾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남측과 북측의 문학 교과 전문용어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문학사 및 장르, 갈래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일치된 의견에 도달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아울러 이는 현대문학사의 서술과 관련해서는 더욱 첨예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측된다.⁵⁵⁾ 남측과 북측이 서술하고 있는 현대문학사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사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므로, 전문용어 통합 기준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벽찬 과제이다. 관련 학자들의 치열한 논의와 토론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3.2.3 기능교육 분야

기능교육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교육을 함께 일컫는 것이다.⁵⁶⁾ 이러한 기능교육은 국어교육의 핵심으로 자리한다. 이는 국어 교과의 성격과 관련된 것이다. 주지하듯이 국어 교과의 목표는 학습자들이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

을 배치한다. 그리고 신화, 민담, 전설을 시기에 따라 분류한다. 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문학교육에서도 이러한 분류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아울러 북측의 이론적 기반에 대해서는 필자의 과문함에 기인한 것이다.

53)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속요’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근거는 성기옥·손종흠(20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조동일(2005-)에서는 ‘속악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54) 실제로 남측의 ‘경기체가’는 ‘별곡체’, ‘경기가요’ 등으로 불렸으나, 최근에 와서 ‘경기체가’라는 용어로 굳어진 것이다. (16日, 人)의 용어 차이도 학자들 간의 토론에 의해 해소될 여지가 많다. 물론 전문용어의 통합 기준에 의한 통합안 제시는 이에 대한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55) 이에 대한 용어 조사는 실시하지 못하였다. 다만 북측에서 문학이 사상 선전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대문학사의 서술은 극명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일정한 시기에 대한 용어 사용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김윤식·김현(1998)에서 도입한 ‘해방공간’이라는 용어가 있다. 이 용어는 비교적 이념적인 부분이 탈색된 용어이다. 하지만 이 시기에 대해 북측에서는 이념이 개입된 용어를 조어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해방공간’은 미국과 관련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56) 논자에 따라 교과교육론, 표현이해교육론, 국어교육론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용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에 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는 의사소통과 밀접히 관련된 영역으로서, 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 된다. 이러한 교육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능교육은 현행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국어영역에서의 출제 비중이 가장 높다.

하지만 기능교육은 그 학문적 기반이 오래되지 않아, 아직 그 전문성이 탄탄하지 못하다. 이로 인해 국어 교과에 도입된 전문용어의 수도 많지 않다. 이로 인해 남측과 북측이 서로 대응하는 전문용어를 찾아내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와 동격로 남측과 북측이 기능교육 체계로 인해 용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그리 많지 않다. 다만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는 미리 점검할 부분이 있다.

- (19) ㄱ. 글쓰기, 작문 - 글짓기, 작문
- ㄴ. 머리말, 서론 - 머리글, 서론
- ㄷ. 맺음말, 결론 - 맺는글, 결론
- ㄹ. 도표, 그림표 - 도표

(19)는 남북이 기능교육에서 서로 다르게 쓰고 있는 용어들 중, 일부를 제시한 것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하나의 개념이 각기 다른 용어로 다양하게 쓰인다는 것이다. 자세히 언급하면, (19ㄱ)의 ‘글쓰기, 작문’은 남측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고, (19ㄴ)의 ‘글짓기, 작문’은 북측의 것이다. 마찬가지로 (19ㄷ-ㄹ)의 ‘머리말, 서론, 맺음말, 결론, 도표, 그림표’는 남측의 용어이고, ‘머리글, 서론, 맺는글, 결론, 도표’는 북측에서 쓰는 용어이다.

언뜻 보면, 이들 용어를 통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남측과 북측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하나만을 선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를 따라 용어를 골라내면, ‘작문, 서론, 결론, 도표’가 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교육 수준에 따라 더 쉬운 용어를 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가령, 초등학교 국어 교과에서는 ‘도표’나 ‘작문’과 같은 용어보다는 ‘그림표’나 ‘글쓰기’가 학습자가 이해하기 용이한 용어가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19)와 같은 경우, 전문용어의 통합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다. 본고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남북 전문용어가 대응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산출해낸 후, 각각에 대한 통합안을 모두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특정한 하나의 용어를 가려내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있다. 특정한 용어를 선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예컨대, 글쓰기-글짓기의 경우만 가정해도 어느 용어가 더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둘째는 남측과 북측이 각각 전문용어 표준화 작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한 후, 통

합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⁵⁷⁾ (19ㄷ)만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남측이 ‘머리말, 서론’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실시한 용어와 북측에서 표준화 과정을 거친 용어를 대상으로 통합 작업을 시도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작업 역시 문제가 적지 않다. (19)에 제시된 남측의 전문용어들을 꼭 표준화해야하는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가령, 국어교육 현장에서는 ‘글쓰기’와 ‘작문’ 모두 튼튼한 생명력을 가지고 쓰이고 있다.⁵⁸⁾

따라서 현재로서는 (19)와 같은 용어들에 대해, 어떠한 특정 용어를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부분은 통일 이후,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과서를 새로이 편찬할 때, 논의되어야 한다. 물론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하나는 같은 개념에 대해 남측과 북측이 얼마나 많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폐기처분할 용어는 없는지 검토하는 것이다.⁵⁹⁾ 좋지 않은 용어를 미리 걸러내는 것만으로도 이후 합의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57) 본고는 한 국가 내부에서 대표 전문용어를 선정하는 것을 ‘전문용어 표준화’로 개념화한다. 그리고 특정한 두 국가의 전문용어 중 하나를 선정하는 것을 ‘전문용어 통합’으로 지칭한다. 남측과 북측은 현실적으로 서로 다른 국가이므로, 남측과 북측의 전문용어를 하나로 모으는 작업은 ‘전문용어 통합’에 해당한다.

58) 두 용어의 쓰임은 교육과정 수준에 따라 나뉜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글쓰기(쓰기)’가 쓰이나, 고등학교 심화 교육과정에서는 ‘작문’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59) 신중진 외(2016)에서 필터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문법성’과 ‘윤리미학성’의 틀에 걸리는 용어일 것이다. 예로는 ‘곧추치기’와 같은 용어를 제시할 수 있다(신중진 외 2016). 물론 이러한 용어가 많지는 않다. 하지만 교과서에 제시할 때는 우선적으로 배제해야한다.

V. 연구의 성과 및 향후 계획

1. 연구의 성과 및 제한점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성과와 제한점을 밝힌다. 연구의 성과는 발주처의 제안 내용에 따라 연구진이 수행한 내용을 다루고 제한점은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현실적인 어려움을 포함한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제시한다.

1.1 연구의 성과

발주처에서 제시한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ㄱ.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 분석 및 통합안 마련(2,000항목 이상)
 - ㄴ.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 통합을 위한 세부 지침 마련
 - ㄷ.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 통합 방안 수립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자문회의 개최
 - ㄹ. 제 14차 남북 언어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주제 발표

(1ㄱ)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어 교과의 전문용어를 추출하고 분석하여 통합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ㄴ)은 국어 교과를 문법, 문학, 기능교육으로 나누고 각각의 용어를 추출·분석하는 과정에서 달성할 수 있다. (1ㄷ)은 학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전문가 워크숍,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1ㄹ)은 본 연구의 결과물을 국제학술회의에 발표하여 연구의 의의를 밝히고 연구의 방향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

본 연구진은 이러한 제안 요청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성과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8> 2017 남북 국어 분야 전문용어 구축 연구 성과

연구 성과	
(1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측의 국어 전문용어 추출 · 북측 교과서 및 《광명백과사전》 등을 통한 북측 전문용어 확인 · 남북 국어 전문용어 언어학적 분석 ·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 확정
(1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의 일반 지침 마련 · 국어 문법 전문용어의 일반 지침 확인 · 국어 문학 전문용어의 일반 지침 확인 · 국어 기능교육 전문용어의 일반 지침 확인 · 일반 지침을 바탕으로 분야별 세부 지침 마련
(1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계 각층 전문가를 섭외하여 전문가워크숍 개최 · 발주처의 연구관과 학계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자문회의 개최
(1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 통합안 마련 · 제 14차 남북 언어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주제 발표

(1ㄱ)을 달성하기 위해 국어 교과 전문용어를 추출해야 한다. 본 연구진은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와 편수자료를 바탕으로 남측 용어를 추출하고 검토하였다. 그리고 북측 교과서 및 교재, 《광명백과사전》을 통해 대응하는 북측 전문용어를 확인하였다. 확인된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는 2,200개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남북의 교과서를 중심으로 전문용어를 수집하고 그것에 대한 통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ㄴ)은 2015년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 2016년 《남북 전문용어 구축》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각 영역의 통합 지침을 확인한 뒤,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 통합의 일반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어 문법 분야, 문학 분야, 기능교육 분야의 일반 지침을 확인하고 분야별 세부 지침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향후 전문용어 통합 연구 과정에서 의미 있게 작용할 것이라 생각한다.

(1ㄷ)은 전문가 워크숍과 자문회의를 거치면서 학계와 소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음으로써 연구 내용을 보다 심도 있게 고민할 수 있었고, 연구의 방향도 보다 명확해질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진행 내용을 학계에 소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1ㄹ)은 본 연구의 성과를 국제 학술회의에서 발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제 남북 상황은 비단 우리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 남북 전문용어의 통합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국제 사회에 소개하

는 과정은 향후 통일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밑거름 작업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다.

1.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한계점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ㄱ. 자료의 부재

- ㄴ. 북측 전문용어 전문가의 부재
- ㄷ. 통합 기준의 타당성
- ㄹ. 남북 이데올로기의 차이

첫째, 자료의 부재이다. 현재 북측의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경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북한 자료 센터> 유일하다. 그러나 연구 과정에서 북한 자료 센터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에는 여러 행정적인 제약이 따랐다. 또한, 정확한 대응어 확인을 위해 북측의 최신 자료를 살펴보는 것은 꼭 필요한 과정이었으나 그것에도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북측의 전문용어를 판별할 수 있는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현실적인 문제가 적지 않다. 대안은 새터민을 통해 신뢰도를 확보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현재 새터민 중에 국어 교과 전문용어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아울러 소수의 새터민에게서 얻은 자료의 신빙성 역시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셋째, 통합 기준의 타당성이다. 선행 사업인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 《남북 전문용어 구축》에 이어, 본 연구에서는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의 통합을 위한 적합한 통합 기준을 세우고자 하였다. 하지만 문제점이 존재한다. 통합 기준의 근거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 기준의 근거를 전문용어 표준화에서 찾고 있다. 전문용어의 표준화 근거는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므로 통합 기준으로 활용할 만하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표준화 기준을 분류한 것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표준화 기준을 통합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유 또한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남북 이데올로기의 차이이다. 이 문제는 앞서 진행되었던 선행 사업과는 또 다른 문제이다. 2015년과 2016년 사업에서는 수학, 과학, 체육 분야의 전문용어를 분석하였다. 이들 영역은 전문용어에 있어 남북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편차

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어 교과 전문용어에는 동음의 단어가 남과 북에서 확연한 의미적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 차이에 의한 단어 간 의미 차이를 어떻게 분류하고 해결해야 할지 역시 남은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을 살펴보았다. 향후 연구는 의의를 계승하고,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장을 달리하여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2. 향후 계획

이 장에서는 앞으로의 전문용어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아울러 향후 연구가 부딪칠 문제에 대해서도 예상해 보고자 한다.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3) ㄱ.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 전수 조사 및 통합
 - ㄴ. 인문 분야 전문용어 통합
 - ㄷ. 실생활 분야 전문용어 통합(농수산/의학/지리/기술 등)
 - ㄹ. 남북 전문용어 검색 어플리케이션 개발

(3ㄱ)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며 다음과 같다.

<표 59>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 전수 조사 및 통합의 장점과 문제점

(3ㄱ) 남북 국어 교과 전문용어 전수 조사 및 통합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교과 통합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 국어 영역의 분야별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 남북 전문용어 통합 방향을 세우기에 용이하다.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남북 이데올로기 차이가 존재한다. · 분야별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3ㄱ)의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먼저 다른 어떤 영역보다 국어 교과 통합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또한, 전수 조사 및 통합의 과정에서 국어 영역별 특징 역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국어 교과 뿐

아니라 전 영역에 걸쳐, 남북 전문용어 통합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3ㄱ)을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들이 앞에 놓여있다. 첫 번째는 북측 자료 확보의 어려움이다. 다시 말해 최신 자료를 확보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을 꼽을 수 있다. 둘째, 남북 이데올로기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수학 및 자연과학의 전문용어들과 달리, 국어의 전문용어에는 이데올로기가 상당 부분 개입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이어질 통합 작업에서는 이러한 이데올로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중요한 문제로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분야별 표준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표준화의 방향과 기준을 무엇으로 잡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표준화 작업의 신뢰도는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표 60> 인문 분야 전문용어 통합의 장점과 문제점

(3ㄴ) 인문 분야 전문용어 통합	
장점	·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자료의 수집, 분석이 용이하다. · 남북의 통일 교과서를 대비할 수 있다.
문제점	· 남북 간 인문 분야의 이데올로기 차이가 존재한다. · 하위 분야의 선별 작업이 필요하다.

(3ㄴ)의 연구 방향의 장점은 먼저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 기초 전문용어와 심화 전문용어의 차이점에 근거한 수학과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용어 분석을 마친 상태이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인문 분야 전문용어를 통합하는 작업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의 통일 교과서를 대비할 수 있다. 즉, 모든 학문의 근간이 되는 인문 분야 전문용어의 통합을 통해 통일 교과서 준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점도 존재한다. 역시 남북의 이데올로기의 차이가 그것이다. 분단의 시간만큼 남북의 이질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는데, 그러한 이질성에는 남북의 이데올로기 차이로 인해 동일 전문용어에 대해 개념 차이, 의미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야 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인문 영역의 하위 분야 선별 작업이 필요하다. 인문 영역은 수많은 하위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어느 분야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또한, 선택의 기준 역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표 61> 실생활 분야 전문용어 통합의 장점과 문제점

(3ㄷ) 실생활 분야 전문용어 통합(농수산/의학/지리/기술 등)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생활 분야에서 용어 표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 국민들의 언어 사용에 실제적 도움이 될 수 있다. · 남북 이데올로기가 반영되지 않는 영역이다.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전문용어의 양이 방대하다. · 이전 사업과의 연계성이 약하다.

(3ㄷ)은 농수산, 의학, 지리, 기술 등 다양한 실용 분야의 전문용어들을 수집하고 통합하는 것이다. 실생활 분야의 전문용어 통합은 생활용어의 용어 표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통일 준비기, 통일 이후에도 직접적인 이득이 된다는 점도 장점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남북의 상이한 이데올로기가 반영되지 않는 분야라는 점에서 통합 과정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역시 각 분야별 전문용어의 양이 방대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어떠한 기준으로 어느 영역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이전 사업에서 진행한 분야와의 연계성이 약하다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된 분야를 찾아 이어지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62> 남북 전문용어 검색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장점과 문제점

(3ㄹ) 남북 전문용어 검색 어플리케이션 개발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집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 남북 전문용어 통합의 실질적인 발판이 될 수 있다.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분야의 전문용어가 구축되지 않았다. · 실제 이용자 수가 많지 않을 것이다.

(3ㄹ)은 선행 연구와 현행 연구에서 수집한 용어를 바탕으로 남북 전문용어 통합 검색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집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러한 축적물을 통해 남북 전문용어 통합의 실질적인 발판이 될 수 있다.

다만 문제점도 존재한다. 아직 모든 분야의 전문용어가 구축되지 않았다. 기간이 걸리더라도 분야별 전문용어 구축 후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할 것인지, 우선적으로 구축된 분야만을 선 공개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선행 연구와 현행 연구에서는 수학과 자연과학, 체육과 국어 교과와 전문용어를 구축하였다.

우선적으로 구축된 분야를 선 공개 한다고 하였을 때, 선행 연구와 현행 연구의 전문용어가 일반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

※ 참고 문헌

<교과서 및 교육과정>

1. 남측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5), 《교과서 편수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진숙 외(2016), 《통일 대비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 연구 2 - 총론, 국어, 사회
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창원 외(2015),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II -국어과 교육과
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윤여탁 외(2016), 《고등학교 국어》 I, 미래엔.
- 윤여탁 외(2016), 《고등학교 국어》 II, 미래엔.
- 윤여탁 외(2016), 《독서와 문법》, 미래엔.
- 윤여탁 외(2016), 《문학》, 미래엔.
- 윤여탁 외(2016), 《중학교 국어》 1, 미래엔.
- 윤여탁 외(2016), 《중학교 국어》 2, 미래엔.
- 윤여탁 외(2016), 《중학교 국어》 3, 미래엔.
- 윤여탁 외(2016), 《중학교 국어》 4, 미래엔.
- 윤여탁 외(2016), 《중학교 국어》 5, 미래엔.
- 윤여탁 외(2016), 《중학교 국어》 6, 미래엔.
- 윤여탁 외(2016), 《화법과 작문》, 미래엔.

2. 북측 자료

- 교육도서출판사(2013), 《국어문학-고급중학교》 1, 교육도서출판사.
- 교육도서출판사(2015), 《국어문학-고급중학교》 3, 교육도서출판사.
- 교육도서출판사(2015), 《국어-초급중학교》 3, 교육도서출판사.
- 우인철 외(2013), 《국어-초급중학교》 1, 교육도서출판사.
- 우인철 외(2014), 《국어-초급중학교》 2, 교육도서출판사.
- 차중필 외(2000), 《론리학초보교수참고서》, 교육도서 출판사.
- 최준영 외(2002), 《국어문법-고급중학교》 1, 교육도서출판사.
- 최준영 외(2002), 《국어문법-고급중학교》 2, 교육도서출판사.
- 최학 외(2014), 《국어문학-고급중학교》 2, 교육도서출판사.

<논문 및 연구서>

- 강보선 외(2016), 북한의 2013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특징, 《국어교육연구》 62, 국어교육학회.
- 고석주 외(2007), 《전문용어연구 - 정리현황과 과제》, 태학사.
- 고영근(2000), 개화기의 한국 어문운동: 국한문혼용론과 한글전용론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25,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고영근 외(2010), 《북한의 문법연구와 문법교육》, 박이정.
- 고정희 외(2015), 남북한 초중고등학교 국어교육 통합을 위한 기초 연구, 《국어교육연구》 3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 구본관 외(2002), 《남북한어의 공동 순화 방안 연구》, 국립국어원 연구 용역 보고서.
- 구본관(1998), 《15세기 국어 파생법에 대한 연구》, 태학사.
- 구본관 외(2015), 《한국어 문법 총론 1》, 집문당.
- 구본관 외(2016), 《한국어 문법 총론 2》, 집문당.
- 국립국어원, 《21세기 세종계획. 전문용어의 정비 연구보고서》,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원, 2005.
- 권영민(2002),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 권재일(2006), 《남북 언어의 문법 표준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 권재일(2010), 《중앙아시아 고려말의 문법》,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김광수(2004), 《남북한 전문용어 비교 연구》, 역락.
- 김남돈(2003), 《('토'를 중심으로 본) 북한 문법 이론의 발전 과정》, 한국문화사.
- 김문오(2007),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1》, 국립국어원.
- 김병문·주영훈(2017), 남북 통합 국어사전에서의 언어학 용어 처리 방안 연구, 《한국사전학》 29, 한국사전학회.
- 김선숙(2014), 남북한 규범문법의 격 표시 형태소 처리의 비교, 《한어문교육》 31,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 김선철(2008),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2》, 국립국어원.
- 김유진·신중진(2016), 남북 수학·과학 교과서에 나타나는 전문 용어 분석, 《동아시아문화연구》 64,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 김유진·신중진(2017), 남북 자연과학 심화 전문용어의 형태적 분석, 《겨레어문학》 58, 겨레어문학회.
- 김윤식·김현(1998), 《한국문학사》, 민음사.

- 김정선(2015), 국어교육의 북한어 이해 교육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어교육연구》 58, 국어교육학회.
- 김정은 외(1997), 《남북한 언어 연구》, 박이정.
- 김진숙(2015), 《통일 대비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 연구 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진용 외(2007), 《전문용어 구축 연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남기심·고영근(1985),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배선미·시정곤(2004), 한국어 전문용어 조어 분석에 대한 통계적 연구 - 물리, 화학, 생물, 의학 용어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25, 한국어학회.
- 성기욱·손종흠(2010), 《고전시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신중진(2007), 《개화기 국어의 명사 어휘 연구》, 태학사.
- 신중진·엄태경(2016), 심화 전문용어의 조어 분석과 그 실제 - 물리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60, 한국언어문화학회, 165-190.
- 신중진 외(2015), 《2015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 국립국어원 연구 용역 보고서.
- 신중진 외(2016), 《2016 남북 전문용어 구축》, 국립국어원 연구 용역 보고서.
- 신중진·이성우(2016), 기초 전문용어의 개념 확립을 위한 시론, 《한국언어문화》 59, 한국언어문화학회.
- 양명희(2003), 《북남 대역 사전을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연구 용역 보고서.
- 양정호(2008), 단어 형성 과정 기술의 몇 문제: 구본관(1998)을 중심으로, 《형태론》 10-2, 형태론.
- 엄태경(2015), 남북 수학 기초 전문용어 통합을 위한 제언, 《한국사전학》 26, 한국사전학회.
- 엄태경·신중진(2017), 남북 전문용어의 조어분석과 통합 - 수학, 물리 분야를 중심으로-, 《국어학》 82, 국어학회.
- 오세진·신중진(2016), 남북 체육 기초 전문용어의 어종 분석, 《우리말글》 70, 우리말글학회.
- 유현경(2013), 표준문법의 개념과 필요성, 《문법교육》 19, 문법교육학회.
- 유현경(2015), 학교문법 정립에 있어서 표준문법의 역할, 《우리말연구》 43, 우리말학회.
- 이관규(2012), 《학교문법론》, 월인.
- 이기문(1998), 《국어사개설》, 태학사.
- 이대성 외(2013), 《남북 언어 예절 비교 연구》, 국립국어원 연구 용역 보고서.
- 이대성(2015), 남북 언어 통합 사업의 현황과 과제, 《겨레말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발표자료집》, 국립국어원·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

- 회.
- 이성우·신중진(2016), 심화 전문용어의 개념 확립을 위한 시론, 《동아시아문화연구》 66, 동아시아문화연구소.
- 이향근(2017ㄱ), 통일 시대 초등 국어교과서 설계를 위한 한국 북한 연변의 초등 국어과 교육내용 비교,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제201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이향근(2017ㄴ), 남한 북한 연변의 기초 문식성 교육 내용 비교, 《초등교육연구》 28-1, 서울교육대학교.
- 이현주(2007ㄱ), 외국 사례를 통해 본 전문용어: 프랑스, 캐나다의 경우, 《새국어 생활》 17-1, 국립국어원.
- 이현주(2007ㄴ), 전문영역 표기의 사전적 기능에 대하여: 일반언어사전을 중심으로, 《한국사전학》 9, 한국사전학회.
- 이현주(2015ㄱ), 전문용어 사전의 이론적 배경과 그 흐름, 《프랑스학연구》 74, 프랑스학회.
- 이현주(2015ㄴ), 전문용어 연구의 이론과 실제, 《한국사전학》 26, 한국사전학회.
- 이현주(2015ㄷ), 전문용어학의 이론적 토대를 위한 개념 연구, 《제42회 한말연구 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말연구학회.
- 이현주·신중진(2017), 남북 전문용어 통합 방안을 위한 물리 분야 용어 이질성 연구. 《한국언어문화》 62, 한국언어문화학회.
- 이현주 외(2007), 《외래 전문용어 번역 및 조어법 연구》, 국립국어원 연구 용역 보고서.
- 임지룡(1992), 《국어 의미론》, 탑출판사.
- 임지룡 외(2005), 《학교문법과 문법교육》, 박이정.
- 전수태(1990), 《남북한 언어 차이 조사3. 한자어 외래어》, 국어연구소.
- 전수태(2005), 《남북한 어문규범 연구사》, 국립국어원 연구 보고서.
- 전수태(2010), 남북 통일시대의 국어교육의 방향, 《국어교육》 131, 한국어교육학회.
- 전수태·최호철(1989ㄱ), 《남북한 언어 차이 조사1. 발음·맞춤법》, 국어연구소.
- 전수태·최호철(1989ㄴ), 《남북한 언어 차이 조사2. 고유어》, 국어연구소.
- 정도복(1996), 북한의 언어규범에 규정된 ‘토’ 연구, 《웅진어문학》 4-12, 웅진어문학회.
- 조남현(1989), 《소설원론》, 고려원.
- 조동일(2005ㄱ), 《한국문학통사 1》, 지식산업사.
- 조동일(2005ㄴ), 《한국문학통사 2》, 지식산업사.
- 조은경(2001), 《전문용어의 어휘 형태론적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은경·서상규(2000), 전문용어와 전문언어 말뭉치, 《전문용어연구》 2, 전문용어 언어공학연구센터.
- 주재우 외(2017), 남북한 초등학교 쓰기교육 내용 비교, 《작문연구》 33, 한국작문학회.
- 조태린(2017), 통일 시기 남북 전문용어 표준화 정책에 대한 소고, 《사회언어학》 25-3, 한국사회언어학회.
- 최기선 외(2000-), 《전문용어센터 운영: 전문용어 표준화를 위한 기반 조성》, 한국과학기술원.
- 최기선 외(2000-), 《전문용어연구 1》, 흥릉과학출판사.
- 최용기(2010), 《남북한 학술용어 비교사전: 인문》,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최현배(1937:1989),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5), 《2015 교과서 편수 자료Ⅱ: 인문·사회과학/체육·음악·미술 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2007), 《학술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결과보고서》, 한국연구재단.
- 한용운(2015), 남과 북의 사전, 《새국어생활》 25-2, 국립국어원.
- 허웅(1975), 《우리옛말본》, 샘문화사.
- 허재영(2014), 전문용어 정책의 역사, 《어문학》 125, 한국어문학회.
- 홍종선 외(2011), 《국어사전학개론》, 제이앤씨.

<사전 및 누리집>

- 백과사전출판사(2008), 《광명백과사전》 6, 백과사전출판사.
- 백과사전출판사(2011), 《광명백과사전》 7, 백과사전출판사.
- 사회과학언어연구소(1992), 《조선말대사전》, 동광출판사.
- 사회과학출판사(2006), 《조선말대사전 증보판》, 사회과학출판사.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14), 《한국어교육학사전》, 하우.
- 이상수(2010), 《남북한 학술용어 비교사전: 사회》,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표준국어대사전 검색 웹사이트: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 우리말샘 검색 웹사이트: <https://opendict.korean.go.kr/main>

<외국 논저>

- Antia, B.A. (2000), *Terminology and Language Planning, An alternative*

- framework of practice and discourse*,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Philadelphia.
- Grice. H. P.(1967), *Logic and Conversation, Unpublished MS. of the Willaim James Lectures*, Harvard University.
- ISO 704 (2009), Terminology work - Principles and methods.
- ISO 860 (2007), Terminology work - Harmonization of concepts and terms.
- ISO 1087-1 (2000), Terminology work - Vocabulary. Part 1: Theory and application.
- ISO 10241 (1992), International terminology standards - Preparation and layout.
- ISO 22134 (2007), Practical guidelines for socioterminology.
- ISO/IEC Guide 2 (2004), Standardization and related activities - General vocabulary.
- Maurais, J. (1993), "Terminology and Language Planning" in *Terminology. Applications in Interdisciplinary Communication*, ed. H. Sonneveld & K. Loening,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Philadelphia.
- Rey, A. (1995), *Essays on Terminology*,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Philadelphia.
- Strehlow, R. (1993), "Terminology Standardization in the Physical Sciences" in *Terminology. Applications in Interdisciplinary Communication*, ed. H. Sonneveld & K. Loening,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Philadelphia.
- UNESCO (2005), *Guidelines for terminology policies.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terminology policy in language communities*, UNESCO, Paris.
- Wright, S. & Budin, G. (1997), *Handbook of Terminology Management. Basic Aspects of Terminology management*, vol. 1.,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Philadelphia.
- Wright, S. & Budin, G. (2001), *Handbook of Terminology Management, Application-Oriented Terminology management*, vol. 2.,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Philadelphia.

<abstract>

Establishment of South and North Korean Terminology in the field of Korean Grammar, Literature and Technical Writing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vercome the heterogeneity of two Korean languages in the reunification period through analyzing terminology in the field of Korean grammar, literature and technical writings, *i.e.* Korean language subject. Based on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we set the research goals as follows :

- (1) i . The elimination of unnecessary costs caused by terminological differences in South-North Korean exchanges will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unification preparation period and the transition process between the two Koreas.
- ii . During the reunification period, the Korean language and vocabulary necessary for middle and high school education of the youth and the learner shall be prepared and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nsistent textbook shall be established.
- iii . The procedure and methodology from the previous research are applied to the Korean grammar, literature and technical writings field, and the feasibility of the research methodology is examined.
- iv . We will participate in expert workshops, consultations, and international conferences to shar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 v . We will look into the direction of the studies of the South and North Korean terminologies and present the future tasks.

The term extraction of this study was conducted in three directions, namely, grammar, literature, and technical writings. First, we extract the terminology of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 from the textbooks. And the

corresponding terminology was confirmed based on the Korean textbooks and dictionary data of the North. The north side of the map was mainly composed of "Enlightenment Encyclopedia" and "Grand Dictionary of Chosun". As a result, 1,162 terms in the grammar area, 726 terms in the literary field, and 312 terms in the technical writings field were extracted. In addition, there were 1,279 types of AA (identical terms) and 120 types of Aa type (almost identical form with orthographical differences) and 801 of AB type. We can confirm that the terminology used in the identical form in North and South is more than that which is not.

Next, linguistic analysis was carried out by dividing the extracted terminology of North - South Korean language into morphological types, types of constituents, and word formation, etc. As a result of morphological analysis, word type was overwhelmingly higher than phrase type. It can be seen that both North and South prefer a concise form of terminology. As a result of analysis of term constituents, it was confirmed that the frequency of Chinese roots is high in all fields such as grammar field, literature field, and technical writings field. This pattern is reflected similarly for the North and South Korean correspondent lis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grammar and literary fields were the same in terms of the highest number of terms composed of two lexical units. In the technical writings field, the term composed of one unit was the highest. Also, in all fields, the highest frequency of common nouns or common nouns combination was found. The core unit of terms in Korean language subjects is presented in the table.

In this study, the integration criteria and the detailed guidelines of the terminology of the Korean language subjects are presented. Based on the criteria of the previous study, *i.e. Basic South-North Korean Terminology Analysis* in 2015 and *Establishment of South-North Korean Terminology* in 2016, we selected the integrated standards and established a hierarchy based on their importance. The detailed guidelines for the integration of terminology in Korean language subjects are the filter criteria which are grammaticality and ethico-aesthetic criterion and the hierarchical criteria which are transparency, consistency, familiarity, univocity, economics, and priority of the

dominant language in question (here the Korean own and Chinese root words).

Finally, we will propose some approaches and subjects concerning the projects of the two Koreans. The future directions of our research are as follows :

- (2) i. Full Investigation and integration of terminology of Korean language subject
- ii. Integration of terminology in the field of Humanities
- iii. Integration of terminology in practical subject fields (agriculture/horticulture, medicine, geography, technology, etc.)
- iv. Development of Inter-Korean Terminology Search Application

Key words : Linguistic analysis, core morphological units, filter criteria, hierarchical criteria, terminology integration, grammar, literature, technical writings

<연구진>

연구 책임자	신중진(한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공동 연구원	김유진(한양대 국어국문학과 강사) 이은실(한양대 국어국문학과 강사) 이현주(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 전은진(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 박선(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연구원	김진만(한양대 국제어학원 강사) 엄태경(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강사) 이성우(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강사)
연구 보조원	유재형(한양대 국어국문학과 박사 과정)
보조원	김령령(한양대 국어국문학과 석사 수료) 범기기(한양대 국어국문학과 석사 수료)

발행인: 국립국어원장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27

인쇄일: 2017년 11월 30일

발행일: 2017년 11월 30일

※ 이 책은 국립국어원의 용역비로 수행한 ‘남북 국어 분야 전문용어 구축’ 사업의 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